

제429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정기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1월13일(목)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국가유산청 소관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국가유산청 소관

상정된 안건

-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 2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국가유산청 소관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 2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국가유산청 소관

(11시03분 개의)

○소위원장 박수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국가유산청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업 분류는 회계별 기준 실국별 소관 사업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사업별로 전문위원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 to 위하여 소속·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사 원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기본적으로 정부가 수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는 한 논의하지 않고 정부가 불수용하거나 일부 수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정부가 불수용하거나 위원님들 간 합의가 안 되는 사업 중 논의가 길어지는 사

업의 경우에는 심사를 보류하고 보류사업 심사 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서면질의가 훨씬 늘어서 전체로 우리가 심사해야 될 양이 한 2배 이상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 심사의 원칙, 작년과 똑같은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정부가 수용하는 경우에 전문위원 보고나 또 정부 측의 의견 설명은 생략을 하고, 생략을 하더라도 회의록에는 다 일단 기재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에만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설명을 하는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원칙을 가지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11시06분)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우정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원칙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설명하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소위 심사자료 7쪽입니다.

문화정책관 4번, 충청 국학진흥원 기관 운영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을 거부해 기관 운영이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판단할 근거가 없으며, 26년 정부안은 일부 증액하였으나 방만 운영이 의심되는 기관으로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훼손되어 기관 운영과 충청남도의 전면 점검 및 자료제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업비 3억 100만 원 감액.

10쪽입니다.

7번,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상징물 구축을 위한 내역사업 AI 기반 전통문화 융합 콘텐츠 대풍금 구축 사업 3억 원 증액.

11쪽입니다.

내역사업 K-헤리티지 밸리 조성(순감, 전년도 대비 10억 원 감액)은 26년도 사업의 연속성 및 완성도 제고와 사업 운영의 적절성을 위하여 1억 원 증액.

8번, 내역사업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135억 8700만 원, 전년 본예산 대비 55억 원 증액)은 전국 초중고 정규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국악·연극 등 예술강사를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전문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려는 것임.

동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교육청 매칭사업으로 당초 문체부 예산 감액, 지방교육청 예산 반영의 취지와 달리 지방교육청 예산 반영의 어려움으로 학교예술강사 처우 저하, 학교예술교육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바 당초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던 예산 규모로 환원하기 위해 438억 8500만 원 증액.

12쪽입니다.

학생들의 보편적 문화예술교육 기본권 저해 및 시수 축소로 인한 예술강사 활동 여건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강사료 등을 포함한 314억 1300만 원 증액.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이에 대한 정부 측 의견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우선 7쪽, 감액안 3억 100만 원은 멸실 위기에 처한 충청권 국학 자료 수집 및 보존·관리를 위한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10쪽 7번,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사업은 사업 대상지인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은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지방비 매칭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할 경우에 AI 기반 전통문화 융합 콘텐츠 대篷금 구축 사업 국비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K-해리티지 밸리 조성 사업 증액안은 2025년 국비지원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립 사업에 필요한 다른 내역으로 변경할 경우에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해 증액 필요성이 있으나 국고와 지방교육재정 간의 균형을 위해 다수안인 314억 1300만 원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국학 진흥정책 기반 조성에 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께서 3억 1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고 정부 측은 정부안 유지 의견이십니다.

김재원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김재원 위원** 지속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를 하나도 주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지금 운영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고, 그리고 방만 운영이 지금 의심되고 있는데 자료가 없으니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어서 감액 의견을 냈습니다.

기관에서 이렇게 자료제출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하고 이런다는 것은 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성실히 제출을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으니까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죄송하지만 하나 여쭙겠습니다. 어떤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제출을 안 하는 겁니까?

○**김재원 위원** 운영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일체의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차관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자료제출을 처음에 불성실하게 했다가 나중에는 자료제출을 의원실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님, 제가 이 기관을 정말 호되게 질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이 3억 소액이지만 이 기관에 꼭 필요한 돈이고 필요한 사업이라 위원님, 재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기관이 계속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다가 결국은 차관님이 소액이니까 반영을 해 달라 혹은 기관 운영에 문제가 굉장히 크게 생긴다, 모든 기관이 다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게 전례로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를 여쭙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다른 의견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김재원 위원님 문제 제기하셨는데 아마 설립이 된 지 얼마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운영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일까지 소위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김재원 의원실에 납득할 만한 자료제출하고 반영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 지역별 국학 진흥 지원기관이 다 존재합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충남만 감액될 경우 타 국학기관과 형평성 문제도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김재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문체부에서 기관경고를 주고 원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차관님, 기관경고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기관경고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임오경 간사님 말씀대로 기관경고를 주는 것으로 하고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자료는 안 받으셔도 되겠어요?

○**김재원 위원** 자료 받아야지요. 자료는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에 대한 기관경고를 하시고 김재원 위원님께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하시고, 자료제출은 당연한 것이라고요. 그걸 전제로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하시고요. 그런 전제조건으로 정부안을 유지하는 것을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께서 수용해

주시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차관님, 예술강사 인건비 지원은 여러 가지 앤이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한 314억 1300만 원 증액하신다 그랬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 정도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그 정도가 있으면 정부예산이 450억이 되고 450억을 저희가 요청을 하면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 450억 해서 900억이 되는데 900억이 되면 예년 수준으로, 23년 수준으로 복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70만 원 수준, 시수를 2023년 시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어차피 예결위 과정에서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지방 교육청 매칭이 제대로 돼야지 정말 걱정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밑에 아동·청소년 예술교육, 향유공간 조성 이건 상당히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이 돼 가지고 특히 관련된 시설이 열악하거나 시설이 있더라도 운영할 여건이 안 되는 그런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전체 대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았어요. 감사드리고.

우선 지금 4번, 국학 진흥정책 기반 조성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아까 제가 정리한 대로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어차피 김승수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말씀하셨으니까 전별로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설명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자유스럽게 하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보고와 설명한 건에 대해서는 잠시 전 김재원 위원님께서 의견을 수용하셔서 정부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다음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7쪽, 예술정책관입니다.

15번, 학부모 동의 없는 홈스테이 추진, 교장의 반복된 비즈니스석 이용 등 불공정한 예산집행으로 감사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전까지 해외 공연 및 교장 업무추진비 등 예산 10억 원 감액.

21쪽입니다.

17번, 내역사업 성북문화유산센터 건립 신규 편성을 위해 29억 1000만 원 증액. 내역사업 진도 호남권 민속문화예술 체험존 조성 신규사업 편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원 증액. 내역사업 국립 세종대왕 문화회관 건립 신규 편성을 위해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 원 증액.

22쪽입니다.

18번, 내역사업 문화예술 전국 유통 지원은 다양한 규모별 공연·전시 콘텐츠 유통과 지자체별 예술가 중심의 지역 대표 예술단체 발굴 등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계 활력 제고 및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근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심의·공모 과정 중 정치적 편향과 이해충돌 의혹 제기가 발생한바 개선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운영비 및 사업비의 10%, 53억 3900만 원 감액입니다.

24쪽입니다.

내역사업 문학 진흥기반 구축은 국내외 작가들이 참여하는 행사와 한국문학 비평 및 담론 형성 지원을 통한 한국문학 세계화 기반 구축을 위한 것입니다. 국립 노벨문학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등 연구용역비 3억 원 증액.

26쪽입니다.

21번, 동 사업은 청년 창작예술가의 생계노동 부담을 감경하고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창작 환경 조성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과 지원 대상이 중복되는 면이 있으며 소득제한을 두지 않아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성과관리·선정기준이 불명확하고 예술활동 실적 검증 없이 현금만 지급하는 생활보조금 성격의 포퓰리즘 사업으로 정책 타당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사업비 전액 18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29쪽입니다.

하단, 내역사업 장애인 예술역량 강화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문화 다양성의 가치 실현을 위해 장애인의 예술창작 활성화 및 문화예술 향유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6년 밀라노 패럴림픽 개최에 따라 국내외 아티스트 협업 및 전시회 개최 등 장애예술인의 아트패럴림픽 참여 지원을 위해 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30쪽입니다.

내역사업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공간 운영은 장애인 맞춤형 공연장 운영 및 창작활동 접근성을 갖춘 전시장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공연 창작 및 발표 활성화와 향유 기회 제고 등을 위한 것입니다.

모두예술콤플렉스 조성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 원 증액, 모두예술콤플렉스 조성 사업을 위해 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31쪽입니다.

24번, 내역사업 한국문학번역원 지원은 한국문학 번역출판 지원, 한국문학 번역인력 양성, 해외 교류·홍보를 위한 것입니다. 17억 92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25번, 내역사업 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 지원은 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에서 전시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6년 운영비 16억 원은 국가유산청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으로 위탁 집행 예

정인 만큼 전시·공간투어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2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32쪽입니다.

26번, 내역사업 문화창작공간 조성은 시각예술 분야 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국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증진, 한국미술 진흥 및 해외 진출의 요람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국립문화공간재단은 설립 과정에서 기관장의 특정 인사 특혜, 문체부 산하기관과의 중복성 등의 사유로 해당 기관의 통폐합이 필요하므로 운영비 및 사업비 15억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42쪽입니다.

32번,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건비입니다.

대중문화교류위 출범으로 한예종 전임교원 인건비 9억 2000만 원이 문체부로 이용됐고 전임교원의 정원 대비 현원이 약 30명 가까이 부족하여 한 해 채용 규모 8~12명을 고려했을 때 17명의 교원은 사실상 확보가 불가하므로 인건비 17억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잠깐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소위원장 박수현** 전문위원 보고에 대한 정부 측 설명을 듣기 전에 바로 앞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건이 있습니다.

10페이지, 7번 밑에 보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상징물 구축을 위한 내역사업에서 3억 원 증액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은 지금 일부 수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소위원장 박수현** 이것이 3억 원 증액을 반영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 그다음에 있는 내역사업 K-헤리티지 밸리 조성도 일부 수용, 이것도 1억 원 증액인데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측면이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기조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정훈** AI 기반 전통문화 융합 콘텐츠 대篷금 구축 사업 3억 원 증액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지가,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은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지방비 매칭으로 사업 변경할 경우에 AI 기반 전통문화 융합 콘텐츠 대篷금 구축 사업 국비 반영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지방 매칭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증액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지금 그 밑에 K-헤리티지 밸리 조성도 마찬가지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정훈**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매칭을 어떻게 하자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수현** 잠시만요.

그러면 지방비 매칭을 부대의견으로 넣을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정훈 지방비 매칭 50 대 50을 부대조건으로 해 주신다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그렇게 정리해도 됩니까?

○민형배 위원 부대의견이 아니고 이건……

○소위원장 박수현 의견 말씀하세요.

○민형배 위원 부대의견이 아니고 여기서 결정을 해야지요, 5 대 5로.

○소위원장 박수현 5 대 5로?

정부 측.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이게 5 대 5가 안 되면은…… 국고로 전액 지원은 어렵습니다, 위원님. 5 대 5로 해 주셔야……

○소위원장 박수현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국비와 지방비 5 대 5 매칭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위원장님, 5 대 5로 할 경우에 국비 금액이 1.5억 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정훈 예, 1.5억 원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1.5억 원.

추가 확인할 사항 없습니까?

○임오경 위원 헤리티지도……

○소위원장 박수현 헤리티지도 그러면 1억 원 증액인데 이것도 역시 0.5억 원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번, 예술의전당 지원에 2건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수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2건 중에서 어떤 것을 수용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하단의 24억을……

○소위원장 박수현 하단의 24억.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걸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상단의 의견을 내신 임오경 위원님의 의견 없으시면……

○임오경 위원 예.

○소위원장 박수현 하단에 있는 24억 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먼저 17쪽입니다.

15번, 국립전통예술중고 운영, 이 건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교장하고 교직원, 교원의 해외 교류 사업 관련 예산 5100만 원은 감액하고 학생들과 관련된 나머지 예산은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문체부 감사 결과에 따라서 염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김재원 위원님께서 10억 원 감액 의견을 내셨는데 정부 측 의견은 5.1억 원 감액으로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5억 5100만 원. 이게 나머지는 다 학생들하고 관련된 예산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다음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다음, 21쪽입니다.

17번,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사업, 내역사업 국립 세종대왕 문화회관 건립 신규 편성 건 등입니다.

우선 수용 곤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내역사업 성북문화유산센터 29억 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존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진도 호남권은 특정 단일 지역의 관광인프라 조성 사업은 20년에 지방 이양이 되어서 증액안 반영은 수용 곤란합니다.

다음, 세종대왕 문화회관 신축 사업은 건립을 위한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증액안 5억 원을 수용합니다. 다만 신규 건립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문화예술 전국 유통 지원 사업은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안 유지를 바랍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문화 진흥기반 구축 사업은 한강 작가 본인이 이걸 원치 않아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서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은 청년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이미 지역 수요조사 가내시를 통해서 지역에 예산이 내려가 있어서 지역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장애인 예술역량 강화 사업은 26년 밀라노 아트페어리피 참여 지원에 총 5억 원을 요청하였는데 이미 정부안에 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원만 증액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모두예술콤플렉스의 26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당초 정부안으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30쪽까지 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31쪽입니다.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사업입니다.

해외의 한국문학 번역·출판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우수한 우리 문학작품이 해외에 더 많이 소개될 수 있도록 정부안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32쪽입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

○소위원장 박수현 31쪽의 25번도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내역사업 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사업비는 정부안 편성 취지에 따라서 국가유산청 회계로 편성하고 국가유산청이 운영비와 함께 사업비를 한국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으로 위탁하는 방식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부

수용해서 이 사업 예산 20억이 이번 예산 국회에서 국가유산청 예산에서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미술 진흥기반 구축……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예, 김승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승수 위원** 지금 너무 한꺼번에 많은 거를 설명하고 검토보고하니까 설명하는 사람도 헷갈리고 우리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전문위원 할 때 한 5페이지 내외로 하고 끊어서 들어가도록 합시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알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여기까지는 하더라도 그다음부터.

○**소위원장 박수현** 예, 여기까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다음, 36쪽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아니, 32쪽의 26번 일부 수용에 대한 의견 말씀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문화공간재단을 유사 공공기관에 통합하거나 업무는 이관하더라도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개관 준비는 연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직원의 인건비와 사업비는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래서 얼마?

○**소위원장 박수현** 일단 거기까지 하는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어떻습니까? 더 남았습니까? 설명 자료 남았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같은 건인데 하나 더……

○**소위원장 박수현** 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개관은 철저하게 준비하되 국립문화공간재단 기관 운영의 재검토를 위한 상임위 감액안 3억 원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차관, 정부 측에서 지금 33쪽에 있는 3억 원 감액을 수용한다까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일부 수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거기까지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위의 것 일부 수용하고.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지금 현재 수석전문위원 보고한 내용을 다 설명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아직 다 못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36쪽, 내역사업 미술 진흥에 관한 수용 곤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예술축제의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서울-한강 비엔날레 지원, 문화행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원 제외 대상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용이 곤란합니다.

42쪽,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건비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건비에 대한 상임위 감액 의견을 일부 수용해서 5억 원만……. 왜냐하면 현원상의 불용이 지금 한 5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5억 원만 감액해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지금부터 회의 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승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대로 수석전문위원은 일정 부분으로 딱 끊어서 적게 보고해 주시고요.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예.

○**소위원장 박수현** 그리고 정부 측 설명이 끝나면 각각에 해당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간단하게 전별로 쭉 듣는 식으로 진행을 빨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17페이지의 15번, 국립전통예술중고 운영에 관해서 김재원 위원님께서 10억 원 감액 의견을 내셨는데 정부 측에서는 5억 5100만 원만 감액하는 것으로 지금 설명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장님, 5100……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니까 5100만 원.

김재원 위원님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김재원 위원** 나머지 부분들이 학생들 어디에 이용된다는 얘기지요? 10억 감액을 요청드렸는데 5100만 원만 감액하자 그러시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술정책관 이용신입니다.

이 외에는 다 학생들의 교류 사업 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교류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국감 때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

○**김재원 위원** 힙스테이를 부모한테 알리지도 않고 추진했잖아요. 그리고 교장은 비즈니스석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자기 멋대로 일정을 만들어서 마치 자기가 여행 가고 싶으면 힙스테이 일정을 만들어서 갔다 오듯이 이렇게 해서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

○**김재원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학생들은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조금 감액이 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남겨 주자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그래서 일단 교원들 부분은 삭감하더라도, 그러니까 감사 결과를 반영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하고 학생들은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들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은 반영을 위원님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지금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감사 결과 및…… 감사도 하기로 했잖아요?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면 그때 가서 보겠다 하고 그 때까지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학생들을 평계로 들어서 재발방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까지가 요구사항 아닙니까. 요구조건 아닙니까. 감사 결과를 보고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면 그때 살려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그러면 내년에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감사 결과에 따라서 그 개선방안하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문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지 국감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냥 단순 금액으로만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재발방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통예술고는 입시비리는 수사를 받고 있고 이것은 지금 문체부 감사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중징계가 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이것에 연루된 교사들은 업무에서 거의 배제됐고 그다음에 새로 이 일을 맡아서 할 교사들은 저희 문체부의 지침에 따라서 출장규정이나 여비규정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련이 되면, 지금까지는 감사하고 있고 수사하고 있어서 아직 여비규정이나 출장규정이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마련을 못 했는데 그 대책을 마련하면 위원님께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예술정책관님!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

○민형배 위원 언제부터 예술정책관 하셨어요? 예술정책관 부임하신 게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지난주 목요일.....

○민형배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 이해가 잘 안 돼 있으신 것 아닌가요, 혹시?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일단 제가 자료는 공부를.....

○민형배 위원 보셨는데?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

○민형배 위원 14번의 국립국악중고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

○민형배 위원 뒤에 계신 분 말씀해 줘 보세요.

국악중고 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교사·학생 수.

뒤에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대략.....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장 김홍필 예술정책과장 김홍필입니다.

학생 수 24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교사는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장 김홍필 교사 수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파악이 안 되고요.

15번, 국립전통예술중고 여기는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장 김홍필 여기 225명입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요 지금 예산액을 봐 보세요. 36 대 79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전통예술고 운영에 특별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고 그것을 지금 김재원 위원이 짚으신 거예요. 이렇게 불필요하게 예산을 집행한 그게 있다는 뜻이거든요.

학생 수도 거의 비슷하고 교직원 수도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전통예술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무엇을 하기는 했을 텐데 지금 국감 때 문제 제기한 사업은 예술고가 가지고 있는 특성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이런 쪽에 편성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운영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교수가 바뀌고 거기 책임자들이 형사처벌 받는다고 하더

라도.

예술정책관님, 제 의사 전달이 됐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 이해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학교 운영을 하는데 똑같은 사이즈의 학교인데 특성이 있어서 조금 더 예산을 쓰는 것은 맞는데 이런 쪽에다가 과도하게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보류를 좀 해 놓고 살펴보신 다음에 김재원 위원님의 의견이 적절한지 봐서 감액 규모를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립전통예술고 운영의 내년 예산이 다른 비슷한 학교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아요. 그리고 그것은 특성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일 텐데 그것이 적절한지를 본 다음에 이것은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김재원 위원님께서 감액 사유로 말씀하신 내용들을 언뜻 보아도, 정부 측에서 현재 수사 중이라고 하므로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사실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에 대한 감액 규모를 정부 측이 5100만 원 정도로 성의 없이 답변하시는 것은 특별한 근거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보류하고 이따 보류 심사를 할 때까지 적정한 감액 규모를 다시 보류 심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21페이지 17번,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 성북문화유산센터 건립 관련해서 29억 1000만 원 증액 요청이 있었는데 수용 곤란 입장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문체부에서의 판단은 어떤 것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박물관·미술관 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지방 이양이 됐습니다. 지방 이양이 되면 국비를 편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냥 법 규정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이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이게 20년, 23년에……

○이기현 위원 지방 이양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업 중에서.

○이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박정하 위원님 증액 말씀하신 내역사업은, 현재 자리에 안 계시고.

민형배 위원님께서 5억 원 증액 말씀하신 국립 세종대왕 문화회관 건립은 정부 측이 수용한다고 했으므로 민형배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박정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도 호남권 민속문화예술 체험촌 조성, 정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민형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일부 수용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정확히 말씀을 해 보세요, 어떻게 수용하신다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문화정책관입니다.

지금 세종대왕기념관은 현재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건물에 입주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하고 있는 세종대왕기념관에 대해서 국유재산 토지사용료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한 18억 정도 국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먼저 선결돼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세종대왕기념관을 국립시설로 할지, 아니면…… 지금 국립시설로 해 달라는 건데 국비를 다 들여서 국립시설로 한다는 부분에서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립으로 한정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할지, 신축을 할지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전제하에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5억 원 증액에 대해서 일부 수용인데, 정확하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첫 번째로 지금 세종대왕기념관에 대해서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국유재산 토지사용료를 체납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을 먼저 납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립 세종대왕 문화회관이 아니라 지방비 매칭이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지, 신축을 할지 그런 종합적인 연구 방안으로……

○민형배 위원 정책관님, 그런 것을 지금 살펴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기로 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예.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를 줄이겠다는 겁니까? 용역을 않고……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아니, 용역비를 줄인다는 건 아니고요.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는 그대로 가고 지금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예.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가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용역은 가는데요, 위원님……

○민형배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저희가 파악하기로 회장이 체납액을 납부할 용의가 있으니까 받고 하겠다……

○민형배 위원 예.

○김승수 위원 그런데 정책관님, 이 사업에 이 정도 용역에 5억 정도가 필요한가요? 다른 유사 용역비가 얼마 정도 나왔어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이 건에 대해서, 현재 이 건물이 73년도에 준공된 건물이라 굉장히 노후되고……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건물에 이 회관을 건립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닐 거라는 거지요. 만약에 용역한다 그러면 입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구상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할 거라서 5억씩이나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넉넉하게 잡아서 5억이라고 아마 제기해 주신 것 같고요.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하면 이 용역을 통해서 나와야

될 결과물이 뭐고 그 결과물이 나오는 데 이러이러한 사전조사라든지 구체적인 지출이 어느 정도,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내용으로 나와야지 이 정도 용역비가 필요하다가 되는데 무턱대고 그냥 아무런, 어떤 결과물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것도 불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략적인 내용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5억이라는 자체가 너무 크게 잡은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제가 알기에는 리모델링을 하는 시설 쪽의 용역도 있고 이게 워낙 오래됐는데 운영이, 지금 너무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나 체험이나 교육 같은 것들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요, 입지도 좋고 해서. 그런 운영 방법까지 포함해서, 콘텐츠까지 포함해서 5억으로 잡았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라는 용어 자체가 안 맞는다. 기준에 있는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들어가야지요. 이렇게 가면 입지부터도 거기에 둘 건지, 다른 지역에 둘 건지 이런 것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건물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한 육칠십 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하고 콘텐츠는 어떻게 채울 것인가 거기까지 같이, 수익 사업부터 인력 운영이나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찍어서 그렇게 용역 제목을 달고 거기에 대한 과업지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용역 제목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기본 구상을 기본계획 및……

○민형배 위원 정책관님, 지금 이 용역의 타당성에 대해서 묻고 계시잖아요. 이 용역비의 타당성, 이 정도 용역비가 왜 필요하냐, 3억이면 되는 것 아니냐, 2억이면 되는 것 아니냐. 아까 그냥 넉넉하게라고 대충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수현 정리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5억 정도의 적정한 용역, 그러니까 이 용역비의 적정성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예, 지금 차관님 말씀 주신……

○민형배 위원 차관님 말씀하셨는데……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차관님 말씀 주신 대로요 기본적으로 이 시설이 굉장히 노후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할 건지, 신축을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운영 주체, 지금 현재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입주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 건물의 정당한 소유주가 아닙니다, 지금 미등기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건물이 지어졌을 때 어떤 주체가 들어가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런 부분 그리고……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아니고 명칭을 바꾸겠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예. 기본계획 그다음에 전시 콘텐츠까지 같이 검토

하면 5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좋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의 의견과 민형배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잘 반영된 설명과 그다음에 명칭 변경을 전부 수용하는 조건으로 이 문제는 정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다음에 18번에 대해서 수용 곤란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이기현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이기현 위원님은 수용인데요?

○**소위원장 박수현** 김재원 위원님, 18번에 대해서……

○**김재원 위원** 이건 국감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심의·공모 과정 중에 심각한 결탁과 카르텔 그다음에 정치적 편향, 이해충돌 의혹 제기를, 지적하였습니다. 이 개선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아까 전통예술중고등학교의 사례처럼 운영비 및 사업비의 10%를 감액하자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에서 다시 한번 김재원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술정책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술정책관 이용신입니다.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53억 3900만 원은 사실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사업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직접 관리하는 사업들을 다 적시하셔서 삭감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자체 제도 개편안을 강구 중인데 이 사업을 전액 삭감할 시에 현장 예술인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대책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고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 부분은 정부안을 그대로 보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재원 위원** 언제까지 마련하실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저희가 내년도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는 완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내년도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요? 그때까지는 이렇게 그냥 방치를 하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그 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바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경지원센터의 자체……

○**김재원 위원** 예술정책관님, 지금 예술정책관이 되신 지 얼마 안 된 거는 알겠는데 하지만 이렇게 기본 방침이나 아니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오늘 이 심사자료가 정부 측에서 다 검토를 하시고 수용 곤란 의견을 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하고 오셨어야지요, 아무리 모르신다고 해도. 그런 게 전혀 없으신 상황에서 지금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하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소위원장 박수현** 이 부분에 대해서 김승수 위원님 의견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높이면서 또 문

화복지의 형평성에 기여하고 또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공연 기회가 없는데 그런 분들에게 공연 기회를 주자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계속 확대돼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김재원 위원도 그 취지에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다만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투명하거나 비합리적인 이런 부분이 보이니까 저런 지적을 하는 거란 말이지요.

성과지표가 뭡니까, 이 사업의 성과지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이 사업의, 이게 심사하는……

○김승수 위원 아니, 이 사업의 성과지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정성적 성과지표 말고 계량적 성과지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있어요. 둘 다, 차관도 모르고 국장도 모르지요?

사업의 성과지표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편성할 때 성과지표를 내도록 돼 있는데. 지금 문체부의 여러 사업들의 성과지표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잡혀 있는 데다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성과하고 괴리된 그런 성과지표가 있다는 거지요.

일단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김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사업의 취지,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좀 더 높이면서 또 지역 단위의 여러 문화예술단체나 문화예술인들의 공연 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쪽의 성과를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와 이 성과지표가 괴리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심사하기 전까지 아주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더라도 김재원 위원이 지적하신 이런 문제점들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쪽의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 방식이나 성과지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이것은 보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임오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오경 위원 차관님, 이 사업에 있어서는 2024년에도 국감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거 알고 계시지요? 2년 연속 계속해서 지금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에 대한, 대책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감액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감에서 지적을 받았으면 차후 국감에서는 이거에 대해 같은 지적은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연속으로, 계속해서 지적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대책, 개선에 관련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반드시 앞으로도…… 국감에서 지적을 받았고 또 2년 연속 받는다라고 하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3회 정도에서는 완전 전액삭감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 대책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이 부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엄중하게 지시해 가지고 김승수 위원님 말씀처럼

오늘 마련해서 내일까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이 문제는 지금 김승수 위원님과 임오경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는 김재원 위원님께서 삽감안을 내신 이유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류하되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선 대책을 확실하게 보류 시간에 제출하되, 추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감액이 일부라도 저는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대책을 내실 때 정부 측에서 감액에 대한 의견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보류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9번, 예술 창작활동 지원에 관해서 24페이지 내역사업 문학 진흥기반 구축에 관한 김교홍·양문석·조계원 위원님의 3억 원 증액에 관해서 아까 정부 측은 한강 작가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조계원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조계원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한강 작가하고 연락해서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제가 알기로는 국에서 연락을 했고요. 작가님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지는 걸 좀 저어하고 있고, 이게 자자체에서는 원하는데 작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되면 콘텐츠나 이런 게 조금 부실하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민형배 위원** 차관님, 저는 그 접근 방식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한강 작가는 한강 작가고 지금 우리나라에 노벨상 수상자가 두 분이잖아요, 고인이 되신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번에 한강 작가하고. 그러면 이걸 노벨문학센터로 하면 노벨문학센터가 한강 작가 것은 아니잖아요. 당신 이름을 쓰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온 국민이 노벨문학상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또는 인문학, 문학 쪽에 더 친근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인프라를 깔려고 하는 것을 노벨상 수상자의 의견에 따라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장홍군에다가 한강 작가와 개인적인……

○**민형배 위원** 그거는 본인이 반대하면 한강 작가 이름을 쓰면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본인이 내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데 한강 작가는 이미 인류의 이름이고 대한민국의 이름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까지는 쓰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노벨문학상을 기념하는, 노벨평화상을 기념하는 이런 사업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건립 사업으로 노벨문학상을 기념하는 걸 장홍군에 세우는 것보다는 2년 후에 한국문학관이 국립으로 은평구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서 거기다가 특별한 전시관을 아예 상설로 하나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하여튼 저는 한강 작가명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강 작가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에 지금 노벨상을 받은 분이 두 분이 계신데, 두 케이스가 있는데 이 노벨상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혹은 노벨상 받은 그 의

미를 살리고 이어 가기 위해서 기념 사업을 하거나 무슨 관련한 사업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한강 작가나 고 김대중 대통령의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을 써서 문학관을 짓는다거나 센터를 짓는다거나 그런 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하고 말씀을 잘 나눠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접근할 때 ‘한강 기념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럴 테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국인이 노벨 문학상 받은 걸, 그런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냐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기본적인 취지는 한국문학의 비평 및 담론 형성 지원을 통한 한국문학의 세계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한강 작가의 이름을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노벨문학센터가 필요하다, 그 건립에 필요한 용역이지 이걸 왜 한강 작가의 개인적인 동의 여부로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는 건지는 의문시되거든요.

일단 보류해 보고 이것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의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위에는 한국문학의 세계화 기반 구축을 위한 것이다 해 놓고 지금 이 부분이 왜 한강 작가님과 의견이 조율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연계성이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국립 노벨문학센터 건립을 한다면 바로 위에 기술한 대로 한국문학의 세계화 기반 구축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 너무 미시적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측면이 들어서 이 문제는 보류할 테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 문제에 따라서 한국문학의 세계화 기반 구축을 위한 이런 목적에 중점을 두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보류하겠습니다.

26페이지 21번,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에서도 지금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등에서 수용 곤란, 정부안 유지, 180억 원 감액 의견을 김승수 위원님, 박정하 위원님, 진종오 위원님께서 내셨는데 정부 측은 수용 곤란, 유지 의견을 내셨어요.

그래서 김승수 위원님이나 진종오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아까 차관님 정부 측 말씀하실 때 지역으로 이미 예산이 지급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지급이 아니고 가내시 됐습니다, 가내시. 이만큼 여러분 시도에 돈이 갈 테니 그에 맞춰서 내년 예산을 짜 놔라 하고 갖고 지방에서 마련을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진종오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그 평가지표가 작성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성과지표를 증거 기반으로 해서……

○**진종오 위원** 제가 위 사안 관련해서 한번 문체부랑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평가지표라든지 선발 기준이 잡혀 있다면 충분히 팬찮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확실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만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누가 봐도 현금 살포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기준이 잡혀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술정책관이 말씀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지금 이 수행기관인 문화예술위원회가 각 지역의 광역 문화예술위원회 재단들하고 같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활동계획서를 받아서 중간점검을 하고 우리가 결과 보고에서 창작물을 제출하면 증거 기반 성과 평가를 하는 걸로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래서 3000명이 참여하는데요 위원님, 이 참여한 3000명이 참여하지 않은 3000명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그거를 수치로 한번 측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진종오 위원** 그러니까 해 보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게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지금 너무 계획만 잡아 놓은 상황이라서 저는 이거는 납득이 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기현 위원** 지금 수요조사가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 수요조사는 끝났습니다.

○**이기현 위원** 수요조사 끝났고 지역별로도 배분이 완료가 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러면 감액되면 굉장히 혼란이 초래되겠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지역에서 좀 혼란이 초래될 것 같습니다.

○**이기현 위원** 저는 이것 주장했던 사람인데 청년예술인 창작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0세 미만 청년들 같은 경우에 창작활동하면서, 지난번에 저희 토론회도 한번 했었는데 평균 수입이 월수 100이 안 돼요. 일반 20대 청년들이 갖고 있는 월수 평균소득을 통계 내 보면 약 39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거 대비해서 30% 정도 수입으로 예술활동·창작활동을 버티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예고했었고 또 지역으로 배분도 됐고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되지 않고 원안대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러니까 좋은 사업인 거는 저도 동의하는 편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기준이 어떤 건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준 자체가 확실히 마련이 되어 있는지 그걸 먼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 이정우** 위원님, 저 문화예술정책실장입니다.

저희가 이거 선정을 할 때 예술활동 증명을 한 케이스가 한 16만 명 정도 나옵니다. 그중에서 39세 이상 청년예술가들이 한 7만 명 정도 되고 그중에서 저희가 실제 창작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텝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아니라 문학이나 연극, 안무 같은 거에 참여하시는 분들 찾아보니까 한 4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한 10% 정도를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저희가 3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이고, 그 3000명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면 수도권에 한 70% 정도가 집중이 돼 있고 지역에 30%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역 예술인들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50 대 50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고.

저희가 뽑은 3000명과 뽑히지 않은 3만 명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활동계획서를 받고 그들에 대해서 각 지역 자치단체에 있는 재단을 통해서 평가를 받아 가지고 뽑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예술가에 했던 사업에 비해서는 훨씬 더, 또 퍼포먼스에 근거를 해 가지고 사업을 뽑을 예정이고 그다음에 사업이 시행되고 나서도 그들에 대해서 중간활동계획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나머지, 예를 들어 900만 원을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중간평가를 거쳐 가지고 나머지 잔액을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해 가지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술정책관이나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통 사업을 시작할 때 지방과의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지방비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적으로 시도 문화체육과장들이나 국장들이랑 회의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방비 확보를 먼저 하고 진행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준비가 잘돼 있는 사업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런데 매해 심사하는 기준은 뭐예요? 왜 매년 선발하려고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 이정우** 3만 명을 원래 다 지원해 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따지면 예산이 17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금액이 과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10%를 하고 나서, 뒤에 나오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또 평가하기 위한 용역 예산도 정부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그 사업이 잘 되는 거에 따라서 10%를 100%까지 늘려 나갈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이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보류해서 또 토론해 보기로 하는 쪽으로 하고요.

이 문제가 존경하는 진종오 위원님께서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시면서도 사업비 전액 삭감 의견을 내실 만큼 지금 설명을 했지만 다 이해가 되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보류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액 삭감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께 정부 측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그 선정의 기준이나 성과지표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더 설명이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조계원 위원님 의견이 계시지만……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장 박수현** 자료 요구는 먼저 하십시오.

**○김승수 위원** 앞서 굉장히 설계를 잘했다고 그랬는데 설계가 제대로 잘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부실하고, 예정처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지금 신진예술가 창작준비금하고의 차별성도 없고, 심지어는 이 신규사업뿐만 아니고 창작준비금조차도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던 계속 중복성, 그러니까 올해 수여한 사람을 2차, 3차, 5차까지 막 이런 것도 개선이 안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래도 상당히 지출 범위를 브로드(broad)하게 했다 하더라도 사

용 목적에 맞게 이 부분이 지출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출됐는지에 대한 창작준비금…… 그러니까 기준에 계속해 왔던 사업들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신규로 더 많이, 일인당 창작준비금 300만 원 줬는데 900만 원 주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은 돈을 주는 예산이 목적도 상당히 불투명하고, 일단 지급대상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서 창작준비금하고 차별성이니 왜 이 사람한테 이 돈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어렵게 사는 예술인들한테 돈 지원해 주고 싶다는 것에서 180억 삭감이 우리 당안으로 나왔지만 저는 삭감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창작준비금하고 차별화를 확실하게 시킬 것이나 또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지급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할 것이나.

앞서 창작준비금 제도에 나왔던 것들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그런 형평성 또 비수도권 우대하는 그거는 일부 반영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작준비금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꼬박꼬박 받아 가면서, 한 번 받아본 사람이 알기 때문에 매년 받는단 말이지요. 그런데 부실하게 받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효과를 못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아예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어떻게 폐널티를 줄 것이나. 제대로 성실하게 활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차년도 선발할 때 우선권을 준다든지 양 제도의 차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두 가지 제도를 좀 더 내실 있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거를 내일까지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 가지고 심의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보류를 하되, 아까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현재 수요조사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이것이 감액이 될 시 나타날 수 있는 혼란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균형 있게 잘 설명을 하셔서 추가적으로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다시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는 보류하고 다시 토론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약간만 제가 보완……

○**임오경 위원** 보류 사업이지만 그래도 잠깐, 지금 두세 분밖에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좀……

○**조계원 위원** 잠깐, 제가 얘기 한마디도 못 했거든요.

일단은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예술활동증명자 중에서 선발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예술활동증명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요. 지금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해서 지원을 쉽게 했나요? 그건 개발이 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그 부분은 시스템을 개발해서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계원 위원** 아직 하고 있나요? 개발 중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

○**조계원 위원** 일단 그 부분이 제대로 되면 훨씬 더 많은…… 아까 총 7만 명 중에서

2만여 명은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더 많을 거예요, 예술활동 종사자들이. 그 부분 보완을 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어쨌든 여기에 보면 창작활동계획서도 제출하고 중간점검도 하고 또 카드로 지급하네요. 카드로 하니까 사용내역도 하면서 통계적으로 사후 피드백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마련이 된 것 같고. 최종 결과물도 받는 걸로 돼 있지요, 신규 창작물도 제출받는 걸로?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예.

○조계원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검증이나 나중에 사후 관리까지도 염두에 두고 설계한 것 같은데 자료를 잘 준비해서 위원님들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임오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오경 위원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공감합니다. 이게 스포츠 쪽에서도 일자리지원금 사업이 있어요. 계속 그 일자리지원금 사업은 유지되고 있는 거 같은데,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에 있어서 구체적인 창작활동계획이나 산출물 관리, 사후 평가지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좀 더 이해가 됐는데 사전에 미리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일회성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이용신 아닙니다.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인데 제가 지원을 했을 때 1회밖에 지원을 못 하는 건가요?

○조계원 위원 시범사업 기간은 두 번 중복은 안 되겠지요?

○임오경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한 번은 너무나 적다라는 거지요. 이 사업을 할 거면 연속성도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이정우 위원님, 평가를 해서 만약에 청년예술가들이 2년 내지 3년 정도 지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저도 일자리지원금 사업의 지원비를 받아 본 사람인데 한 번으로는 너무나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일회성이라면 오히려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 이런 평가도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청년들의 연평균 소득인 3920만 원에 대비해서 지금 창작활동가들을 보게 되면 1150만 원인가로 나와 있더라고요. 너무나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원책에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자리지원금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이용신 시스템상 우리가 먼저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을 한 다음에 예술활동준비금 사업은 이후에, 그러니까 차이를 둬서 먼저 창작 지원 사업을 하고 활동준비금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크로스체크를 해서 중복 지원은 안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상할 계획입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이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 먼저 진행을 하고 완료된 이후에 예술활동준비금 사업을 해서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시스템도 그렇고 구분할 계획입니다.

○임오경 위원 이게 소득 제한 같은 것도 구분을 해서 선정을 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지금 현재는 소득 제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그 부분을 심사 과정이라든가 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작년에도 아마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전 장관님께서도 이 청년예술인 대상 정책 지원 사업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정부 차원의 설명을 들었을 때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했고 청년 지원 사업에 있어서 제가 웬만하면 삭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사업을 가지고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감액 요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중으로 더 많은 설명을 보충으로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님과 임오경 위원님의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진종오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께서 180억 원 전액 삭감을 내신 이유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조언과 보완 의견을 충분하게 다 고려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종오 위원 위원장님, 저 10초만 말씀드릴게요.

임오경 간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정리를 하자면 지금대상 선정표, 평가 기준표, 중간평가 기준, 폐널티 기준, 창작준비금하고 중복되는지 확인, 감액 시 문제점, 소득 제한, 선발기준 모호 이런 거 다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차관님이 답변을 안 하셔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2번, 함께누리 지원에 보시면 내역사업 장애인 예술역량 강화에 대해서 민형배 위원님께서 5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2억 증액하는 일부 수용 하셨고, 그 뒤에 가 보면 모두예술콤플렉스 조성에 대한 용역비에 김교홍 위원님께서 3억 원 증액, 민형배 위원님께서 2억 5000 증액을 내셨는데 이건 각각 정부안을 유지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수용 곤란 내셨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5억 원 증액을 요청하신 민형배 위원님 안에 대해서 2억 원만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정부 측, 2억 증액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진종오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진종오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 24번, 한국문학번역원 지원에 관해서 김승수 위원님께서 17억 92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는데 정부 측은 수용 곤란, 유지 의견 있었습니다.

○조계원 위원 위원장님, 지금 민형배 위원이 이석 중이신데요 이걸 결정을 하고 넘어가는 거는 좀…… 나중에 한번 의견을 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용 곤란도 있고 5 억 원 증액 부분은 민형배 위원 의견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드리면 민형배 의원님 실에 어제 예술국장이 가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랬어요? 그런데 김교홍 위원장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3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거든요. 민형배 위원께는 양해를 구했다고 하셨는데 김교홍 위원장님께는 설명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그쪽에서 요청한 사업비 총액 자체가 5억인데 추가하면 그쪽에서 요청했던 사업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이 자료에 김교홍 위원장님 3억 증액, 민형배 위원님 2억 5000만 원 증액 이렇게 두 건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민형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 뜻도 있을 거니까 김교홍 위원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시도록 하고 정부 측의 수용 곤란, 유지 부분을 그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조계원 위원 예.

○소위원장 박수현 감사합니다.

다음에 24번, 17억 9200만 원 감액 의견을 김승수 위원이 내셨는데 정부 측이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에 대해서 의견 주시겠습니까?

○김승수 위원 저는 한국문학 작품들, 노벨문학상을 받은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도 해외에 번역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기 때문에, 한강 작가 책들이 많이 번역돼서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번 국감 때도 번역원장 답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납득이 안 간다는 거지요.

지금 ‘내 친구 김정은’ 같은 경우에 김정은이 굉장히 예의 바르다 또 여러 가지로 북한이 개선됐다, 처형하거나 이런 것들도 줄었는데 개혁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처형이었다. 예의 바른 사람이 이모부를 불러서 처형을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합니까? 차관님 그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수 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우리 문체위에 지금 판매 중지 또 배포 중지해 달라고 이렇게 청원까지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몇만 명이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설사 원장님은 모르고 그게 통과돼서 갔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과악을 못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혀 이게 문제가 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선순위 결정,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많이 번역을 해 주고 싶은 작품들, 신청하는 그런 작품들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번역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오히려 불필요한, 아니면 해서는 안 될 그런 책은 번역하면서 꼭 필요한 것들은 후순위로 미루는 이게 납득이 안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책이 선정됐는가 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래서 어떻게 개선해서 선정 과정을 좀 더 치밀하게 하겠다 하는 개선 방안을 내일까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이 부분은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매우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신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 측의 충분한 설명이 전혀 없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김승수 위원님께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시고 향후의 어떤 계획이나 대책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은 김승수 위원님께서 그냥 정부 의견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넘어가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승수 위원 내일까지 개선안은 갖다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역시 바로 밑에 25번에 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 진흥에 관해서 아까 정부 측은 이것이 유산청 예산이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가유산청 소관 예산을 확인해 보니 이 부분 관련한 국가유산청의 증액 의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므로 이 문제는 국가유산청의 의견을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절차를 하시도록 하고요. 이것은 보류해 놓고 유산청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 26번, 미술 진흥 기반 구축에 관해서 15억 원 감액 의견을 내셨어요, 국립문화공간재단은 설립 과정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임오경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임오경 위원 일부 수용이라고 했는데……

○소위원장 박수현 예, 일부 수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수용은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개관 준비비 3억 원 감액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신다는 뜻이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것을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조계원 위원님 안을.

○소위원장 박수현 예,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 국립문화공간재단은 아시다시피 블랙리스트 관여자인 우상일 씨가 대표로 선임된 곳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국립문화공간을 해체하고 다른 문화예술 분야 유사 공공기관에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저는 개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

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구조 개편까지 포함해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명확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안을 제시해 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5년 신설된 국립문화공간을 해체하고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개관 준비 사업을 유사 공공기관으로 이관한다. 유사 공공기관의 통합 추진을 위해 대표 인건비는 전액 삼감하고—2억 감액이지요—그리고 사업비는 11억 5000만 원—그러니까 1억 원 감액이니까요—으로 편성한다. 이렇게 부대의견으로 첨부했으면 좋겠는데 의견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국립문화공간재단과 관련한 문제는 임오경 위원님과 조계원 위원님의 의견을 부대의견에 담는 것을 정부 측이 수용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개관 준비 3억 원 감액 조계원 위원님 안에 대해서 수용했기 때문에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내역사업 미술 진흥에 관한 이기현 위원님의 2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 수용 곤란하다는 정부 측 의견인데 이기현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기현 위원 이유가 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술정책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공공미술품 관련해서 정부안 편성 당시에는 별도의 신설 재단을 만들어서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당초 연구용역이라든가 관련 법 제정의 효율화라든가 운영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정부 미술품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운영하는 게 재정적으로나 전문성 면에서 더 낫다고 생각해서 당초 정부안 편성 당시의 금액을 감하고,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에 따른 재정 효율화에 따라서 21억을 감액한 대신에 국립현대미술관 일반회계 예산으로, 그러니까 보조금 예산이 아닌 일반 210 예산 쪽으로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님께서도 정부 측의 설명에 대해……

○이기현 위원 다른 얘기 한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지금……

○조계원 위원 사업 자체를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요?

○이기현 위원 제가 올린 것은 서울-한강의 빛 국제아트페스티벌 사업을 위해서 2억 증액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수용 곤란 이렇게 온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보조금법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지방 사업에 못 주기 때문에 그 2억을 지원하지 못하겠다는 그겁니다.

○이기현 위원 제외 대상이라는 얘기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 이정우 예. 서울·고양 비엔날레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기현 위원** 서울·고양 비엔날레가 아니고 서울-한강의 빛 국제아트페스티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 이정우** 예.

○**이기현 위원** 36페이지입니다. 다시 한번 봐 주세요. 36페이지에 제일 윗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 이정우**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맞는 거지요, 서울-한강의 빛?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 이정우** 예.

○**조계원 위원** 그 앞에 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35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게 좀 전에 예술정책관이 설명드린 건데요. 새로운 재단을 설립해서 새로 국고를 많이 들여서 하지 말고 기존에 국립현대미술관에 이 미술 은행 관련된 팀이 있으니 그 팀에다가 이 일을 맡기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감액안이……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두 개가 있잖아요. 95억 8000만 원 감액안이 있고 제가 했던 24억 2000만 원 감액안이 있는데 어느 걸 수용한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술정책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통합에 따라서 예산이 신규 재단 운영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절감을 하면 24억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24억 2000만 원 절감한 정부안을……

○**조계원 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박수현** 그래서 김재원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께서 95억 8000만 원의 삭감 의견을 내셨고 조계원 위원님께서 24억 2000만 원 삭감 의견을 내셨는데 정부 측은 24 억 2000만 원의 삭감안을 수용하는 의견인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승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수현**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저는 정부 측 삭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도 사실은 미술품이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화가들, 작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림을 팔기가 쉽지 않고 또 구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구매하기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대신에 이렇게 임대해서 걸어놓을 수 있거나 교체할 수 있으면 그게 미술시장이 구매를 떠나서 임대해서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고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 미술시장이 살 수 있는 하나의 활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렇게 정부 미술품은행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오프라인, 온라인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작가들과 구매가 아닌 임대를 원하는 그런 수요자들과의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승수 위원**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의 인천형 아트페어 육성 지원에 서 5억 증액 요구를 했고 수용을 했단 말이지요. 지금 아트페어가 전국에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도 있고 대구도 있고 부산도 있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국비가 지원되는 게 있으면 얼마씩 지원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지금 아트페어가 영화제처럼 여러 개가 공모해서 받

아가는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K-아트페어와 같이 큰 거는 좀 많이 가지고 가고 작은 거는 적게 가져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 아트페어가 아니고 기존의 여러 개 아트페어들이 있고 또 그런 부분 앞서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돼서 금액을 배분하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사업이라서 저도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일반적인 원칙에 반하는 거 아니냐 해서 이게 그러면 예결위 가서 설명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42페이지 32번,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건비에 관해서 존경하는 박정하 위원님께서 17억 원 감액 의견을 내신 데 대해서 정부 측은 5억 감액 의견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정부 측 5억 감액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5억 감액은 너무 약하고요. 지금 인건비가 정부안에 2억 정도 감액돼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장 김홍필** 이미 4억 3400만 원 감액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김승수 위원** 지금 정원 대비 현원 17명이 채용이 안 돼 있단 말이지요, 보면은. 그런데 올해만 채용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벌써 수년 동안 이렇게 정원을 못 채우는데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거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교수를 채용할 때 실기로 세계 정상급의 교원만 채용하려고 하는 노력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조금 완화해서 교원 수를 채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수 위원** 당해 연도에 이렇게 정원 대비 현원의 결원이 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벌써 수년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경비에서 불용이 생기니까 이번에 대중문화위 예산으로 불쑥 그냥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집행이 불가능한 걸로 보고. 그래서 그 부분만큼 인건비 감액을 주장한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정원 대비 현원을 해 가지고 추이를 봐서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지금 5억 원 정도 더 감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5억 원 감액을……

○**김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이 자료에는 존경하는 박정하 위원님만 감액 의견을 내신 것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도 감액안을 내신 것으로 속기록에 기록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래서 정부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이제 다 심의한 거지요?

○소위원장 박수현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잠깐 제가 두 가지만 먼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그냥 넘어간 게 있는데 14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께서 제기하신 안이  
라서 저도 최대한 수용하고 싶습니다마는 국제한글대회 및 남북한글대회 개최란 말이지  
요. 남북한글대회 개최가 내년에 가능할 것인가. 사전 준비나 이 부분에 대해 구상이나  
한 것이 있는지를 오늘 오후나 아니면 내일까지 이야기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리고 27페이지 22번, 함께누리 지원에 장애인 대표예술단체 활동 지원  
이 사실은 본예산에서 3억 5000이 삭감됐단 말이지요. 장애예술인들의 활동 지원은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소한 그 이상으로 증액돼도 오히려 좀 미흡한데 이렇게  
감액됐어요. 왜 감액됐는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술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장 김홍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존 사업 지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들 중에 특이 소요가  
없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10%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이번에 정부에서 하자 그랬는데……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장 김홍필 다만 장애예술인은 4%만 감액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리고 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장애예술인들뿐만 아니고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미흡할 텐데 그것을 또 이렇게 획일적으로 감액한 것 자체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것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같이 고민해 주시면, 오히려 일정 부분 물가상승률까  
지 감안해서 증액시키는 게 맞지 않는가. 예결위 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더라도 우리  
문체위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님, 물가상승률 이런 것들 봐 가지고 증액안도 가져와서 최종 결  
론을 냈으면……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의사진행발언으로 해서, 지금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봤을 때 오늘, 내일 있는데  
1차관 소관도 다 하기가 만만치 않고 더 한다 하더라도 2차관 소관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히 국가유산청까지 오늘 와서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국가유산청은 아  
예 내일 부르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냥 건의드립니다.

○임오경 위원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오늘 본회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녁 식사도 해  
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도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일 오전까지 저희가 여야  
간 합의하에 잡아 놓은 거예요. 저희가 최대한으로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부족한  
것을 내일 오전에 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김승수 위원 알았어요.

○소위원장 박수현 알겠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회의 진행을 잘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대표예술단체 활동 지원과 관련한 감액 사유

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 심사할 때 의견을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예.

○소위원장 박수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회의 산회 직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 중지)

(16시58분 계속 개의)

○소위원장 박수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위원님들의 좌석 위에 정부가 수용하기 곤란한 건에 대해서 수용 곤란 사유를 간단하게 적은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2건씩 끊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심사자료 43쪽, 지역문화정책관입니다.

34번, 내역사업 면목동 도서관 및 주차장 복합시설 건립 신규 편성을 위해 40억 원 증액. 자재비·인건비 인상 등 물가 요인 증가로 인해 지방비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44쪽입니다.

35번, 내역사업 국립민속박물관 영남권(안동) 건립 신규 편성을 위해 실시설계비 48억 원 증액.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면목동 도서관·주차장 복합시설 건립 사업은 지방 이양 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쪽, 국립민속박물관 영남권 건립은 타당성 종합계획 연구용역 후 건립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34번에 대해서 임오경 위원님, 지방 이양 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곤란하다는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임오경 위원 정부 의견 존중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예,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35번, 타당성 연구용역 등 종합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수용 곤란한 이유로 정부 측 의견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종오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진종오 위원 타당성을 조사한 다음에 수용하겠다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타당성조사 사업이 선행되어야 하니까 48억을 실시설계비로 넣는 거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겁니다.

○진종오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사업이 순천하고도 같이 진행된 거라면서요, 처음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제가 모르고 있어서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내년도 사업에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10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국립중앙박물관·민속박물관·역사박물관 분관 타당성조사를 전체적으로 할 겁니다. 거기에 순천·영남 다 들어가서 그 안에서 종합 용역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건립이 정해지면 순차적으로 실시설계비를 반영하는 순서로……

○진종오 위원 건립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정해졌다고 들은 거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아닙니다. 정해지지는 않고요. 저희가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도 예산에 10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이것은 아직 실시설계비가 반영될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뜻 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현재 반영돼 있는 타당성조사 등 여기에 지금 진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남 박물관 이 부분도 당연히 포함이 돼 있다는 뜻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예, 포함돼서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순천도 마찬가지고요 안동도 마찬가지고 같이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순천·안동 이쪽에, 그러면 뒤의 45페이지에 있는 것들도 이 10억에 포함해서 검토를 할 생각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국립강화박물관·강릉박물관도 마찬가지로 그 10억 내에서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따가 증액 부분으로 해서 다시 정부 의견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어쨌든 타당성 용역 조사를 전체적으로 하고 나서 실시설계비를 반영하는 것이 절차상,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일부 수용이고 안동 같은 경우는 수용 곤란……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안동은 지금 실시설계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뒤에 강릉하고 강화는 어차피 타당성 용역 조사 비용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일부 수용 가능하다고 그렇게 의견을 밝힌 겁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박물관 타당성 종합계획 10억 가지고 할 때 이번에 들어와 있는 증액사업들 이외에도 전체적인 틀에서 전국의 국립박물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강화·강릉 이런 것들로 고려 요인이 커지니까 5억 증액을 받겠다, 수용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김승수 위원 나도 제안드리는 것이 추가적으로 차제에, 이왕 할 것 같으면 용역비를

증액시켜서라도 전국적으로 권역별로 의미가 있는데, 강화 쪽에는 고려사 위주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시대별로 이렇게 해서 차별화된 종합계획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예타를 들어가든지 해야지 전체적으로 절차가 맞을 것 같다는 거고. 사실은 그런 기본계획이 없으면 예타를 넣으려고 그래도 기재부에서 또 안 받아 준단 말이지요,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게 더 합리적이면서 절차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 증액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수석전문위원님, 2건씩 끊어서 먼저 보고를 하시기로 했지만 지금 35번처럼 뒤에 쭉 사항들이 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포함해서 앞에 있는 번호를 기준으로 2건씩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연번 기준으로 2건씩.

기왕에 이렇게 됐으니까 그 뒤에 35번에 붙어 있는 일부 수용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설명하는 거 다 하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계속하겠습니다.

44쪽 35번, 내역사업 가현 최완수 기증관 리모델링 사업 신규 편성을 위해 5억 원 증액.

45쪽입니다.

내역사업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신규 편성을 위해 기본계획 용역비 3억 원 증액.

내역사업 국립강릉박물관 건립 신규 편성을 위해 기본계획 용역비 3억 원 증액.

내역사업 국립 저수지 박물관 건립 신규 편성을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비 2억 원 증액.

46쪽입니다.

36번, 청와대 국민화합 상징공간 조성.

대통령실이 청와대 복귀가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은 상황에서 사용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바 예산의 효율적 배정을 위해 160억 1000만 원 전액 감액.

그리고 대통령집무실을 청와대로 재이전함으로써 청와대가 부분 개방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120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44쪽, 가현 최완수 기증관 리모델링 사업은 지방 이양된 사업으로 기존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45쪽, 국립박물관 분관 10개 내외를 모두 포함하기 위해서 기존 정부안 10억에서 5억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 밑에 강릉박물관까지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국립 저수지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 2억 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정 주제의 박물관이라서 지원이 어려움을……

위원장님, 국립 저수지박물관 건립 일부 수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특정 주제로 된 거라서 수용이 논란합니다. 일부 수용이라는 게 오류입니다. 정부 입장은 수용 논란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김승수 위원** 국립 저수지박물관도 저수지 분야로 특정되지만 앞서 내가 말씀드린 대로 박물관 타당성 종합계획 전체적으로 예산을 증액시키고 나서 권역별이라든지 주제별이라든지 또 시대별이라든지 같이 검토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15억 용역 안에서 검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가지 않고요.

○**소위원장 박수현** 또 다른 위원님이요.

그러면 지금 정부 측 설명한 대로 이 건은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36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36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36번, 청와대 국민화합 상징공간 조성 사업을 위한 상임위 전액 감액안 중 56억 6600만 원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지금 160억 삭감안과 120억 삭감안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둘 중에 한 건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임오경 위원님께서 전액 삭감하신 부분과 김재원 위원님께서 인건비만 남기고 사업비 120억을 삭감하신 부분에 있어서 기관 운영 지원비 21억 그리고 사랑채 운영 35억 해서 56억이 반영되기를 바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6억 반영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감액 규모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감액 규모는 103억 4400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103억 4400만 원 감액이고……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그렇게 감액하면 56억 6600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반영이 된다 이런 뜻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54쪽입니다.

39번, 내역사업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특화 분관 건립 신규 편성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2억 원 증액.

56쪽입니다.

44번, 예술창작소 건립 세부사업 예술창작소 건립(경주) 신규 편성을 위해 52억 원 증액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특화 분관 건립 사업은 사업

추진에 앞서 국립도서관 지역별·주제별 거점관 건립 실증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 5억 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다음 44번, 예술창작소 건립은 지방 이양 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질문드리면, 위원님들께서는 내역사업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특화 분관 건립 2억 원 증액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정부 측 의견은 어떤 뜻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전주교도소 이전부지에 분관 설치하는 부분들인데요. 특정 지역에 분관 설치하는 거를 연구용역하는 것보다 국립도서관도 지방 분관 관련돼서 수요도 있고 전체적으로 한번 지방에 있는 지역별·주제별 분관 건립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5억 원 증액을 통해서 전반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의견 있으십니까?

○**김재원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와 굉장히 관련이 많은 문화유산국민신탁 김종규 전 이사장, 이배용 전 교육위원장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포상을 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요. 여기서 그동안 정권에 잘 보이려고 했던 거 이외에, 또 인맥을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이외에 도대체 뭘 잘한 게 있어서 분관까지 건립을 하도록 해 주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이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국립중앙도서관이 워낙 오래된 우리 한국 도서관의 대표 도서관이고 그런데 미술관·박물관과 다르게 지역에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도서관은 아직 지역에 분관이 없는 상태라 기왕에 할 거면 5억 원 정도 해서 전주를 포함해서 지방 주요 도시에 특화된 국립도서관 수요가 있다면 한번 채워 볼까 하는 바람에서 5억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재원 위원** 지금 차관님의 말씀은 국립중앙도서관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분관 건립을 추진하신다는 거는 기존의 시설 같은 경우에 노화 부분에 대한 거는 전혀 반영을 안 하고 분관을 들리겠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기존 시설은 계속 유지보수하고 있고요, 조금 모자란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분관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수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만약에……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넓혀서 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연숙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정연숙 위원** 저는 연번 37번 국립중앙박물관 부분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유료화 신규 편성이라고 단정을 하셨는데 유료화라는 부분들이 국정감사 때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하다 하셨지만 과연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료화라는 게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지…… 여러 언론 보도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외국의 주요 박물관은 아직까

지도 원칙적으로 무료로 한다는 대원칙이 있거든요. 과연 이 부분에 국민적 공감대를 얼마나 얻으셨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대해서 의견을 얼마나 모으셨는지……

이게 유료화를 단정적으로 하고 바로 신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과연 그 부분들이, 이게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 부분들이 어느 선까지 확보가 됐는지 그 얘기가 없이 바로 유료화 신규 편성이라고 들어가는 거는 조금 절차적으로 비약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마 외부의 주요 메인 박물관들이 갖는 상징성들은…… 유료화하라는 부분과 무료 유지하라고 하는 찬반 양론이 팽팽해요. 그런 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료화를 신규 편성한다고 단정적으로 모든 인건비 계산을 하셨는데 이게 타당한 건지, 어느 정도 공론화를 거치셨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이거는 유료화를 하기 위한 시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시범적으로 사전예약시스템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시범 시스템보다 유료화 공론화에 대해 절차적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유료화를 전제로 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유료화가 아닌…… 가부 간에 애매한 상태로 한 게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맞습니다. 유료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사전예약시스템을 도입해서 전자 서비스를 다 갖추고 그걸 통해서 유료화에 대한 공론화를 같이 추진해 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연욱 위원 여기 어디 공론화 얘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여기는 요약이 돼서……

○정연욱 위원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지금 내일모래 당장 시스템 깔아서 들어가겠다는 논리지 공론화 이게 어디 있어요? 그 취지를 제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여러 언론 보도를 보시면 과연 세계 유수의 국립박물관들이 갖는 상징을 고려할 때 이 의견이 팽팽해요. 그냥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유료화로 간다는 부분하고 과연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정부 차원에서는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내고 그다음에 이 절차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벌써 시스템을 깔아 놓고 간다는데 그게 어떻게 철회가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지금도 위낙 사람이 많이 몰려서 인원을 통제 할 필요가 있어서…… 원래 한 2만 명 정도면 충분한데 요즘은 주말에 한 4만 명이 넘거든요, 많이 몰릴 때는. 그러면 유물에도 좀 문제가 있어서 사전예약시스템이 지금 상태로도 절실하기는 합니다.

○정연욱 위원 애초에 얘기가 사전예약시스템은…… 공론화 부분을 말씀하시고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걸 먼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말씀을……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위원님, 저희가 지금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박물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12월 12일 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여기 어디에 있어요, 그런 표현이? 어디에 있어요?

○소위원장 박수현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이기현 위원님 추가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이기현 위원 지난번 국감 때 제가 중앙박물관장님께 이 문제 정책질의를 드렸던 바 있고요. 또 몇 분 위원님들께서도 박물관 유료화 관련돼서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은 아주 시급하게 대두되는 문제라는 것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도 얘기를 했었고, 국립인 경우에 무료로 운영하는 것과 유료로 운영하는 해외 사례들 그리고 거기에서의 정책적 착안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때 문체위의 정책 국감으로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질의에 대해서 위원님들, 물론 본인들 질의를 준비하시다 보니까 얘기는 안 하셨지만 별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 유료화 관련돼서, 특히 시설의 협소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고들이 예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또 이 문제는 공청회도 준비하신다고 하고…… 만약에 예산이 책정이 안 돼서 바로 유료화로 들어가는 데 시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더 늘어진다고 하면 그때는 안전 사고도 생길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때가 좀 적정한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존경하는 정연욱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점검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사실 유료화라는 것은 정책적 결정의 문제이고 또 시간을 놓쳤을 때 굉장히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서 저는 지난 국감 때 저의 질의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걸 문체부에서 이렇게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정연욱 위원님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다 이 말씀 드립니다.

○정연욱 위원 제가 굳이 더 재론하지는 않겠는데 말씀하신 취지는 지금 너무 부연 설명하시는 것보다 준비를 하시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진행하는 절차를 밟으시고 자연스럽게 정책 실행을 하는 문제에 국민적 타당성을 얻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고요. 이 부분들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또 어디선가, 저희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는 시각도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여기 어디에도 그런 설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저는 저번 국정감사 때 유료화를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 정연욱 위원 지적에 동의를 하는 것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내년에는 당장 유료화가 아니고 예약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유료화 전 단계로써 그 부분을 사전검토를 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통합예약시스템이라든지 매표소 확장 공사 이런 부분을 먼저 해서 일단 예약제로 운영을 해 보고 유료화에 대해서는 앞서 정연욱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댓글 보면 암도적으로 국민들도 찬성을 많이 하지만 단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결정을 해 가지고 나중에 유료화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공청회 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난센스란 말이지요.

그래서 워딩을 오히려 예약시스템 예산 플러스 유료화 관련해서 공청회나 검토나 용역

비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수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뒤의 것까지 말씀드리면, 지방박물관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증액은 해 주면 좋지만 실제 예결위 가서 증액이 안 되잖아요. 지방박물관 운영에서 해 봐야 이미 기재부에서 다 반영이 된 것, 안 된 것 그리고 안 된 것들 중에서도 여기에 들어 있는 게 있을 텐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옥석을 가릴 수가 없어요. 어떤 박물관에 어떤 시설이 가장 시급한데 정부안에 빠졌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는 이것 하나만 밀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개 지역박물관이 있는데 이 중에서 문체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한 사업인지 또 이게 지방박물관마다 형평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올해 지원된 지방박물관이 있으면 내년에는 다른 지방박물관에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최근에 국립 지방박물관 중에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들에 국비 지원이 어떤 것들이 됐는지 그 부분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이 사업들 중에 가장 시급성 있는 사업이 어떤 건지, 이게 전부 다 수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정리해서 가져다 주기 바랍니다, 내일 최종 결정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 위원님들의 질의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고요. 저 또한 국정감사 때 제가 국립중앙박물관 유료화를 제기했던 만큼 이 관련 시스템 구축 예산은 저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번에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이 500만을 넘겼잖아요. 앞으로 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며칠 전에 배현진 위원님께서, 사무실 내부의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더더욱, 일단 직원들의 처우, 환경이 잘 이루어져야지 더 많은 관객 수를 끌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예산 확보에 있어서 찬성을 하지만 직원들의 내부환경 개선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우선순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선시되고 그다음에 관람객이 있어야지 관람객을 위해서 사무직 공무원들은 맨바닥에서 생활하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철저하게 예산도 편성해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위원님들 의견이 더 안 계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애초에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료화에 대해서 정부 측이 존경하는 정연우 위원님의 질문과 결이 맞지 않는 설명을 하셨어요. 관람객의 폭증으로 인한 안전 문제로 설명을 하셨는데 정연우 위원님의 질문은 유료화에 대한 국민 공감대의 절차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공감하는 바가 있고 당연한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용하시되 지금 정연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임오경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잘 보충하시는 그런 조건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44번까지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39번에 대한 정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39번?

○김재원 위원 예, 갑자기 국중박으로 넘어가 가지고……

○소위원장 박수현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39번에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특화 분관 건립에 관한 김재원 위원님의 의견이 계셨고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의 설명에 대해서 김재원 위원님 한 번 더 발언 기회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존경하는 김교홍 위원장님과 민형배 위원님, 조계원 위원님까지도 2억 원을 증액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연구용역비에 5억 원까지 왜 들어가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박물관 분관 같은 경우도 10개의 지역 분관을 하는데 지금 5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한 개 도서관 분관을 하면 사실은 5억 정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서 주제별·지역별로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소한 5억 정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박수현 다른 위원님들은 정부 측 설명이 이해되셨습니까?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 김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국립중앙도서관 관련돼서 사적 사용, 사유화가 되어 있는 부분도 지적이 있으셨잖아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문화예술특화로 해서 분관 건립하는 데 용역비가 좀 더 필요해서 5억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5억이 필요하다라면 지금 김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논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그 말씀을 먼저 전제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5억을 요청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에 있어서 그냥 필요한 것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 앞으로 사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다라고 그런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도서관장의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과 업무처리가 있었는지 잘 살펴보고 그게 있었다면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김재원 위원님, 정부 답변을 수용하십니까?

○김재원 위원 국립중앙도서관장이 김종규 전 이사장을 포상한 것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려고 해요, 예산 달라고 하고.

○소위원장 박수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재원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포상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는지 제가 소상히 살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김종규 전 이사장의 문제는 지난 국감 때 벌써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도서관장이 여기 앉으셔서 다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국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무시하고 그분한테 포상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고도 국회에서 예산을 내려 주기를 원합니까?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은 김재원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차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살펴보셔서 위원님의 지적대로 조치할 것 있으면 정확하게 조치하시고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 보류 의견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런데 보류를 김재원 위원님 하시더라도 저희가 심의 끝에 보류 심사를 다시 하는 것이지 그렇게 보류할 수는 없는 사안 같거든요.

그래서 김재원 위원님, 제 생각은 지금 정부 측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사후에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과 또 재발방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김재원 위원님께 조치하실 부분에 대해 조치하는 약속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것을 전제로 지금 5억 원 증액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하는데, 정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원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김재원 위원** 예.

○**소위원장 박수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건은……

○**김승수 위원** 제가 뒤에 39번하고 42번 지적하려고 그러는데요.

39번 국립도서관 운영에 국가서지정보 구축이 작년도보다 5억 증액이 됐는데 또 AI 기반 서지정보 구축 이렇게 해서 15억을 증액시켰어요. 그리고 다른 사업이지만 42번에 보면 AI 서비스 개발을 위해 20억 증액시켰고 또 텍스트 데이터 구축에 50억을 증액시켰는데 그러면 증액이 원래 도서관정보시스템 구축·운영 66억보다도 더 크단 말이지요,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이 과거의 디지털콘텐츠 때도 그렇고 지금 AI니까, AI 쪽으로 빨리 가야 되는 거는 맞는데 너무 우후죽순처럼 가는 것 아니냐.

구체적으로 사업내역이 뭔지 또 시급성이 뭔지, 기존에 편성됐던 것들하고 이 부분하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도 대부분 내용에 대해서 전혀 보고를 받거나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류했다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내일 듣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저한테 사실은 요청이 와서……

서지정보 구축 및 품질 관리 자동화는 운영체계를 AI 시스템으로, AI 기반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다음에 55쪽 42번, 도서관정보시스템 구축은…… 그 밑에 있는 내역사업 AI 텍스트 데이터 구축 제공 우선 이것부터 말씀드리면, 세상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국 중도가 아직까지도 디지털 전환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국 구글 같은 데서 이것 우리가 할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데이터 주권 문제가 걸려서,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지금까지 않고 있나, 이 AI 시대에.

혹시 여기 국중도 누구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오늘 안 나왔습니다.

○민형배 위원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데이터가 굉장히, 중도가 가장 자료가 많은 곳인데 이 텍스트를 AI 텍스트로 전환하는 문제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오히려 놀라 가지고 이런 것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 데이터 주권 문제가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와 가지고 이걸 자꾸 달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이것은 증액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20억은 이것을 나중에 활용할 때 LLM 모델을 만드는 그 개발 비용이고 그래서 용도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충분히 설명이 다 되지는 않겠지만 너무 늦어서 제가 황당했습니다. 지금 AI, AI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국중도가, 자료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제공해야 될 이곳이 너무 뒤쳐져 있어서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거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던 바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민형배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민형배 위원님의 설명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정부 측이 책임 있게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수용 의견이시니까.

지금 민형배 위원님 설명은 각각의 예산 용도가 다 기능이 다르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민형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처음 20억은 경량형 LLM 모델, 그러니까 챗GPT 같은 것의 한국 모델을 만드는데 그 운영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고, 두 번째 학습데이터 구축은 AI가 학습을 하려면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가 변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경우는 그런 진도가 많이 나갔는데 제일 낙후된 게 국립중앙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놔야 우리 주권 AI로 가는 데 있어서 기초체력 같은 겁니다.

○김승수 위원 차관님, 그 내용을 몰라서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필요성이나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예산 책정된 것이 적정하냐, 내년도 사업계획에 있어 가지고 이 정도 예산으로 해서 진도가 얼마나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자료나 이런 것들을 내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보고 최종적으로 적정한 증액 예산인지 결정해 보자는 겁니다.

○민형배 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을 해 드릴게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를 올렸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AI 텍스트 데이터 구축 이 부분이 아직 전부도 아니에요. 사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원래 문체부에서 올렸는데 기재부가 다 잘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재부가 지금 이 AI 시대에 이런 것을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거는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차관님,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생각해도 이 부분은 명확히 설명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수용 의견을 내셨지만 보류로 분류하고 대신에 국

립중앙도서관에서 자료를 받으셔서 이 문제를 김승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요. 그래서 내일까지 저희들이 그 자료를 잘 보고 다시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위원님들 그런 조건으로 일단 보류해 놓을까요?

○김승수 위원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내년도 사업 진행 계획을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해 달라는 겁니다. 저도 정부에 있을 때 빅데이터 개방은 제가 직접 총괄했었기 때문에, 이것하고 조금 다르지만 거의 유사한 사업을 기재부 가서 받고 이렇게 해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이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리고 44번은 아까 정부 측에서 지방 이양 사업이므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44번까지 정리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국제문화홍보정책실, 60쪽입니다.

맨 하단에 한류 미주방송 활성화를 위한 채널 운영을 위해 5억 원 증액.

61쪽입니다.

온라인콘텐츠 해외홍보 허브 구축 사업은 그 형식은 다르지만 재외홍보문화원 등에서 홍보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증액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14억 9000만 원 감액.

해외홍보 영상물 제작 사업은 그 형식은 다르지만 재외홍보문화원 등에서 홍보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증액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10억 9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60쪽, 국제방송교류재단은 현재 저비용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 세계 24시간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어서 상임위 증액안은 수용이 곤란합니다.

다음 61쪽·62쪽, 3개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전통적 매체에서 OTT, SNS 등으로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AI의 급속한 발전 등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홍보를 위하여 해외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홍보사업에 정부안의 유지가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46번에 대해서 각각 14억 9000만 원 감액과 10억 9800만 원 감액 의견, 뒤에 7억 5000만 원 감액까지 김승수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다른 위원님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일단 허브 구축 14억 9000만 원 증액의 구체적 내역을 어떻게 산정했습

니까?

○문화체육관광부해외홍보정책관 채수희 해외홍보정책관입니다.

그 내역은 해외문화원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이 8억 그다음에 코리아넷이라고 정부 포털 외국어 사이트가 6억 9000입니다. 그런데 증액된 8억은 다른 뭔에 있던 홈페이지 부분의 정보시스템이 통합된 것으로 증액은 아니었고요, 위원님. 코리아넷 운영은 임차료 등의 증가로 인해서 다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 밑에 두 가지, 영상을 제작 사업이라든지 또 간행물 제작 사업은 여기서 지적한 것처럼 재외문화원이 전부 다 하는 사업들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해외홍보정책관 채수희 재외문화원들은 각 재외문화원이 위치한 그 지역에 대한 홍보와 단발성 사업이고 저희 이 콘텐츠 사업은 국가적인 통합적인 사업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 와서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영상을 제작은 단편적이 아니라 국가 홍보 차원의 영상을 제작이었고 간행물은 월간 코리아나 이런 대표적인 한국 홍보 월간 간행물 제작으로 그동안 진행되어 왔고요.

다만 증액된 부분은 그동안의 환경 변화와 다르게 영상광고 같은 경우는 OTT나 SNS 까지 조금 더 광고를 활성화하는 부분 그리고 간행물 제작은 이제 오프라인 인쇄물에서 조금 더 웹 형식 또 AI가 학습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디지털 환경으로 제공하는 그런 추가적인 부분이 증액된 것입니다.

○김승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사업의 성과도 불분명한데 증액을 시킨다는 자체가 무리한 증액이 아니냐 해서 지금 삽감 요구를 한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해외홍보정책관 채수희 예.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의례적으로 어떻게 보면 별 효과도 없는 것을 계속 해왔는데 그것에 또 추가적으로 돈을 더 쓰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해외홍보정책관 채수희 그렇지만 더 발전적으로 변화된 환경에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대응하기 위해서 좀 더……

○김승수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존에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해외홍보정책관 채수희 영상을 제작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홍보하는 영상물을 송출해서 뷰어 같은 게 많이 늘었고요.

○김승수 위원 구체적으로…… 그래서 아까 설명한 이런 부분은 잘 납득이 안 된단 말이지요. 기존의 사업 자체도 효과성이나 성과성이 그렇게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증액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감액 요구를 한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도 어쨌거나 큰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성과나 해외문화홍보원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해외홍보정책관 채수희 예, 의원실에 한번 설명은 드렸지만 요구하신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는 저희가 하는 대표적인 사업이고 특히 코리아넷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대표적인 영어·외국어 포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운영하는 것하고 실제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문제지요. 지금 한국과 관련된 정보는 여러 가지 매체, 특히 국감 때 연합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영자로 된 유튜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크게 지금 효과성이 안 보인다는 거지요. 하여튼 어쨌거나 자료를 줘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해외홍보정책관 채수희** 예.

○**소위원장 박수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기준 사업 성과가 불분명하므로 감액 의견을 내신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 건은 정리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그리고 위원장님 59쪽과 60쪽 수용에 대해서 숫자가 2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잠깐만, 하나씩 봅시다.

위원님 여러분, 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내역사업 국제방송 활성화에 대해서 수용 의견을 주셨는데 거기에 38억 1300, 28억 1300 두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증감액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수용하신다는 뜻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해외홍보정책관 채수희** 세부사업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38억 1300만 원 증액이 수용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서로 좀 중복이 돼서 어떤 것들은 조금 더 많이 포함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38억 1300만 원이 수용되기를 원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리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저는 다른 의견인데요. 꼭 이것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일반회계와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 콘텐츠 제작비) 관련돼서, 지금 아리랑TV하고 국악방송이지요? 방발기금에서의 프로그램 제작비 삭감에 따라서 계속해서 문체부가 제작비 확보를 일반회계로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그렇고 매년 이 부분에 있어서 문체부로 왔을 때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문체부 쪽에서 계속해서 기재부에다 요청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래서 저는 2026년에는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확실하게 과방위하고 얘기해서 법정 법인화해서 일반회계로 가지고 와서 아예 그냥 문체부에서 다 총괄하자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문체부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해야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방발기금은 계속 불안해서요.

○**임오경 위원** 저희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지금 계속해서 과방위에서는 방발기금을 가지고 이것을 삭감시킨다고 논쟁이 되고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임오경 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이 매년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왜 이것을 방관하고 있나라는 거지요. 그래서 26년도에 이 관련된 제도 정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의 지금 말씀은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건에 직접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임오경 위원** 예, 한 건은 있고요. 아리랑TV……

수용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계속 국제방송 관련돼서 수용하고 있는데 이게 과방위에서 방발기금에서 삐감돼서 우리한테 넘어오니까 다시 저희가 기재부를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

○**소위원장 박수현** 맞습니다. 그것을 지적하신 것이지요?

정부 측도 임오경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시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다른 위원님들도 대개 저는 같은 의견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기회에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본 위원도 확인해 본 결과 과방위 등…… 다른 부처에서도 이런 의견들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것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도 원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이 기회에 아예 임오경 위원님 말씀대로 또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 동의하시는 대로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6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억 원 증액안과 5억 원 증액안 중에 어떤 것을 수용한다는 뜻입니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10억 원 증액안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아니, 그러니까 둘 중에 증액이 많은 것을 그냥 선택하지 마시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지금 아리랑방송에서 해외에 지사를 미국하고 유럽하고 두 군데 두겠다는 얘기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위싱턴이나 대사관 인력도 그렇고 문화원 인력도 그렇고 언론사도 그렇고 관련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고 인력도 있고 그런데. 또 사실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그 정도 인건비를 가지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서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두 군데를 한꺼번에 하지 말고 그래도 유럽 정도에는, 그러니까 프랑스나 이렇게 하면 그 나라뿐만 아니고 인근 지역까지 넓게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한번 해 보고 이게 성과가 있으면 추가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해서 5억을 50% 정도 반영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고.

여기 언론인들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 근무해 보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뿐더러 실질적으로 역량 있는 사람들을 구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우리가 목적했던 소기의 성과를 이미 기준에 있

는 기관들과 차별성 있게 달성하기 힘들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 정도로 해 보자 그겁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 이 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는데 좀 더 강화시키자는 측면에서 더 그러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해외 지사가 아리랑TV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리랑TV……

○**임오경 위원** 거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어학을 잘하는 자원이 아리랑TV 속성상 많이 있으니까 한 두 군데쯤, 미국하고 유럽 쪽에 하나씩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아리랑TV 해외특파원을 파견하자는……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는 2개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김승수 위원님은 처음 해보는 거니까 단계적으로 하나 먼저 해 보고 성과 분석하면서 해 보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김승수 의원님 안으로 정리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수용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해외홍보정책관 채수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나는 미국, 유럽 정도는 하나씩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연욱 위원** 그런데 단계적으로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해외 운영이라는 게 아마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생길 수 있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소위원장 박수현** 예,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렇지요.

○**소위원장 박수현** 단계적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단계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요 대륙이 몇 개나 있는데 미국에다 하나만 할 겁니까, 유럽에다 하나만 할 겁니까? 적어도 주요 포스트라고 여겨지는 이쪽 정도 해 보고 그다음에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소위원장 박수현** 그것은 위원장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정부 측에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단계적으로 한다는 걸 수용한다고 하셨으니까.

○**임오경 위원** 그냥 결론을 내려 버리시니까……

○**김승수 위원** 유럽 쪽에는 프랑스 파리의 한국문화원이 다른 유관기관하고 같이 쓰고 있잖아요, 건물이 우리 건물이고. 그래서 한 명을 파견하면서 또 건물 하나 따로 해서 하는 것들보다는 만약에 거기에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일단은 파견해서 실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보고 제대로 역할을 하면 확산하는 게 안 좋겠느냐,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나중에 바로 또 늘릴 수 있으니까요.

○**김재원 위원**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이라는 것은 그렇게 공간이 방 한 칸 나오면 한 명 집어넣어서 해 보고 이게 안

됩니다. 시스템이나 운영, 인력 자체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부분이어 가지고 그렇게 집약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파리 문화원에 세종학당이라든지 다 모여 있는 것 알고 있고 거기를 방문 시찰을 해 봤었는데요. 거기는 들어갈 공간이 부족한 데다가 BBC나 아니면 CNN 같은 경우 민간방송이기는 하지만 해외에 거점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APEC 성공뿐 만이 아니라 K-문화를 더 알려야 하는 입장에서 아리랑TV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년 전에 인도를 갔었을 때도 인도에서도 방송을 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는 거점이 반드시 하나씩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방송 경험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누적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주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형편이라고 오히려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우려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저도 김재원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네 분이 10억 해서 두 군데 하자는 것하고 한 분이 5억 해서 한 군데 하자는 게 4 대 1이기 때문에 김승수 위원님께 양해를 좀 구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소위원장 박수현 이 건 보류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다 타당성이 있으세요. 단계적으로 하자는 안과 공격적으로 해야 될 때라는 말씀들이 다 합리적이시니 정부도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 좀 더 심사숙고해서 보류 심사 때 위원님들 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시고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진행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63쪽입니다.

신규 내역사업 독도 국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배포 6억 원 증액입니다.

64쪽입니다.

47번, 미디어홍보.

순방프레스센터 예산을 급격히 늘릴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제뉴스 및 해외의 여론을 분석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관권선거 등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어 순방프레스센터 설치·운영, 국제뉴스 분석, 해외 SNS·뉴미디어 여론 분석체계 구축 등 23억 36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독도 문제에 증액해 주시는 취지는 감사한데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외교 당국도 그렇고 늘 신중하게 로키(low-key)로 가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 예산을 증액하면 또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실제로 홍보활동을 해야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늘려서 홍보할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수용 곤란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다음 64쪽, 정상외교에 대한 원활한 취재 지원을 위해서 순방프레스센터 설치·운영 사업 정부안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증액 의견을 내신 민형배 위원님 의견이 필요합니다. 독도 국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배포에 관해서 6억 원 증액……

○**민형배 위원** 정부 의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데 정부 측,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민형배 위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할 일이 아니다, 해외 홍보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민형배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정리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순방프레스센터 예산에 대한 김승수·박정하 위원님의 감액안에 대해서 수용 곤란을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김승수 위원님께서 먼저 발언하시겠습니까?

○**김승수 위원** 순방프레스센터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민주당 쪽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증액시키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23억 정도 감액을 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은 지금 현재 50억 증액을 한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13억입니다. 증액분만큼 감액해 주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23억을 증액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해외홍보정책관 채수희** 순방프레스센터는 13억 36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네요. 설치·운영은 13억 3600이고요 국제뉴스 분석 5억 원 그다음에 등 5억 원 해서 23억 3600만 원인데, 지금 김승수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이게 갑자기 증가폭이 크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읽어 보니까 왜 어디어디에 증액이 되는가는 알겠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이 부분은 고질적으로 모자라서 계속해서 전용하고 예비비를 쓰고 했던 사안이라 정상외교에 너무 지장이 많아서 이번에 이 정도를 해 놓으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정상 순방은 되겠다 해서 증액을 시켜 놓은 건데 감액이 되면 다시 또 여태까지 했던 고질적인 전용과 예비비 활용을 또 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작년에 이 분야에 대한 증액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해외홍보정책관 채수희** 증액이 없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아시잖아요. 순방을 다 잡아 놓고 일주일 전이었나요, 3일 전에 갑자기 취소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이러한 사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취지가 조금 다른 부분

이었던 것 같고.

이번에 APEC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정상적인 순방 예산을 조금 더 늘려 주고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 후에 감액을 요청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정연욱 위원 순방프레스센터 설치·운영이나 국제뉴스 분석이나 해외 SNS 분석체계 구축이나, 저도 옛날에 청와대 출입을 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지만 국제뉴스 분석이나 해외 SNS 체계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것은 추가되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하던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추가되는 겁니다.

○정연욱 위원 국제뉴스 분석 5억이 추가된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해외홍보정책관 채수희 저희가 외신 모니터링은 지금도 계속……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외신 모니터링을 미디어홍보 파트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해외홍보정책관 채수희 예. 여기에 예산이, 그러니까 순방프레스……

○정연욱 위원 외교부가 안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해외홍보정책관 채수희 예, 저희 문체부의 해외홍보정책관실에서 합니다.

○정연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제뉴스 분석이라는 게……

제가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 이게 당연히 필요한 거지요. 당연히 필요한 건데 이 관련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별도로 추진되는 사안인지, 그리고 왜 추가되는지 이게 납득이…… 기본적으로 외교부가 다 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정상 순방 행사를 하면 프레스센터 설치하고 기사 분석 같은 거나 SNS 분석을 문체부가 담당합니다. 문체부가 담당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이게 예산이 없으니까 문화원에서 현지에 있는 대학원생이나 이런 사람들을 임시 고용해서……

○정연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문화원 가면, 워싱턴에 가면 현지 대사관의 문화원 파트에서도 하고 해요. 그쪽에서도 결국 나와서 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문체부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외교부의 해외문화원 쪽에서, 대사관 쪽에서도 나와서 서포트하게 되어 있어요. 같이 협업을 하는 체제로 항상 굴러가잖아요.

다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국제뉴스 분석이나 이런 것들에 5억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기관 간의 협조나 기존에했던 협업체계라는 게 있는데 문체부에 이런 예산을 잡고 가는 것이 과연 다른 기관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된 건지 그런 것을 여쭤보고…… 이게 과연 추가될 사안인지에 대해서 제가, 갑자기 이게 왜 추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기조실장이 마침 워싱턴 문화원장을 했던 사람이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정훈 바로 직전 워싱턴 문화원장을 했습니다.

문화원에서는 문화행사뿐만 아니라 순방을 포함해서 중요 계기행사의 홍보업무까지 같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예전 관행상 문화원의 말단 직원이 밤새워서 비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고, 요즘은 문화원의 보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전

문성 있는 직원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끊임없이 건의를 했는데요. 본부 차원의…… 요즘 누가 현지에서 신문지 오려서 하겠습니까. 인터넷으로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시스템 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를 활용해야 된다, 끊임없이 건의 올렸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이기현 위원님.

○이기현 위원 저도 청와대 근무하면서 해외순방 대통령님 모시고 많이 나갔던 경험이 있어서, 처음에는 제가 프레스센터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주먹구구로 하나라고 약간의 실망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있을 때는 연 10회 정도 순방을 나갔었는데, 프레스센터가 갖고 있는 홍보 기능 그다음에 공보 기능이 굉장히 크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먹구구라고 했던 것은 인력의 비전문성 이런 것들 그리고 단발성으로 인력들이 보강되다 보니까 계속 팔로업 되면서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지 않는 그런 것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관련돼서 설치·운영비 13억 들어가는 것은 동의할 수 있고요.

존경하는 정연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저는 약간의 오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체부가 지금 정부 공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문화원에서…… 만약에 뉴욕에 간다고 그러면 뉴욕에 설치된 프레스센터에, 대통령이 가시는 행사에 문화부에서 나와 있는 문화원의 말단 직원이 지금 언론을 팔로업하고 그리고 릴리스(release)를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건가요? 분석도?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정훈 물론 본부에서 나온 직원들하고……

○이기현 위원 직원들하고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정훈 같이 합니다만 서포트는 현지에 있는 문화원 직원들이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런데 말씀 주신 내용은 외교부도 하고 또 기타 기관들도 다 자기의 파트를 가지고, 산자부도 산업부장관 관련돼서 하고 다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중복되고 국가예산이 중복·낭비되는 요소들이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문화원이 전문성이 없는데 왜 그 일을 해 나가느냐라는 말씀도 저는 일부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문체부가 특히 대통령 순방 행사 관련돼서는 더 정밀하게 전문가들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동안 해외순방 행사에서 보였던 비전문성 그리고 경험이 쌓이지 못하는 문제, 사람이 계속 바뀌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한 예산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경험상 드려 봅니다.

○민형배 위원 저도 궁금한 것 좀 여쭐게요.

지금 존경하는 정연숙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 문제는 가령 국제뉴스 분석을 그동안은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추가한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사실 저는 그게 놀라워요. 지금 정연숙 위원님도 약간 그런 맥락이 있을 텐데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제대로 안 돼서 이제 이것을 문화부가……

해외순방 같으면 전반적으로 외교부가 그것을 할 텐데 이 파트만 지금 문화부가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체계가 안 갖춰져 있다는 게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거야, 벌써 돼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사실은 사전 설명이 저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배경 설명이. 지금까지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이게 제대로 안 됐다. 그러니까 국제뉴스 분석하는 이 기능이 제대로 안 됐고 해외 SNS하고 뉴미디어의 여론 분석체계가 갖춰지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제대로 갖추려고 하는 거다, 이 설명이 제대로 되어야 돼요. 순방프레스센터 예산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지만 이것은 제대로 되는 게 맞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는 게…… 대한민국의 행정 역량이나 시스템이 이런 정도 수준 아니거든요. 해외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되게 잘되어 있는 편인데 이런 게 제대로 안 되어 있었다는 게 사실 저는 좀 놀라워요. 이제 와서 이 예산을……

○정연욱 위원 존경하는 민 위원님의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잘해 보겠다는 그 취지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외 기자들을 상대로, 청와대 순방에 기자들이 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고 또 현지에 갔을 때 교민 간담회나 지역에서 대통령이 수행하는 여러 일정을 알리는 문제하고 결합이 되는 게 아마 문체부에서 얘기하는 예산 내역일 텐데 순방을 가서 여러분 겪어 보셨겠지만 브리핑 각자 합니다. 문체부장관이 브리핑하는 것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외교안보수석이 브리핑하고 경제수석이 브리핑하고, 해당 파트의 업무를하시는 분이 직접 브리핑하십니다, 순방에서는. 정 급하면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과연 그럴 때……

저는 뉴스 분석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제뉴스 분석이라는 게 큰 틀로 보면 다 각론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국가 현지에 가서 MOU를 맺었다, 어느 국가와 이런 협의를 해서 여기까지 결정을 이루었다, 논의를 했다 그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현지에서 SNS나 여론에서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어떻게 전파된다 이런 홍보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뭉뚱그려서 국제뉴스 분석, 이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국제뉴스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데요? 외교안보수석한테 브리핑 자료를 넘깁니까? 결국 기자들한테 배포하는 것 아닙니까, 주 포인트는. 국제뉴스 분석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잘 알려 보겠다라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대통령 순방 일정에 영향을 미치고 순방 의전이나 여러 가지 조정하시는 계획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청와대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해야 된다는 그 취지를 일부러 뭐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갈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수현 이 건은 사실 제가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만 저도 한 말씀만 보태면 제가 청와대 대변인이었고 홍보수석이었지 않습니까. 해외순방과 관련한 이 모든 경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어서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위원님들 지적대로 왜 문체부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가 하는 시스템의 문제는 별도, 그리고

타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도 이런 자료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 타당합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시스템 자체를 다 바꾸지 않는 한 현재의 시스템대로는 지금 기조실장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대변인인 제가 바로 이러한 자료를 금방 요구할 수도 있고 이것이 그 안에서 각자 공유가 되어서 서로 활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학생이 막 뭐를 하고 있어서 보니까 뭐냐 하면 현지 교포 대학생을 알바식으로 고용해서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적이 많거든요.

분명하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도 바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지금 결정하지 않고 보류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서 더 잘 설명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나온 토론만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결정은 미루고 보류해 놓고 나중에 보류 심사 때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10초만 보탤게요.

○소위원장 박수현 예.

○민형배 위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지금 이 예산의 목표, 이런 행위의 기능과 위상 그리고 이것의 접근 방법 혹은 시스템, 체계 이렇게 딱 해서 저희들이 보기예 ‘아, 이것은 필요하겠네’ 이렇게 설득력 있게 제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채 국장님!

○문화체육관광부해외홍보정책관 채수희 예.

○김승수 위원 이 용어가 SNS·뉴미디어 여론 분석체계 구축이란 말이지요. 어떤 식으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건지 내역을 보고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소위원장 박수현 좋습니다.

이 문제는 보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65쪽 48번, 내역사업 한류 연관 산업 지원 중 해외홍보관 신규 개소는 재외한국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홍보 사업과 유사하며 사업 설명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세종학당이나 문화원 등의 장소에 해외홍보관을 설치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요불급한 신규 개소를 추진하였으므로 45억 원 감액.

66쪽입니다.

내역사업 한류 교류 및 확산 지원 중 대형 한류 종합행사는 지자체 개별 홍보비 및 콘텐츠 확보 비용이 홍보·마케팅 비용이 책정되었음에도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지자체 개별 홍보비 및 콘텐츠 확보 비용 5억 원 감액.

67쪽 마저 설명하겠습니다.

49번, 내역사업 글로벌 K-존은 해외 주요 거점의 코리아센터 등과 연계한 한국문화집중행사 개최로 한국문화 확산과 산업 연계를 추진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기존 해외문화원 사업과 중복되고 구체적 성과지표 및 지속가능 실행계획이 없는 일회성 홍보 사업임을 고려하여 198억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이 2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48번, 한류 연관 산업 지원은 정부 투자 확대가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상임위 감액안은 수용이 곤란합니다.

다음 66쪽, 한류 행사의 효과가 지자체 관광 활성화로 확산되도록 정부안이 유지되길 원합니다.

다음 67쪽, 코리아센터 등 정부 재외문화원이 K-컬처와 연관 산업 해외 수출을 견인하는 구심점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먼저 좁혀서 내역사업 한류 연관 산업 지원에 관해서 김승수 위원님 45억 원 감액 의견을 내셨는데 수용 곤란입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김승수 위원 일단 이 부분은 금방 차관님 설명을 들어 봐도 아무런 구체성이 없어요, 왜 필요한지, 왜 시급한지,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 그러니까 48번하고 49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집중행사 개최에 무려 198억 쓰겠다는 거거든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건지 내용을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아예 보류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설명을 듣고 결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연결되는 사업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예, 알겠습니다.

정부 측, 지금 김승수 위원님이 의견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사실 의원실에 저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을 요약해서 담당 국장이 잠깐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국제문화정책관 김현준 국제문화정책관 김현준입니다.

먼저 48번, 한류 연관 산업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관계 부처 합동 한류 해외홍보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까지 해외 한류의 거점인 인도네시아와 UAE에 관계 부처 합동 상설 홍보관을 운영 중인데 이게 성과가 나오고 있어서 내년에는……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어떤 성과가 나오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인도네시아에는 자카르타에다가 세웠고요. UAE에는 두바이에 세웠는데 둘 다 아주 커다란 도심에 있는 몰에다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자카르타의 경우에 159만 명이 방문하고……

○문화체육관광부국제문화정책관 김현준 작년 같은 경우에 인도네시아에서 159만 명이 방문을 했고 매출과 계약 추정액이 120억 발생한 것으로 집계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 UAE에 신설된 코리아 360 같은 경우에는 방문객이 20만 명이고 지원 기업들의 매출이나 계약 추정액이 42억 원으로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단독으로 진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해

외 진출에서 시장을 테스트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의미가 크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류가 콘텐츠에서 뷰티, 푸드로까지 확산되고 있고 독자적인 진출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추가 개소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김승수 위원님, 성과에 대해서 설명이 좀 되셨습니까?

○김승수 위원 글로벌 K-존 198억 갑자기 내린 것도 설명을 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국제문화정책관 김현준 글로벌 K-존 같은 경우에는 한류가 푸드, 뷰티 등 연관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고 그런데 해외 현장을 둘러보면 아시다시피 문화원, 콘텐츠진흥원, 관광공사 그리고 농수산물유통공사, 중진공 등 각 분야별로 각자 따로 해외 진출을 돋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이 필요하고 연계가 필요하고 집적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김승수 위원 자, 보십시오. K-존 같은 경우는 지금 11개소 하겠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11개소에 똑같이 18억씩, 11개소입니다. 그런데 11개소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통해서 선정했나요?

○문화체육관광부국제문화정책관 김현준 11개소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집적화되어 있는 코리아센터 6개소가 이미 기준에 있고요. 내년에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김승수 위원 무슨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관계 부처하고?

일단은 대상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나라마다 물가가 다르고 또 위치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텐데 획일적으로, 예산편성을 단순화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전 현지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국제문화정책관 김현준 예, 저희가 해외 유관기관이 있는 관계 부처와 금년에 사전 협의를 해서……

○김승수 위원 아니, 문체부에서 대상기관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전에 현지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마다 다를 것 아니에요? 기존의 문화원이 있는 데라든지 홍보관이 있는 데라든지 아니면 코트라와 관련된 현지 시설이 있는 데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 없이 그리고 또 한두 개소 시범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냐, 계속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것인데 11개소에 무려 198억을 투입해서, 그것도 보면 신중하게 정부안에 담겨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 와서 이렇게 중액을 시킨다는 게……

○문화체육관광부국제문화정책관 김현준 정부안에 담겨 있는 금액이고요.

○김승수 위원 아, 정부안 금액 중의 198억인데, 어쨌거나 그런 구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국제문화정책관 김현준 구체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정리한 게 있는데 의원실에 따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질문했지 않습니까. 사전조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지요.

○진종오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예산을 해야 되는데 자료제출을 똑바로

안 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국제문화정책관 김현준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적인 설명은 드렸는데……

○진종오 위원 기본적인 설명을 더 들었는데도 보니까 똑같아요. 해외문화원 사업하고 중복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신 다음에 그래야지만 얘기가 진행되지 그러지 않고서는 이것은 이대로 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지요.

○임오경 위원 저도 한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박수현 예,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제외한국문화원하고…… 세종학당, 문화원 등의 장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매년 했었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 의견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게 되면 이것은 한류 연관 산업 지원이거든요. 이것을 설명을 잘해 주셔야 돼요. 박정하 간사와 제가 함께, 작년 9월에 통과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임오경 위원 한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한류가 뭐예요?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문화원에서, 세종학당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냥 대한민국의 컬처, 문화를 알리고 그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류산업진흥법을 발의한 것은 우리나라 대중문화 요소가 외국에서 갑작스럽게 유행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모든 게 SNS를 통해서 알려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한류 연관 산업으로서 더 많이 확산을 시켜야 되는,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과는 또 다른 사업하고 연계가 돼서, 연관이 되어서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하고 별다른 게 없다, 같은 선상으로 이런 오해를 받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한류 연관 산업으로 해서 더 세를 넓혀 가야 되는 예산이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틀린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게 첫 번째 사업입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더 확산을, 넓혀 가야 되는, 연관 산업으로서 더 넓혀 가야 된다, 이게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 발의된 이유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임오경 위원 그런데 우리가 우리 것을 더 발굴하고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우리 것을 더 알리고 그리고 대한민국 관광 유치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설명이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차별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기존 재외문화원 사업을 본다면 특정 분야 목적에 국한되는

콘진원·관광공사 등 사업과 좀 다르잖아요, 여기 지금 요청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이게 차별화가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이 법안을,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을 제가 발의한 사람으로서 엄연히 다르게, 연관성 있게 더 확산을 해 가야 되는 건데 지금 그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설명을 정확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소위원장 박수현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 문제는 보류를 하는데 우선 앞의 48번의 내역사업 한류연관 산업 지원 이 문제는, 성과는 자카르타와 두바이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성과 설명은 그냥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는데, 김승수 위원님의 지적대로 이 문제……

한류 연관 산업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사업 설명이 부족해 보이지요, 사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감액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설명은 방에 하셨다 그러지만 이 문제 내일까지 이 사업 설명, 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는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K-존 문제와 관련해서 김승수 위원님 지적대로 11개소, 나라마다 특성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선정 기준도 좀 달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타당해 보이므로 이 부분에 집중해서 또 임오경 위원님 말씀 다 참고해서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하고 이것은 보류 심사 시 다시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진짜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 그랬다고 우리 한국에 대한 관심, 한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국관을 많이 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원이 지금 32개국에 37개소 있지요? 콘진원 해외 비즈니스센터가 또 25개국에 30개소 있지요. 관광공사 해외지사도 지금 21개국에 30개소 있지요. 작년에도 관련 공공시설을 해외에 많이 늘렸다가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이 어떤 성과나 효과나 활용 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코리아센터에다 이런 행사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겁니다. 필요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있는 시설에 좀 더 예산을 더 줘 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하거나 이렇게 하면 더 큰 효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별도의 코리아센터에다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나……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부족하니까 왜 지금 이것을 또 한다는 건지, 정말 일회성·낭비성 행사로 비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중간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용 곤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류 결정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충분히 예상이 됨에도 정부 측의 설명이 제가 봐도 납득을 한번에 할 수 있을 정도로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력 있게 차분하게 설명을 하셔서 보류 비율이 높지 않도록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전문위원 다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면 안 될까요?

○소위원장 박수현 의사진행발언, 예.

○민형배 위원 오늘 예결소위를 해 보니까 여기 수정 이유가 죽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낸 이유가 있고 정부 쪽의 여기에 대한 의견이 없어서 그것을 다 일일이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가능하다면 주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 미리 그런, 그러니까 다음번에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설명자료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시면 어떨까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우선 민형배 위원님께서 지금 속개된 회의에서 위원님 책상에 올려드린 정부 측의 의견이 수록된 이 자료를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하시다 느끼시는 것이지요?

하여튼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민형배 위원님. 지금 정부 측에서 갑자기 별도의 자료를 준비……

○민형배 위원 아니, 지금은 안 되는데 다음번에 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소위원장 박수현 그렇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오늘은 좀 부족하시더라도 정부 측에서 속개 전에 깔아 놓으신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보시고 정부 측은 좀 더 성의 있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68쪽입니다.

50번, 국제문화정책 지원.

내역사업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신규)는 한국 문화콘텐츠의 글로벌 수요 확대에 따라 청년 대상 맞춤형 국제 경험을 제공하여 국제역량 강화로 해외 현지에서 K-컬처 확산 주역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청년 해외인턴 보조금 명목의 재정 포퓰리즘 사업으로써 사업 목적, 대상, 성과지표가 모두 불명확하고 기존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한편 실질적 고용 및 경험 창출 효과가 전무한 점을 고려하여 70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69쪽입니다.

동 사업은 2026년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 중인 K-밸레스타들이 참여하는 전략적 문화외교 프로젝트로 K-밸레의 세계화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외교를 통한 국제 이미지 제고를 위해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51번, APEC 레거시 문화의전당 또는 경주 APEC 문화의전당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제문화외교 거점이자 지역균형발전의 상징 공간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

사 용역비로 14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68쪽 50번, 국제문화정책 지원, 글로벌 청년 인재 양성과 K-컬처의 지속적인 확산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안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69쪽 50번, 내역사업 K-밸류 세계화, 한불 수교 140주년의 사업 다양화를 위해 증액의 필요성이 있으나 수교 문화행사의 특성상 특정 문화행사의 확정은 상대국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장르를 특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69쪽 51번, APEC 문화의전당, APEC 기념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주 APEC 문화의전당 건립은 국고보조금 지원 제외 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 명칭과 내용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먼저 내역사업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신규) 사업에 관한 의견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진종오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진종오 위원** 말씀드린 게 지금 외교부랑 고용노동부에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계획, 성과 목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도 부족하고, 수석 전문위원님 말씀과 똑같아요. 그리고 청년 선정 기준도 모호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국제문화정책관 김현준** 국제문화정책관입니다.

타 부처와 중복성 여부 말씀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외교부는 KOICA 청년봉사단이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개도국 대상으로 무상원조고 문화에 한정하지 않고 교육·보건의료·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체부의 K-컬처 프런티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비ODA 사업이고 대상 국가가 선진국이나 개도국이 아닌 나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업 기간도 KOICA가 1년 이상이라면 저희는 3개월 이내로 기간이 다르고 분야도 문화 분야에 집중하고 있어서 국가 라든가 기간, 분야에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정 기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3개월 이상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현장의 수요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역문화재단이라든가 국제학교가 있는 대학 등에서 저희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00명 정도만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500명을 보내고 싶다고 했고 대학 중에도 지역에 국제학부가 있는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도 500명을, 저희가 100명만 할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500명을……

○**진종오 위원** 그런 얘기는 좀 빼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국제문화정책관 김현준** 예.

○**진종오 위원** 성과, 목표, 활동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국제문화정책관 김현준** 일단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율기획형과 일경험형인데요. 일경험형은 기존의 문화 쪽 해외 브랜치(branch)들, 문화원·콘진원·관광공사에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경험과 역량을 쌓는 프로그램이 되

겠고요. 3분의 2 이상의 비중을 갖고 있는 게 자율기획형입니다. 대학이나 지역문화재단과 연계를 해서 청년들이 문화와 관련된 소재를 활용해서 한국에서 출발할 때부터 기획을 해서 같이 팀을 짜서 공동으로 기획을 하고 현장에 가서 문화 프로그램을 소화하면서.....

○진종오 위원 이런 프로그램 틀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국제문화정책관 김현준 틀은 전시도 있고 공연도 있고 봉사활동도 있고 몇 가지 모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준비하고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국제문화정책관 김현준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진종오 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가..... 지금 이렇게 말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감액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KOICA에 대해서, KOICA에서는 그러면 문화에 관련해서는 아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 주시기로는 이 사업은 문화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KOICA에서는 문화에 대해서 일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국제문화정책관 김현준 KOICA도 문화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러면 중복인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국제문화정책관 김현준 그렇지만 설명드렸듯이 국가와 기간에서 차이가 납니다.

○진종오 위원 그러니까 중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타당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 보면 자율기획형하고 일경험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이게 하위 분류로 재단협업형 그리고 보니까 대학협업형 등 다섯 가지 세부 유형으로 또 갖추고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임오경 위원 사업 첫 해임에도 매우 구체적이고 짜임새 있게 이 사업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설계했습니다.

○임오경 위원 예, 설계를 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임오경 위원 저는 이게 잘 설계가 됐다고 보는데 지금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사업 계획을 보니까 재단협업형, 대학협업형, 태권도 봉사단 그리고 세종학당 문화인턴, 유관기관 일경험 등 다섯 가지로 또 이렇게 다 나누어졌더라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거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공유를 안 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가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보좌진들

에게.

○**임오경 위원** 그리고 지금 또 여기 안을 보게 되면……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게 단순 체험으로 해서…… 청년들이 해외에서 문화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스스로 기획해 실전 역량을 기르는 사업으로 단순 해외 파견 체험형 청년 보조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아닙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파견 체험형 사업이라면 저도 절대 찬성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단순 파견 체험형 청년 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들여다봤고.

또 하나는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전 국내 교육, 사후 성과 확산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글로벌 청년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단발성 체험 사업이 절대적으로 아니야, 이것 보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계속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이 설명이, 저는 오늘 듣고 있는데 설명이 되게 지금 미숙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만 봤을 때는 사업 준비의 만전을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을 해 주고 계시는데 시간이 좀 걸려도 되니까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그런데 짧게 짧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듣고 있으면서 이해가, 메모까지 해 가면서 듣고 있는데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설명을 구체적으로, 시간이 좀 걸려도 되니까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한 분씩만 더 말씀을 듣겠는데요.

정부 측은, 진종오 위원께서 주로 집중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복성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정부 측은 이것이 대상 국가가 다르다라는 것이고 또 문화사업의 중복성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 서로 차이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시고 진종오 위원님 말씀 한번 하시고 결정을 하든 보류하든 정리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잠깐만요. 이게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19세에서 39세까지 돼 있지요, 청년이. 이렇게 자율기획형이든 일경험형이든 2개월·5개월 할 수 있는 대상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원이 많다 그랬지요? 그런데 그 지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줘도 스스로의 경비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갈 수 있는…… 요즘 대학생들, 공항 가 보세요. 쏟아지지요, 외국 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자율기획형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알린다고요? 5명 짹을 지어 가지고 사물놀이, 한식, 뮤티…… 뭐를 어디 가서 어떻게 알린다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일경험형은 세종학당, 문화원, 관광공사에 배치를 한다는데 파견이 최대 5개월

이에요. 이 수요 받아 봤습니까?

그리고 요즘 해외문화원의 업무량이 굉장히 늘기 때문에 인력을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아서, 인턴이라도 지원을 받을 그런 목적인가요, 아니면 그쪽의 인력 수요와 관계없이 순수하게 그냥 이 친구들 스펙 쌓는 것을 우리 국비 가지고 도와주기 위해서인가요?

지금 일인당 지원비용이 일경험형은 5개월 동안 142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에요, 정부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개인으로 봤을 때는 웬만한 국가에 5개월을 본인 자부담이 이것보다 몇 배 더 많지 않으면 근무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도와줄 필요도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력으로는 해외에 나갈 시간적인,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그런 친구들은 절대 여기 업무를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반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교나 직장 있는 친구들은 갈 수가 없겠지요, 휴학을 하지 않는 한은. 기한도 자율기획형 2개월, 방학기간 중 갈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팀 단위 5명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진종오 위원이 얘기했듯이 성과 목표도 불분명하고 실질적으로 왜 뽑히는 사람들한테 국가에서 이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 그 청년들이 꼭 받을 필요성이 있느냐 거기에서 나는 설득력 있는 그게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이 건 역시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설명 준비를 다시 하셔서 보류하고 보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K-발레의 세계화 문제에 대해서 특정 문화, 국가와 협의를 해야 되고 또 특정 장르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유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런데 일부 수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뜻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이것을 발레라는 종목으로 한정하지 않고 순수예술 쪽으로 넓혀서 K-아트로 해서 하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5억 원 증액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억 원 증액안을 내셨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이게 복합문화시설 건립으로 가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이양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편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APEC 레거시 사업으로 해서 APEC의 정신을 계속 유지시키는 쪽으로 간다는 것으로 바꿔서 하면 수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김승수 위원님, 정부 측 의견 이해하시겠습니까?

○김승수 위원 사업명을 바꾸자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리고 내용도 조금.....

○김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정부안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좋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 지금 K-발레 사업명을 바꾸자고 말씀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발레로 종목을 한정하면……

○**임오경 위원** 아니, 발레대회고 발레선수의 세계화 추진하자고 하는데 제목을 바꿔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이게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발레로 한정해 가지고 이 사업을 따면, 프랑스에서 발레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트로 하면 프랑스랑 협의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임오경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업은 발레 중심으로 하고 제목만 바꾸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것도 가능하지요. 발레도 들어갈 수 있지요. 우리가 발레를 제안하고……

○**임오경 위원** 아니, 저는 제목을 바꾸면 모든 것을 바꾸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러니까 지금 순수예술 전체로 넓히는 겁니다. 무용, 전시……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발레 중심이 아닌, 제목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용 모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임오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위원님들 다른 의견 따로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토론한 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보고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종무실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몇 페이지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74쪽입니다.

하단을 보시면 한국 불교 명상 전통의 세계화를 위해 세계청소년 명상을 랫폼 구축 및 페스티벌, 증액 의견이 있는데요. 7억 원, 2억 2800만 원, 2억 원 의견이 있었습니다.

76쪽입니다.

가운데 하단에 보시면 정해박해 200주년 기념 성지순례 거점화 사업을 위해 10억 원 증액에 대해서 종무실이 의견을 바꾼 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정해박해 200주년 기념 성지순례 10억 원 증액, 처음에는 수용을 했었는데 수용 곤란으로 종무실이 의견을 바꾼 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수용 불가요?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수용 곤란으로……

○**소위원장 박수현** 지금 정해박해 200주년 기념 성지순례 거점화와 관련한 자료를 행정실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는 정부 의견이 수용으로 되어 있는데 수용 곤란으로 된 자료가 지금 배포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77쪽입니다.

53번, 전통종교문화유산 보존,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의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해서 22억 9500만 원 감액 의견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 시스템 구축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조정해서……

○**김승수 위원** 수석님, 52번 먼저 하고 53번 하도록 합시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예.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74쪽.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74쪽 52번, 종교문화활동 지원, 세계청소년 명상플랫폼 구축 및 페스티벌 사업을 위해 증액을 일부 수용합니다.

다음, 76쪽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수용으로 되어 있으나 수용 곤란입니다. 이게 저희가 알아보니까 순례길 조성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교문화 건립 사업으로 검토해야 되고 여기서는 수용이 곤란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74쪽에 일부 수용인데 증액 의견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부 수용한다는 뜻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박정하 위원님의 2억 원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정해박해 200주년 성지순례 거점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이 사업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처음 들어온 것과 달리 순례길 조성 사업이라서 종교문화활동 지원이 아닌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수용이 곤란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조계원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여기 증액 내셨는데?

그러니까 순례길 조성 사업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다른 사업에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종교문화 건립 사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다른 거지요, 정해박해 이것은 아니고? 종교문화 건립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6억 원 기지원했다는 것은 이 사업과는 무관한 거지요? 다른 사업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종교문화 건립 사업으로 검토해야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 김도형**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지자체 자부담 비율이라든지 지자체가 부담할 금액 관련된 사전행정 절차 그런 게 누락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수용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조계원 위원** 일단 이것 보류해 놓고 다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조계원 위원님께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셔서 보류 심사 때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75페이지에 보면, 이게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증액 요구한 건데 충북CBS 소년소녀합창단의 행사가 있어요. 특정 합창단의 특정 행사 참가와 다큐, 이것을 국비에서 지원할 만한 무슨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 김도형** 종무실장입니다.

다양한 종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최대한 수용하려다 보니 저희들이 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수용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신다면 저희도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다른 사업들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역적이고 특정적이라는 거지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소위원장 박수현** 이게 올해 처음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4회 한반도 평화와 통일 음악회에 여러 팀이 참여할 것 아닙니까? 14회 한반도 평화와 통일 희망 라이프치히 음악회 자체에, 이 행사가 국가적으로 의미가 있어서 여기에 지원한다 그러면 또 이해가 가는데 여러 개 참석하는 종목이나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특정 단체에다가 참가와 다큐 제작을 위해 증액시킨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다른 팀들은요? 그래서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진종오 위원** 잘 짚어주셨네요. 이것 너무 특정돼서 해 주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소위원장 박수현** 아마 한반도 평화와 통일 희망 음악회라고 하는 그런 가치에 중점을 두고 이것을 검토해 보신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아마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의 지적이 타당하신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도록 더 알아보시고 준비해서 보류 심사 때 다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박수현** 예.

○**임오경 위원** 이게 지금 14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14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 김도형** 예.

○**임오경 위원** 그러면 그전에 한 번도 지원을 해 준 적이 없나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 김도형**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우리가 지역이라고 그래서…… 지역행사 규모가 전국 단위로 참여를 하거나 이런 사업들에 지금까지 지원해 줬던 적이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 김도형** 그런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저희들이……

○**임오경 위원**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전국 단위라고 하면, 지금 여기 충북CBS라고는 적혀 있지만 지금 14회까지 와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 규모에 따라서 조금조금씩은 계속해서 지원을…… 일괄적으로 안 하지는 않았어요. 특정한 지역을 토대로 해서 문화행사를 저희가 그런 행사는 계속해서 해 줘 왔다. 예를 들어서 영화를 한다라고 하면 작은 규모의, 부천은 크지만 전주 다 해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계속해서 해 줬던 것처럼 어느 특정한 지역 지금 여기 하나를 이렇게 보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줬다는 것에서 또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여기를 해 주자 안 해 주자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 특성상의 이런 행사에 지원책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희는 일괄 다 삭감해야 됩니다. 이것 수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역 특성상 불교 사찰들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

면 모든 게 그냥 일괄적으로 공모사업으로 가고 문화행사 관련돼서 저희가 앞으로 지원도 못하게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실 때…… 지금도 대답을 들으면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승수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임 위원님. 제가 차라리 행사에 대한 지원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행사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행사에 참여하는 특정 1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니까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딱 보면 충북CBS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해야 될 프로그램을 국비를 일부 받아 가지고 자기들 자체 소년소녀합창단이 여기 참가한 과정을 다큐로 제작해서 방송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수현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아니, 야당 지사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해 주고 싶어서 부른 건데……

○김승수 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소위원장 박수현 잠시만요, 제가 정리할게요.

충북CBS라고 하는 특정 지역, 특정 언론이 거명된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 명칭에 담겨 있는 가치도 충분히 지역적이 아니라 전국적인 것이다라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드 다큐 제작을 위해서 하는데, 두 분의 의견에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을 못 하고 있으시므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왜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가에 대해 그런 가치적 측면에서, 이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과 특정 언론의 제약성을 뛰어넘는 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잘 준비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류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리고 77페이지 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상향하느냐 하향하느냐의 문제 같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감액은 수용 곤란, 증액은 수용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김재원 위원님,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재원 위원 예,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이게 예산이 꽤 많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승려가 건설업체를 실소유하면서 조성한 비자금으로 사찰 관련 공사를 따냈어요. 그러면서 그 해당 사찰의 주지한테는 또 1억 원을 뒤로 따로 줍니다. 이런 것 어떻게 막으실 겁니까? 그냥 무턱대고 줘요? 제가 누구보다 불교를 아끼고 신자인 것도 다 아시잖아요. 쟁여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앞으로 어떻게 방지하실 겁니까?

지금 경찰 수사 중이에요. 압수수색이 해당 사찰하고 건설업체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 김도형 위원님,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실체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관련 후속 조치는 아주 강하고 엄하게 법의 절차에 따라서 충실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아니, 항상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면 그러한 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일단 내려놓고 그다음에 수사 결과를 보자는 게 말이 안 되고. 수사가 경찰에서 압수수색 까지 들어갔었을 때는 이미 내사가 끝난 상태라고 보는 건데, 피의자로 특정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보는 건데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자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나이브하게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사찰에서 수리·복원 사업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완전히 근절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성상 이런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1개 사례 때문에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전체가 다 그렇게 오염되어 있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위원님.

전통사찰이 지금 또 굉장히 방재가 어렵고 그 안에 중요한 유산들이 많은데 방재시스템은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였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보실까요?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는 특별한 케이스에 관한 문제이고 또 이런 국고 지원이 들어갔을 때는 그런 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체계의 축은 당연히 김재원 위원님 지적대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대로 수용하셔서 대책을 잘 세워서 보고해 주시고요.

다만 이 문제는 자부담 비율을 올리느냐 낮추느냐 하는 전체적인 제도개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재원 위원님의 지적과 또 별도의 문제로 설명을 집중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 김도형 현재 어떤 특정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굉장히 교구의 중심이 되는 사찰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사찰 이용이 꽤 늘어나면서 전기 수요가 굉장히 늘게 되고 그 전기료가 연 3억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찰이 수행하는 공적인 기능을 감안할 때 문화유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찰에 정부에서 어느 정도 전기료를.....

○김승수 위원 지금 전기료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위에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박수현 전체적으로 이 분야에 관련된 보조비율 이게 지금 변화가 있지요? 차관님, 어떻습니까? 대체로 국가등록문화유산 보수정비는 국비 70, 지방비 30, 자부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유산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수평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이 현재 특별한 근거도 없이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비율로 시행 중에 있는데 이것이 2021년 이후에 매년 국회를 통해서 사업비 비율이 조정되고 있고 2023년부터는 국비 45, 지방비 45, 자부담 10%로 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이, 크게 흐름이 변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재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대책을 잘 세우시되 이 국고보조 비율의 조정 문제는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자부담 비율이 20%에서 10%로 낮춰지는 중에 있으므로 이 문제는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승수 위원 예, 저도 자부담 비율을 10%로 하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에 앞서 이렇게 자부담 비율 10%를 부담 안 하거나 사업 수행 과정에서 부정이 있을 때 폐널티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러면 전통사찰 보존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지원을 못 받게 되고요. 그것을 저희가 유산청하고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면 김재원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 수행 과정에서 이렇게 부정·비리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 사업도 있으니까 맞춰 가지고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국가예산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그런 폐널티를 확실하게 해서 하기 바랍니다. 제도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증액 관련해서는 정부 의견에 동의하고요.

지금 김재원 위원 또 김승수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보존 사업 지원에 있어서 정부에서 폐널티 기간이 있나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 김도형 폐널티는 저희들이 보통 한 2년, 3년 정도…… 명문화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명문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래서 재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3년이면 3년 동안은 지원할 수 없도록. 하지만 부정·비리가 사안이 크다라고 생각하면 5년도…… 1차·2차·3차로 급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런 기록이 안 남아 있으면 사찰에서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도 그 내용을 모르고 계속해서 증액을 해 주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본 건은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22억 9500만 원의 증액안을 정부가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김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을, 임오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문제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위원님께 자료로 정확하게 제출하시는 것을 조건으로 이것은 정리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임오경 위원 전체에게, 김재원 위원님에게만 자료제출하는 게 아니라 ‘전체에게’가 포함돼요. 앞으로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라는 의미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예, 대체로 제가 드린 말씀이 이 자료는 전체 위원님에게 드리라는 뜻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회의중지)

(20시3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수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내일까지의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1차관 소관과 국가유산청 소관까지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내일은 2차관 소관과 보류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회의를 지금까지도 신속하게 잘해 주셨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속도를 내기 위해서……

김승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실 내용 있는데 하세요.

○김승수 위원 총액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전통문화유산 관련된 사업들 이런 것들은 지역에서 올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기준이라든지 또 관련 규정에 안 맞는 그런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 불가, 수용 이것을 문체부에서, 정부 측에서 확실하게 기준을 제시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결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회의 진행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 기준을 말씀드려 볼까요?

○소위원장 박수현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전통사찰을 포함한 종무실 사업 중에서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지방재정 투용자 심사를 안 받고 신청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사전 절차가 안 됐기 때문에 아예 안 되고요.

그다음에 1년 받은 전통사찰 지원금은 1년 후에 되고 2년 받은 것은 2년 후에 됩니다. 그런데 1년이 도과하기 전에, 2년 도과하기 전에 신청한 것은 원천적으로 안 됩니다.

그다음에 지방 이양 사업인데 신청했을 경우에는 국고 편성이 좀 어렵습니다.

전통사찰 지원금 한도가 2억인데 2억을 넘는 전통사찰 지원금의 경우에는 2억까지만 됩니다.

이 네 가지만 적용해도 종무실 사업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다 털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승수 위원님의 의견과 정부 측의 설명대로 지방재정 투용자 심사를 받지 않은 것, 지원 후 도과 기준에 미달하는 것 그리고 지방 이양 사업에 해당하는 것 그리고 한도 제한에 해당하는 것은 정부 측에서 설명을 할 때 아예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통과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지금 78페이지부터인데요.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하나만……

○**소위원장 박수현** 예, 말씀하십시오.

○**임오경 위원** 차관님, 현재 언론진홍재단의 경우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법인회계 내역에 대해서 국회는 심사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언론진홍재단의 경우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법인회계 내역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자체적으로……

○**임오경 위원** 국회는 심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미디어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예, 위원님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래서 문체부에게 승인받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래서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듯이 이사들은 업무추진비를 흥청망청 사용을 했고 단체 지원 사업비로는 극우단체들에 돈 지원하고 멀쩡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에서 매체 신뢰도 부분을 누락해 발간하고, 언론진홍재단을 사실상 영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김효재 이사장은.

그런데 재단이 운영되는 법인회계 내역에 대해서 법인회계가 확정될 때까지 그 내역을 알 수가 없고 결산 내역도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우선 문체부가 언론진홍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법인회계 예산안 내역을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26년 한국언론진홍재단 법인회계 내역에 대해서 국회가 의견을 내면 그것들을 존중해서 문체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방향으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료제출은 제가 지금 요청한 것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도 오늘 법인회계 초안에 대해서 재단으로부터 받은 것을 들었는데요. 원래 12월 말에 법인회계가 확정되는 절차인데 저희들이 실무…… 저도 못 본 수준의 초안이거든요.

○**임오경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저희가 과정 속에서 의원실과 추가로 협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임오경 위원** 일단 초안 받은 것에서 삭제시킬 것은 삭제시키시고 웬만하면 저한테 전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러면 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예.

○**소위원장 박수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78쪽입니다.

보문종 보문사 19억 1800만 원, 봉은사 10억 원, 홍국사·은적암·한산사·용문사 지방상 수도 소화전 설치 8억 원, 상주 신흥사 분청대장경 조성 7억 원, 직지사 천불선원 일대 5억 원, 수덕사 경내 재해복구비 5억 원.

80쪽입니다.

원효사 5억 원, 언해불전 21세기 우리말 역해와 전산화 사업 4억 5000만 원, 울산 해남

사 4억 2400만 원, 경기도 지정 전통사찰 대법사 석축 4억 원, 대전 고산사 4억 원.  
81쪽입니다.

천안 만일사 2억 원.

83쪽입니다.

울주 석남사 2억 원, 대구 동화사 2억 원, 서울 노원구 도안사 2억 원, 남한산성 장경  
사 2억 원, 제천 월명사 2억 원.

84쪽입니다.

동작구 호국지장사 2억 원, 양산 법천사 2억 원 또는 1억 1200만 원, 양산 통도사 2억  
원, 담양 용추사 1억 6000만 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78쪽부터 84쪽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기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예,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78쪽, 보문종 보문사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것, 해당  
사찰은 연속 지원 제한이 돼서 수용이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봉은사 보수정비 사업, 79쪽입니다. 이 증액은 일부 수용합니다. 국비 지원  
한도인 2억까지만 일부 수용합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상주 신흥사 분청대장경 조성 사업, 이것은 유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사업 추진  
반대 입장으로 반영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9쪽, 직지사 천불선원입니다. 이 일대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 증액을 일부 수  
용합니다.

다음, 80쪽입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일부 수용이 2억이라는 거예요, 직지사?

○**정연숙 위원** 일부 수용 액수요.

○**소위원장 박수현** 일부 수용이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2억 원 한도로.

○**진종오 위원** 아까 2억 한도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다음에 80쪽입니다.

예산지역 피해로 인한 수덕사 경내 재해복구비인데 이 재해복구 사업은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에서 관계 기관 현장조사를 통해서 결정될 사안이므로 상임위안 수용이 곤란합  
니다.

그다음에 80쪽, 원효사 전각 지붕, 해당 사찰은 연속 지원 제한에 해당되어 수용이 곤  
란합니다.

다음 80쪽, 울산광역시 해남사 건물 노후 보수, 이것은 건물 보수를 위해 증액을 일부  
수용합니다. 2억 한도 내에서 수용합니다.

다음 81쪽, 경기도 지정 전통사찰 대법사 석축, 이것은 연속 지원 제한에 해당되어서  
수용이 곤란합니다.

그다음 82쪽, 천안 만일사 일주문.....

○소위원장 박수현 그 전에 대전 고산사도 2억 한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아, 죄송합니다.

대전 고산사 노후화 정비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증액을 2억 한도 내에서 수용합니다.

다음 82쪽, 천안 만일사 일주문, 이것은 신설이라서 전통사찰 보수정비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용이 곤란합니다.

다음 83쪽, 울주군 석남사 명상관 신축 공사, 이것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용이 곤란합니다.

다음 83쪽, 대구 동화사 동화문 보수사업, 이것은 보수 대상 건축물이 미등기, 건축물 대장 미등재로 수용이 곤란합니다.

다음 84쪽, 제천시 월명사, 이 사찰은 26년 정부안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서 수용이 곤란합니다.

다음, 동작구 호국지장사 요사채, 이것은 보수대상 건축물이 미등기 토지 해당 사찰 미소유로 수용이 곤란합니다.

다음 84쪽, 양산시 전통사찰 법천사, 우화당 증축을 위해서 증액을 일부 수용합니다.

다음, 양산시 통도사.....

○소위원장 박수현 아니, 잠깐만요.

84페이지에 동작구 호국지장사부터 나와 있는데요? 수용 곤란으로 되어 있는 것,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84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이것은 미등기라서 수용이 곤란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동작구 호국지장사가 미등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소위원장 박수현 그다음에는 일부 수용으로 되어 있는 양산 법천사.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양산 법천사, 이것은 우화당 증축을 위해서 증액을 일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 김도형 종무실장입니다.

기준상 1.5배 이내로 하게 되어 있어서 1억 1200만 원만 저희들이 수용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예, 1억 1200.

양산 통도사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양산 통도사 국제템플스테이관, 이것은 전통사찰 보수 정비 대상이 아니므로 수용이 곤란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다음에 담양 용추사.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담양 용추사 요사채, 이것은 보수대상 건축물이 미등 기, 건축물대장 미등재이므로 수용이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정부 측에서 제시했던 그리고 김승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던 그 기준에 의 해서 이렇게 정부 측 의견이 나왔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이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85쪽입니다.

54번, 종교문화시설 건립.

내리교회 30억 원, 성북동 길상사 26억 4000만 원, 담양 보광사 20억 원.

86쪽입니다.

충청남도 내 종교문화의 길 조성 17억 1000만 원, 제주 성내교회 16억 원, 보령 치유순례길 15억 원.

87쪽입니다.

남양주 천마산 불교문화수련원 14억 7000만 원, 당진 솔뫼성지 거점안내센터 10억 6000만 원, 포천 홍룡사 철불문화전시관 10억 5000만 원.

88쪽입니다.

인천 용궁사 9억 5000만 원, 청주 서운동 9억 원, 서울 강북구 도선사 8억 6700만 원.

89쪽입니다.

나주 기독교 역사문화관 6억 원, 공주 마곡사 5억 원.

90쪽입니다.

조계종 중앙 선명상센터 3억 원, 자리산 백련사 선명상체험관 건립 3억 원, 장흥 보림사 관광자원 구축 사업 타당성 검토 3억 원, 구례 화엄사 건립을 위한 증액 3억 원과 9000만 원이 있습니다.

91쪽입니다.

간재선비문화수련원 2억 3000만 원, K-종교문화 성지체험관 2억 원, 예산 여사울성지 1억 5000만 원.

92쪽입니다.

석종사 1억 700만 원, 성지혜윰촌 6600만 원 증액.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85쪽부터 92쪽까지 54번, 종교문화시설 건립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인천 내리교회 역사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미이행해서 수용이 곤란합니다.

다음 85쪽, 성북동 길상사 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은 역시 지방재정 투자 심사 등의 사전 행정절차를 미이행하여 수용이 곤란합니다.

다음 85쪽, 담양 보광사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 심사 등의 사전 행정절차를 미이행하여 수용이 곤란합니다.

다음 86쪽, 종교문화의 길 조성·정비 사업은 종교문화시설 건립 지원 사업 대상이 아니어서 수용이 곤란합니다.

다음 86쪽, 제주 성내교회 역사교육관 건립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 심사 등의 사전 행정절차를 미이행하여 수용이 곤란합니다.

다음 86쪽, 보령 치유순례길 조성 사업은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이어서 반영이 곤란합니다.

다음 87쪽, 남양주 천마산 불교문화수련원 건립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 심사 등의 사전 행정절차를 미이행하여 수용이 곤란합니다.

다음 87쪽, 당진 솔뫼성지 거점안내센터 조성사업은 지방재정 투자 심사 등의 사전 행정절차를 미이행하여 수용이 곤란합니다.

다음 87쪽, 포천 홍룡사 철불문화전시관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 심사 등의 사전 행정절차를 미이행하여 수용이 곤란합니다.

다음 88쪽, 인천 용궁사 전통문화촌 조성 사업은 지방비 확보 등의 사전협의가 되지 않아서 수용이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쪽, 서울 강북구 도선사 전통문화교육관 건립사업은 지방재정 투자 심사 등의 사전 행정절차를 미이행하여 수용이 곤란합니다.

다음 89쪽, 나주 기독교 역사문화관 건립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 심사 등의 사전 행정절차를 미이행하여 수용이 곤란합니다.

다음 89쪽, 공주 마곡사 궁중 및 전통사찰음식 전승관 건립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 심사 등의 사전 행정절차를 미이행하여 수용이 곤란합니다.

다음 90쪽, 조계종 중앙 선명상센터 건립은 지방재정 투자 심사 등의 사전 행정절차를 미이행하여 수용이 곤란합니다.

다음 90쪽, 지리산 백련사 선명상체험관 건립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 심사 등의 사전 행정절차를 미이행하여 수용이 곤란합니다.

다음 90쪽, 장흥 보림사 관광자원 구축 사업은 사찰 관광자원 구축 사업으로서 종교문화시설 건립 취지에 안 맞고 지자체에 이양된 사업이라서 수용이 곤란합니다.

다음 90쪽, 구례 화엄사 구충암 전통문화체험시설 건립 사업은 사찰 측에서 요청한 상임위 증액안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9000만 원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91쪽, 간재선비문화수련원 조성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미이행하여 수용이 곤란합니다.

다음 91쪽, K-종교문화 성지체험관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 심사 등의 사전 행정절차를 미이행하여 수용이 곤란합니다.

다음 91쪽, 예산 여사율성지 정비 사업은 문체부 종무실 보조사업 운영지침에 따라서 순수 종교시설, 성당 정비는 지원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쪽, 석종사 불교문화체험센터 건립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 심사 등의 사전 행정절차를 미이행하여 수용이 곤란합니다.

성지혜움촌 완주 종교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 심사 등의 사전 행정절차를 미이행하여 수용이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위원님들 말씀 듣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가장 많은 이유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미비했

다 이건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대상, 기준, 이런 것이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액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종무실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 김도형 주로 20억 이상 사업, 20억부터 60억까지는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요. 60억에서 200억까지는 광역에서 하고요. 200억 이상은 중앙에서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도 간에 연계가 되는 그런 것에 대한 세부기준이 따로 지방재정법에 또는 그 하위규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이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지금 정부 측이 설명한 내용이 틀림이 없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지자체로 이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요. 또 수시로 지자체 공무원들을 불러서 설명, 교육도시키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하여튼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너무 건이 많기 때문에—이것이 정확하게 적용이 돼서 정확한 분석이 된 보고라고 믿으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 측에서 정확하게 적용해서 설명을 했다고 하니 그를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도에서 지원을 안 하고 광역에서 지원을 안 하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것 아닐까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 김도형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예 지방비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전 지자체에 공지를 했습니다, 지원대상에서 배제를 하겠다고. 지방비를 안 붙여도 배제를 하겠다고.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차등도 있고 차별이 있기 때문에 전혀 지원을 못 받는 사찰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20억~60억, 60억~200억, 200억 이상 중앙, 딱 이렇게 정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시도 지자체 사업도 이 절차를 안밟으면 중앙에서는 전혀 도와줄 수 없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나요?

아니, 지금 시스템이 너무나 잘되어 있어서 묻는 거예요. 이렇게 잘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 5년간 저는 계속 이렇게 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지금 들으니까 한 번에 다 이해가 와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이것을 지키지 않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 김도형 지키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지는 제가 잘……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 김재춘 종무담당관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결산 때 저희 종교문화시설 사업의 실집행률이 36%였습니다. 그래서 국회뿐만 아니라 기재부, 여러 군데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기준을 명확히 하자고 해서 지금 집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지방에서부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가 없으면 못 하는 사업이

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와 처음에 합을 맞춘 다음에 신청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실제로 집행부진 이유 중의 하나가 집행돼도 포기한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경우 대부분이 지자체의 자부담 그 문제도 있습니다. 사찰 자부담이 안 돼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전통사찰 보수비는 1년에 5억이 총액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 50억~70억이 듭니다. 그런데 사찰 자부담이 10%기 때문에 한 5억에서 7억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저희가 사전에 철저히, 확실히 해야 집행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잠깐만요.

담당관님, 조금 전에 36%라고 그랬습니까? 36%?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 김재춘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 해에 실제로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집행률이 36%밖에 안 된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 김재춘 실집행률이……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실집행률. 하여튼 집행률이 36%밖에 안 된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 김재춘 예, 작년에 그랬습니다.

○민형배 위원 재작년에는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 김재춘 재작년에도 한 50% 정도로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기억되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결산하면서 지적을 하도 받아서 저희 직원들과 제가 노력을 해서 올해는 한 6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대부분 사찰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통사찰 보수비도 그런데 산지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 적용을 받습니다.

○민형배 위원 실집행률이 그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첫째, 여러 가지 법 적용을 받아서 실제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지금 말씀하시려는 게 그거고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 김재춘 집행하는 게 없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민형배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 김재춘 굉장히 늦어지는 이유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산지에 있고 대부분이 전통사찰이다 보니까 문화재가 있는 곳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형상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민형배 위원 문화재 때문에 또 그렇고.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 김재춘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또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 김재춘 그리고 산지에 있다 보니까 여러 법의 적용을 받게 되다 보니까 허가 절차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또 날씨 문제도 있습니다. 산지에 있다 보니까 겨울철, 여름철 공사를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이것은 무슨 방법을 찾아야겠는데요. 너무 심각한데요. 어떤 사업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집행률이 50% 미만이다 이것은…… 해마다 이게 반복돼 왔단 말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 김재춘 실집행률이 그렇다는 거고요. 올해 60% 예상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절차를 더욱더……

○민형배 위원 아니, 만약에 그 정도 집행률이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사업비를 책정해서 문화부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과정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 김재춘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하면 당연히 지적을 받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 김재춘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회에서 증액에 의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집행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뭔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지 우리가 이것 심사하고 앉아 있는 것이 지금 좀 이상한 상황이 돼 버렸는데요.

○소위원장 박수현 그래서 문체위를 오래하신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이나 김승수 위원님의 경험을 제가 한번 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저도 상식적인 의문이 드는 게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수용이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 기초 시군구나 광역이나 이런 기준들을 다 전파해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다 그렇게 설명도 하던데,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행정절차가 미이행됐는데도 국회 과정에서 증액해 달라고 이렇게 많은 신청이 들어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김승수 위원님, 이게 작년에도 이랬습니까?

○김승수 위원 해마다 반복돼서 작년에 국가유산청도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갔거든요. 이 부분을 더 제도개선을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느냐 하면 이게 요구 주체가 대체로 보면 종교시설, 사찰이면 사찰, 사찰이 소재한 시군구가 있을 테고 시도가 있고 그런데 이게 시군구와 시도를 거쳐 가지고 협의하에 신청이 돼야 되는데 그런 협의 과정 없이 의원들을 통해 가지고 신청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보니까 일단은 구나 시도에서 지방비 매칭 자체를 동의 안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당연히 지방비 매칭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안 거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시일이 소요돼 가지고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돼서 시설이 설치됐다 하더라도 굉장히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큰 사찰들이 선명상센터하고 또 성보박물관 같은 것을 거의 유행처럼 신청해 오고 있고 건설이 되고 있고 건립된 곳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점검되는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찰 같은 경우에도 옆에서 하니까 우리도 했는데 막상 건설하고 나니까 운영비나 시설관리비조차 오히려 부담이 돼 버리는 그런 사례도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차제에 기존에 건설된 선명상센터, 성보박물관 이런 것들의 운영 실태를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특히 선명상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주요 사찰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곳과 신규로 신청되는 곳과 이런 것들을 지역적으로라든지 실제 수요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게 오더라도 문체부 차원에서 정리…… 뭐라 그럴까, 우선순위를 잡아 줘야지 기존의 사전 행정절차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나중에 사찰에서도 보면 괜히 옆에서 하니까 했다가 오히려 부담이 되는 그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고 보거든요.

하여튼 전체적인 점검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올 경우에 국비 지원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기준을 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 저 궁금한 거요. 작년이었지요, 고운사 올해였나요? 올해지요, 고운사 화재 사건?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 김도형 예.

○임오경 위원 그래서 저희가 추경으로, 재난·화재 방재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경에서 민생지원금을 올리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통과되기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 김도형 예.

○임오경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방재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지금 전통사찰이 한 600~700개 되잖아요. 그런가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 김도형 989개 정도……

○임오경 위원 지금 종무실에서 담당하는 게 89개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 김도형 989개 정도 됩니다.

○임오경 위원 900개가 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 김도형 예.

○임오경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전국에 있는 사찰들은 이런 사전 행정절차를 뺏지 않으면 방재시스템에 아예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 김도형 방재시스템 같은 경우는……

○임오경 위원 화재나 재난 방재,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 같은 것을 저희가 일단 고지 대에는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추경도 했고 예산에도 방재시스템 이런 것 관련해서도 올라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도나 광역이 지금 이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아예 설치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 김도형 아니요, 방재시스템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어서 투용자 십사나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는……

○임오경 위원 그러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백몇 개……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 김도형 예, 매칭만 되면 지자체 지방비와……

○임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칭을 하고 싶은데 그 매칭 협의가 안 됐을 경우 그러면 아예 설치를 못 하는 거냐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 김도형 아니요,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부담으로만 가지고도.

○임오경 위원 아니요,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협의가 안 됐을 경우 지자체에서, 광역에서 도움을 못 받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설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 김재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같은 경우는…… 사실 방재시스템은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신청하라고 지자체에……

○임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자체에다 요청하는데 지자체에서 안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찰들이 이렇게 중앙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 김재춘 방재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추경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자체에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사찰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올라오거든요. 자체에서 신청을 한다는 것은 자체에서도 추경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집행이 다 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토론을 해 보는 이유는 지방재정 투용자 심사라고 하는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많은 양이 국회로 올라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심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김승수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임오경 위원님도 제도개선을 하되 재난·재해 같은 것들은 꼭 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사찰이나 또 자체나 이런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직 확실하게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의 문제를 정확하게, 989개 사찰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체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많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정부 측의 설명만 믿고 이대로 결정하기에는 뭔가 불안하기도 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그 기준에 의한 정부 측의 설명을 믿고 지금 설명한 대로 이 부분은 결정하고자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도의 문제를 충실히 전파하고 설명하고 그래서 내년부터 이렇게 많은 양이 올라오지 않도록, 기대를 갖지 않도록 잘해야 된다. 그래야 자기들도 알맞은 계획을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임오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로 거기에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이것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그 전에 한 가지만……

○소위원장 박수현 예.

○김승수 위원 91페이지 보면 예산 여사울성지의 성당 같은 경우에는 순수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보수·정비 쪽인데? 여사울성지의 성당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 김도형 예, 성당 같은 경우에는—성당·사찰·교회 다 포함입니다만—문화재로 지정이 된, 등록이 된 경우는 할 수 있는데……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수비용이 일부 지원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교회나 이번에 우리가 국감 때 방문했던 내리교회라든지 성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라 하더라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보수를 한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화재로서의 형상이 훼손돼 가지고 문화재로 지정도 되지 못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찰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찰이 아닌 다른 종교시설 중에 상당히 보존가치가 있는 것에 개보수 지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인지 그것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종무실장에게 꼭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소위원장 박수현 예, 말씀하십시오.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고 충복이 되긴 하지만……

종무실장님, 앞으로 상임위 예결소위에서 심사할 때 이런 일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종교시설하고 지자체에다가 다 연락을 하셔서……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 김도형 예.

○민형배 위원 하셔서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사전에 다 문체부 종무실에서 소화해내시고.

그런데 꼭 해야 되는데, 할 수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하다가 놓친 한두 가지가 올라와야지 이렇게 한 백 가지가…… 그러니까 한번 필터링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제도……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 김도형 예,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노력이 좀 약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한다고 했는데 이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 김재춘 위원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 김재춘 지금 오해하시는 게 풀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저희가 연례적으로 계속해서 집행부진 때문에 사실 노력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노력을 해서, 물론 전체 국회 증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지원이 됐고요. 올해 본예산에도 세 군데가 됐고요. 그런데 3년 전으로 올라가면 27개가 지원됩니다. 27개가 지원됐고, 그때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민형배 위원 잠깐만요, 문체부에서 올라온 게 아닌데 국회에서 서면질의를 통해서 들어온 것 중의 27개가 됐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 김재춘 아니, 27개 중의 17개 정도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서면질의가 쓴아지게 만들지 마시라 이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 김재춘 그 이유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사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게……

○민형배 위원 제도 정비를 해서 서면질의가 쏟아지지 않게 걸러 주시라고요. 국회에서 이게 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임오경 위원 여기다 한말씀 더 보태면 종무실에서 저희 위원들한테 보내는 것도 있잖아요. 종무실에서 정확한 답을 해 드리면 되는데 그것을 미적미적 해 가지고 꼭 희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위원들한테 보내잖아요. 그러면 종무실하고 얘기됐다고 하면 저희 야 또 받아 주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종무실에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된다, 안 된다라고 해 주셔야지 왜 위원들한테 보냅니까?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한번 제도적으로 거른 다음에 이게 와야 된다고.

○임오경 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문체부에서 대책을 충실히 세워서 이런 일이 덜 반복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정부 측의 설명대로 결정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93쪽입니다.

콘텐츠정책국.

55번, 문화산업정책 개발 및 평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가 이미 존재하고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기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14억 원, 조사연구비 5억 원, 국제 전문가 포럼 개최 4억 원을 제외한 23억 8400만 원 감액.

94쪽입니다.

57번,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내역사업 콘텐츠 분야 인재양성 중 사이버 콘텐츠 아카데미, AI 특화 콘텐츠 아카데미는 유사 사업이 빈번하여 절반으로 삭감하기 위해 100억 9100만 원 감액.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설명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93쪽 55번, 문화산업정책 개발은 한국 대중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서 정부안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94쪽 57번,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은 AI 콘텐츠 전문 창·제작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안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설명하실 때 거기에 보면 감액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기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두 번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앞으로 말씀하실 때 감액 이유를 기준으로 설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93쪽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별개의 사업이고 콘텐츠산업 정책연구와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 94쪽의 사업은 콘텐츠 창·제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니까 콘텐츠에 대한 거라 AI 기술 중심의 타 기관 교육과 좀 차별점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승수 위원님께서 23억 8400만 원 감액안을 내신 것은 거기 써 있지 않습니까,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가 이미 존재하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설명은, 정부 측 안이 유지가 되기를 바란다면 이것이 존재하지만 이것과 유사한 기능이 아니다라는 것이 설명이 돼야 될 것이고요.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이 정부 측 주장만 하니까 김승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답을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5번에 대해서 수용 곤란하다는 정부 측 의견인데 김승수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승수 위원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저번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단 출범 과정의 문제성을 떠나서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있는데 유사한 기능을 가진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출범해서 이 차이점 또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은 하고 있지만 기존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총리가 위원장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연간 1년 예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출범하면서부터 엄청나게 큰 예산이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내실 있는 운영에 필요한 회의비라든지 또 사무국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구체적인 액수가 나와 줘야 되는데 너무 방만하게 편성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아니고 그중의 일부만 삭감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 문화산업정책 개발 및 평가 이것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사업이 아니고요 문화산업 전체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랑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는 정책 중심이고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산업의 확산 중심이고 또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는 총리 밑의 정부부처들이 주된 구성원들이고 민간 전문가는 6명밖에 없습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거의 대부분이 민간의 빅샷(big shot)들, 게임이면 게임, 케이팝이면 케이팝, 웹툰, 그 분야의 제일 대표적인 업체의 대표들이 들어와서 직접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정부 쪽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창구입니다. 그래서 2개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김승수 위원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명칭 자체도 산업 진흥이잖아요. 산업 진흥인데 정책적 기능만 한다는 것 자체가 위원회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고. 그리고 대중문화

교류위원회 자체가 실제 이런 역할을 하는…… 이것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차관님 설명하신 것을 보면 정부의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그냥 협회예요. 대중문화 교류 관련되는 협회의 일을 정부에서 관여해 가지고 좌지우지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아시다시피 정부의 콘텐츠산업 진흥은 주로 중소 규모나 독립영화들과 같이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쪽에서 많이 해 왔는데요. 이제는 현장에서 진짜 대기업들을 포함해서 한국의 대표적인 콘텐츠 기업들이 어떤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가 그것을 풀어 주고 그것을 풀어 줘서 생태계를 확실히 조성하자.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처럼 그런 기능을 할 것 같으면 진짜 협회의 기능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협단체하고 정부의 관련 부처하고 굳이 상설로 위원회를 만들고 인력과 사무국을 둬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년에 매달 한 번씩 만난다 하더라도 열두 번 회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해도 충분히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저도 문체부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는데 이런 것은 처음 봤습니다. 왜냐하면 협단체는 이렇게 커다란 기업들이 잘 안 나옵니다. 게임의 빅4가 한자리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위낙 콘텐츠산업 현황이 넷플릭스가 막 들어오고 플랫폼을 완전히 잠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영상이나 애니도 이런 데에 대응을 해야 되고 케이팝은 또 한창 잘나가니까 이 잘나가는 케이팝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출범한 게 대중문화교류위원회거든요.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명석을 깔아 주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그것을 굳이 이렇게 상설 자문위원회로 만들어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사무국을 둬 가지고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히려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운영하는 그런 방식을 따르면 훨씬 더 예산은 예산대로 절감하면서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아시지 않습니까. 콘텐츠진흥법에 의한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는 종리의 직속 위원회로 되어서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열기도 굉장히 급급하고 거기서 논의되는 것들은 기본계획이나 그때 중요한 산업별 기본계획 전략 정도나 나오지 현장에서 정말 뭐가 절실한지……

이번에 박진영 씨가 공동위원장으로 돼 가지고 시진핑 주석하고 만나면서 북경에서 한번 공연을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은 이 대중문화교류위원회라는 거가 출범하기 전에는 사실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지요. 그러니까 정부하고 대표적인 빅샷들이 같이 논의를 하자는 그런 장입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꼭 그것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를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고요.

앞서 말씀드린, 올해도 보면 여기에 예산 이용까지 해서 10억 가까운 예산을 들였는데 지출 내역을 보면 실제 회의 운영에 들어가는 돈보다는 엉뚱하게 행사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도 실제 그렇게 필요한 회의 또 필요한 그런 모임이 있으면 그런 쪽에 사용을 하면 되는 거지…… 내년도 예산안 한번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내년도 예산이,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내

년도 예산이 47억인데 그중에 28억이 운영비고, 운영비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회의도 하고 인건비 계속 유지되는 거고요. 거기에 네트워크 구축비·조사연구비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연구비가 5억이고 네트워크 구축비가 14억인데, 사실 이 예산은 필요 최소한도의 예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시겠지만 이것은 과의 사무관 하나가 갖고 있는 사업 예산보다도 못합니다. 이것은 정말 완전히 정책이나 위원들을 뒷받침하는 그 예산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구체화가 되지 않은 면은 있습니다. 그것은 출범을 하면서 정부 예산이 닫히고 나서 그다음에 이 예산을 짜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요. 구체화하면서, 위원님들 논의를 거치면서 이 예산들도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토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하나 있습니다.

23억 8400만 원을 감액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써 있는 것을 보면 ‘운영비 14억 원, 조사연구비 5억 원, 국제 전문가 포럼 개최 4억 원을 제외한 23억 8400만 원 감액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앞의 14억, 5억, 4억을 더하면 23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제외한 23억입니까, 아니면 이것 등 23억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최성희 김승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주신 55번의 문화산업정책 개발 및 평가의 제기 내용은 사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원래 이 문화산업정책 개발 평가 사업은 정책연구 그리고 공정·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한 사업 그리고 정보 포털 운영을 위한 정책사업을 위한 거라 말씀하신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관련된 예산이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것 알겠고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최성희 예.

○소위원장 박수현 그래서 제가 우선 묻는 것은 23억 8400만 원을 감액하신다는 의견을 내셨는데 그 앞에 운영비·조사연구비·포럼 개최비를 더하면 또 절묘하게 23억이에요. 그래서 이 23억 8400만 원 감액의 내용이 앞에 언급한 세 가지를 합한 이것을 삭감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이게 대중문화교류위를 정부안에 반영을 못 시켰기 때문에, 저 밑에 있지 않습니까, 56번. 이게 46억을 반영시키자는 거거든요. 이 내역에서 이 정도를 감액하자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알겠습니다. 이해는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부 측의 설명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와 관련이 없는 것이고 김승수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감액을 하시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는데……

○임오경 위원 위원님, 저희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소위원장 박수현 예.

○임오경 위원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K-관광 한국방문의해위원회를 구성한 적 있습니다. 정부는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임오경 위원**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회장을 선출해 놓고 사업은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예산은, 24년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70억이 넘는 예산을 반영시키고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정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데 어떤 통보를 했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적이 있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정훈** 예.

○**임오경 위원** 저희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할 때 적극 동참했습니다. 왜? 인바운드 관광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가인 이부진 위원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기대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170억이 넘는 예산을 반영시켜 주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구성이 되지 말아야 되는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또한 저는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대는 또 됩니다. 제가 2023년에 이부진 위원장이 선출돼서 임명됐을 때 기대했던 것처럼 또 기대는 됩니다. 이제 막 출범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예산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 자문위원들이 많이 들어가고,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민간 자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더 경청해서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K-관광 방문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된 것에 있어서 진짜 유감을 표명하고 이런 선례를 두 번 다시 남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관님께 다시 한번 저는 요청드려요.

이게 어렵게…… 지금 앞에 설명을 하신 것 들으면서 메모를 하다 보니까 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하고는, 범부처 협의기구이기 때문에 이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민간 자문을 듣는 기구라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정확하게 있다. 이것 원칙을 정확하게 지켜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액을 저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막 출범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또 많은 예산이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저는 이 조사연구 5억 원, 네트워크 구축 14억 원, 너무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가 너무나 적게 예산을 올렸어요.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전 여기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출범했을 때 예산을 비교해 봤는데 너무나 적게 올리신 거예요. 조사연구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올려야지요, 한류가 지속적인 사업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너무나 적게 올리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임오경 위원** 그래서 김승수 위원님 좋은 의견도 주셨는데 저는 감액 수용은 좀 불가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첫 시작에서 큰 예산을 올린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가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라는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투 트랙으로 기대를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기대를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고 진짜 1년 동안 한번 지켜보고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이것 바로 해지시켜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실수를 반복해 왔기 때문에.

○소위원장 박수현 잘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소위원장 박수현 예.

○민형배 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55번은 문화산업정책 개발 및 평가인데 지금 수정이유에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기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14억 원, 조사연구비 5억 원, 국제 전문가 포럼 4억 원을 제외한 23억 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숫자도 안 맞고…… 그러니까 36억에서 14억 원, 5억 원, 4억 원 빼면 23억이 안 나오는데 여기 있는 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대중문화교류위원회에 관한 것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이 밑의 것에 대한 감액을 하시고 싶었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뭐냐 이것은 36억 2400만 원의 내년 예산안을 문체부에서 지금 기재부 통해서 국회로 보내왔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23억 8400만 원을 감액하면 14억, 5억, 4억 해서 23억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남잖아요. 제가 이상한 얘기 하고 있나요?

○김승수 위원 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문화산업정책 개발 및 평가 여기에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없지요? 그런데 수정이유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그 아랫단에 해당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의도가.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지금 55번의 문화산업정책 개발 및 평가 이것은 정부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논의 대상이 안 되고 논의를 하려면, 지금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하려면 56번, 제가 요청한 46억 8400 중액에 관련된 이 부분을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포커스를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래서 제가 아까도 계속 질문을 한 게……

○민형배 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비목이 없는 관계로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기존 비목에 그나마 가까운 문화산업정책 개발 및 평가로 의원실에서 정리해서 갖고 오신 겁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됐잖아요. 36억 2400만 원하고 46억 8400만 원을 합산해서 거기서 지금 23억 8400만 원을 감액하자 그런 주장인 것인가요?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56번의 46억 8400만 원 중에서 23억 8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위에 문화산업정책 개발 및 평가 이 부분은 그대로 가고?

최성희 국장님, 어느 게 맞아요?

○소위원장 박수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자료를 읽어 보면서 이해가 안 가서 계속 질문을 했거든요. 질의의 요지는 민형배 위원님과 제가 똑같은 겁니다. 뭔가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일단 이견 때문에 보류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자료의 작성을 다시 하기 위해서 보류할 테니까 이 문제의 요지가 뭔지를 다시 정리해서 보류 심사 때 정확하게 다시 하십시오.

○**김승수 위원** 이 회의 서류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의원실에서 의견을 내게 되면 56번에 낼 수가 있는데 지금 56번은 정부안에 담겨 있는 게 아니고 위원들이 신규로 증액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 회의 서류가 나오기 전에는 이 예산이 들어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예산은 기준에 없던 예산이다, 그런데 신규로 저 같은 사람들이 서면질의를 한 거예요. 그것은 문체부하고 짜웅이 좀 있었겠지요? 문체부의 요청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문화산업정책 개발 및 평가 이것은 원래 지금 여기서 논란이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수현** 지금 다 정확히 이해하셨지요?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정확하게 보류 심사 때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내용대로 결정된 것으로 하고 수석전문위원 다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57번.

○**김재원 위원** 위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넘어가기 전에 거기 관련해서 한마디만 말씀을 더 드리자면 문화산업정책 개발 및 평가는 세부사업명으로 1231-300이라는 항목이 이미 존재를 하는데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신규이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어서 문화산업정책 개발 및 평가 항목으로 넣었다고 한다면 문화산업정책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원래의 사업은 그러면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를 궁금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작성해 달라는 뜻에 김재원 위원님의 질문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57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이 역시 감액 의견을 내셨는데 정부 측은 수용 곤란입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최성희** AI 콘텐츠 인재양성 사업이 타 부처가 하는 사업과 유사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다른 분야는 기술 기반으로 하는 사업들이고 저희는 AI 콘텐츠를 중심에 두고 하는 인력양성 사업이라 굉장히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너무 공급 중심으로 보는 것 아니냐, 현장의 수요를 보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짤 때 예비인력뿐만이 아니라 현업인력 그리고 전문현업인력, 예술 분야와 기술 분야 양쪽에서 전문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요구하는 산학협업 지원방식이나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려고 하고요. 핵심적인 AI 콘텐츠 전문인력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승수 위원** 국장님, 이 신규로 증액된 사업의 선발기준 그리고 일인당 얼마씩 예산이 지원되고 그 성과지표가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것으로는 컨소시엄이고 예비 미숙련현업인 900명은 컨소시엄을 9개 구성하도록 해서 컨소시엄당 5억 원씩 보조하도록 해 놨고요. 전문숙련현업인 100명은 32억 원 보조를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신기술융복합 100명은 콘진원에서 60억 원 보조하도록 했고 게임 전문가 100명은 콘진원에서 52억 원 보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성과지표는 이 사람들이 교육을 하고 나서 어떤 단계에 이를 정도까지 되어야 된다는데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최성희** 그것은 저희가 과정별로 성과목표를 별도로 잡아서 운영하면서 구체화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191억 예산 안에는 기존에 저희가 하던 신기술융복합 아카데미, VFX 기술이나 XR 기술 중심으로 했던 인력양성하는 과정들이랑 저희가 게임인재원 52억 원 지원하던 게 있는데요. 그것들까지 다 포함돼서 191억 원이라 반액 삭감 의견을 주시면 사실 기존에 하던 과정들도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점들도 같이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과거 예산심의라든지 이때도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분야도 그렇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특정인한테 일인당 지원액이 굉장히 커요, 액수가. 그런데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선정이 되는 것이냐, 특정인한테 너무 과도하게 혜택이 가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국가가 그렇게 많은 일인당 지원해 가지고 나온 성과 ‘우리가 이만큼 일인당 지원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이것을 한번 보여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이 안 된 상황에서 또 추가로 증액시키는 것 자체가……

AI 인력이 필요 없다고 왜 제가 말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선발해서 어떤 교육을 시켰을 때 개인보다는 그렇게 교육을 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 분야에 AI 인재풀이라든지 역량이 높아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콘텐츠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요. 그런 식으로 제도 설계가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선발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최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저희가 다 감안해서 사업 공모나 사업 설계들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최성희 국장님, 콘텐츠국장 맡은 지 얼마 안 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최성희**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00억이 아니라……

지금 여기 201억 정도 되잖아요. 201억이 아니라 2010억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 사회에 이 영역은 수요가 거의 무한대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최성희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수요가 이만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밖에 감당을 못 합니다. 사실은 이 정도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쪽 영역에 콘텐츠 인력양성하는 게 사실은 거의 전면적인, 과기부 쪽이나 문화부 쪽에서는 정말 피해 갈 수 없는 과제예요.

어제 아침에 제가 AI 기업들하고 과기부 쪽 분들하고 AI 포럼을 한 두어 시간 했어요. 거기서 보니까 딱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수요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해요, 지금 정부 예산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요가 이런 정도 있습니다. 제안이 이만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해도 우리가 최소한으로 한 겁니다’, 이 설명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수요가 엄청나게 많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최성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비 미숙련현업인 대상을 900명으로 잡아 놨는데 사실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들을 배우는 학교들이나 아니면 현업 콘텐츠 인재들이 AI 기술들을 신속하게 탑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중에 900명 정도만 뽑아 가지고 하겠다는 거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입니다.

○민형배 위원 제가 근래에 AI 기업들, 청년 창업자들을 죽 만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새로 사람들 만들려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새로 양성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기존에 하고 있는—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쪽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세요’ 해요. 그렇게 보면 이 예산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턱도 없어요. 오히려 이것은 늘려야 돼요. 제가 이것을 알았으면 대폭 늘리라고 했을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소위원장 박수현 민형배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거든요. 어떤 수요가 있고 어떻게 해서 어떤 성과가 날 거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턱도 없이 부족할 거예요, 아마.

○김재원 위원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박수현 예.

○김재원 위원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타를 녹음실에서 녹음해서 음반으로 낸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기타를 직접 쳐서 녹음했습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화가 되면서 기타 소리를 사운드카드로 받아 가지고 미디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녹음을 하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AI는 기타 소리를 생성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제작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도구로 활용하는 것들을 콘텐츠 창작자들에게 탑재하겠다는 것이고, 그러한 기술들을 보급하겠다는 것이 이 정책의 목표입니다.

콘텐츠국장님, 왜 이렇게 설명을 못 하세요? 그렇게 어렵게 수요랑 뭐 이렇게 해서 얘

기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최성희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보류가 많다라고 하는 걱정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심사는 처음 우리가 이 문제를 일회독을 하면서 서로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많은 의견을 듣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거의 전문가에 가까운 말씀들을 주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측은 일단 보류를 하더라도 이런 의견들을 감안하고 그에 대한 답을 담아서 보류 심사 때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만약에 설명이 안 되면 삭감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들을 정확하게 정리하세요. 그래서 내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 심사 때.

하여튼 보류 심사는 신속하게 진행할 거니까, 지금 토론시간을 충분히 드리는 이유는 내일 보류 심사에서 결정할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드리는 거고 위원님들의 전문가적 의견을 많이 들려 드리려고 하는 것인니까요. 그런 취지를 감안하셔서 내일 보류 심사 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최성희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설명 바랍니다.

58번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예, 95쪽입니다.

58번, K-콘텐츠 펀드출자.

미투자금이 문화계정 1조 1600억 원, 영화계정 700억 원에 달하고 민간투자액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감액 필요. 2026년도 예산 중 80%인 3720억 원 감액과 1650억 원 감액 그리고 원안 유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96쪽입니다.

59번, 영상콘텐츠산업 육성입니다.

제작편수 감소, 관객 급감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영화산업 지원을 위하여 국내 자본이 50% 이상 투자된 국산영화에 한해 영화관람료 지원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 110억 원 증액, 내역사업 만화산업 육성에 만화수장고 개편 30억 원과 만화구술채록 연구 1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 40억 원 증액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95쪽 58번, K-콘텐츠 펀드는 K-콘텐츠 경쟁력 공고화를 위해 상임위 증액안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액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액수는 300억 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300억 원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증액안 300억 원 K-콘텐츠……

○소위원장 박수현 아, 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다음 96쪽 59번,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임위 증액안 110억 원의 반영이 필요하나 적용 대상 변경이 필요합니다. 영화비디오법상 정의하는 한국영화를 대상으로 영화관람료 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국내자본이 50% 이상'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영화비디오법상 정의하는 한국영화를 대상으로' 이렇게 바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아카이빙 기능 강화를 위해 상임위 증액안 33.4억 원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진종오 위원 58번, K-콘텐츠 펀드 출자 관련해서요, 기재부에서도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용 불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이 펀드는 여태까지는 모태펀드라고 해서 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펀드였는데 이 펀드는 대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고 분야도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500억이 올라갔는데 그중에서 300억만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전체 펀드 규모를 4650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800억 정도만, 이런 정도로 해서 여태까지 투자를 못 했던 대기업 쪽에도 투자할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진종오 위원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수석전문위원님, 실적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펀드를 쌓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만 계속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보통 펀드를 한번 구성하면 4년 동안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4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매달 나가는 돈이 있는데 그게 한 2년 치 정도는 있어야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1~2년 새 계속 2년 정도의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 것이라서 여기서 미투자금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투자 운용을 위한 세이프 베퍼 그것이 딱 적당한 정도로 있다는 거지 미투자금이 과다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진종오 위원 그러니까 미투자분을 떠나서 이게 지금 추가로 더 증액하자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4650억이 대부분 문화계정, 영화계정 등등 해서 모태펀드인데 이 모태펀드는……

○진종오 위원 대기업까지 늘리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래서 대기업에도 줄 수 있는 전략펀드 500억이 지금 정부안에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800억 정도 하면……

왜냐하면 위원님, 넷플릭스가 1년에 한국에 쏟아붓는 돈이 900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플랫폼을 지키기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중소기업에만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대기업들한테도 줄 수 있는 돈을 넓혀 보자, 그래서 글로벌 IP도 좀 만들어 보자 그런 뜻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차관님, 이 문제가 정부는 지금 증액을 하자는 것이고요 진종오 위원님은 80%인 무려 3720억이나 감액을 하자는 것인데 의견 차이가 너무 커요. 이것을 지금 토론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종오 의원실에 사전에 설명 안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설명드렸을 겁니다. 안 드렸을 리가 없습니다. 이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실에 가서 설명을 했을 겁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이것은 의견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토론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진종오 위원님한테 설명하시고 이것은 일단……

○**진종오 위원** 김승수 위원님 말도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박수현** 알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말씀 듣고 임오경 위원님 말씀 듣고 이 토론 종결하고 보류할 겁니다.

○**김승수 위원** 차관님,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잖아요. 펀드와 관련돼서 최소한 문체부에 이 펀드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전문인력이 있어야 된다. 지금 채용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지금 과가 문화기술과가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과가 아니고 말 그대로 늘공이 아닌 전문가가 채용돼 있느냐 그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전문가 아직 채용 못 했습니다.

○**김승수 위원** 지금 이렇게 수천억을 돌리는데 관련 전문가가 문체부에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펀드를 운용하는 것은요……

○**김승수 위원** 아니, 그것은 따로 해서 운용사에 맡기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훤히 꿰고 있는, 시장 상황을 꿰고 있는 그런 전문가가 최소한 1명 정도는 본부에 있어야지요.

그리고 차관님 설명은 다 잘 알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이 펀드에 대해서는 거꾸로 민주당 위원들이 상당히 삭감 주장을 했었고 저는 방어를 했었는데, 왜냐? 전략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때 처음 도입이 됐었고 어쨌거나 문체부가 돈이 없는 상태에서 펀드 자체가 문화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펀드라이징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거라도 돌려야지 넷플릭스 이런 데도 대응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어렵게 이것은 최대한 살려두자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예결위 가서 삭감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특히 작년에 우리가 조성했던 정부출자금 중에서도 펀드 결성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또 기대보다 못 미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보다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단 말이지요. 실적 초과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적 지출을 위해 가지고는 정말 활용 가능한 그런 수준을 갖고서 해야 되겠다. 현재 각각의 펀드별로 일정 부분 감액은 불가피한 부분이 이쪽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이것은 정말 절실한……

○**소위원장 박수현** 임오경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작년에 이 예산에 있어서 집행 실적 저조로 인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한 200억 이상 삭감 제안을 했다가 마지막에 여야 합의하에 한 50억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참여하신 분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지금 이 자리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 김승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집행 저조로 인해서 저희 민주당이 이것은 과감하게 200억을 제안했지만 마지막에는 합의하에 한 50억 정도 삭감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25년 7월 기준 모태펀드 문화·영화계정 미투자금으로 8710억 원 수준이며 향후 2년 정도 투자 가능한 여력으로 정책펀드 투자 기간이 4년임을 감안하면 2년 정도의 투자 여력은 정상 수준이 되는 것……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2년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임오경 위원 지금 7월 기준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임오경 위원 그러면 투자 속도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투자 속도도 지금 굉장히 빠릅니다. 투자가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되면서 소진되는 속도가 25%, 50%, 75%, 100%라면 투자가 되는 속도는 그것보다 항상 조금씩 더 높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최근 3년간을 보게 되면 22~24년 결성된 모태펀드 자펀드는 투자 기간 경과 대비해서 높은 수준으로 투자되어서 시장에 효율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4년임을 감안하면 2년 정도의 투자 여력은 정상 수준 이상으로 본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정상보다 조금 빠릅니다.

○임오경 위원 더 빠르다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설명을 안 해주시니까……

○소위원장 박수현 잘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정리하기 전에 회의 진행의 큰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오늘 의미는 일회독을 하고 위원님들의 아주 전문가적 수준의 의견을 잘 듣고 정부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보류 심사를 하기 전에 제 생각은 위원장과 양당의 대표, 간사님 격인 한 분씩과 정부 측 이렇게 해서 심사 보류된 안들에 대한 대체적인 사전 조정을 일부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측은 원안 유지 이런 의견만 가져오지 마시고요. 내일 사전 조정 회의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타당한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감액은 어디까지 감액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견도 포함해서 가지고 나오셔서 서로 조정이 가능해서 실제 보류 심사할 때는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김승수 위원님과 임오경 위원님 이렇게 해서 양당의 간사 격으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그 의견 조율 결과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께 다 공정하게 투명하게 공개해서 알려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지금 간격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이요, 59번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예.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 다시 한번 요약·정리해 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이게 지금 ‘국내자본 50% 이상’ 이렇게 하면 바우처 나갈 때 소비자들이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비디오법상 한국영화’라고 하면 훨씬 쉽습니다. 그냥 한국영화를 대상으로 해서 영화관람료 지원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것 발언하셨고 그러면서 마지막 것은 수용 의견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있는 일부 수용에 대해서는 말씀의 근거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지금 만화산업 육성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수현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것은 콘텐츠국장이……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최성희 만화산업진흥원의 아카이빙 기능 강화를 위해서 상임위 증액안 주셨는데요. 일단은 만화산업 육성을 위한 가치보존 사업에 40억 원 증액을 주셨는데 내년에 바로 필요한 것은 수장고 확대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이랑 실시설계비 2억 원 그리고 구술채록 연구비 6.4억 원 이것 해서 8.4억 원 되고요. 뒤쪽에 조계원 위원님, 민형배 위원님이 같이 제안해 주신 비즈니스 행사 개최 및 해외 교류 25억 원 합하면 33.4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만 예산 지원이 필요한 거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순차적으로 진행할 거라 내년이나 내후년 예산에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이 문제는 이대로 정리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로 넘어가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십사자료 99쪽, 60번입니다.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내역사업 음악산업 육성 중 대중음악 체험시설 조성은 공공성이나 정책 타당성이 부족하여 전액인 80억 원 감액과 대중음악 장르를 대표하는 최초의 공공 전시·체험시설 조성 사업이므로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내역사업 음악산업 육성 중 대중음악 공연환경 개선은 공공성이나 정책 타당성이 부족하여 전액 40억 원 감액과 지원 대상을 2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기 위해 26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101쪽입니다.

3대 국경일을 기억하고 그 뜻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한 국민한마음 대축제 예산 신규 반영을 위해 10억 원 증액이 있었습니다.

102쪽입니다.

문화 사각지대인 인구감소지역의 소외된 지역민을 위한 전국방방곡곡 찾아가는 구석구

석 콘서트 예산 신규 반영을 위해 5억 원 증액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99쪽 60번,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이것은 대중음악 체험시설 조성을 위해 정부안 80억 원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99쪽, 대중음악 환경 개선은 신속한 대중음악 공연장의 확보를 위해 상임위 증액안 260억 원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101쪽, 국민한마음 대축제 이것은 대한가수협회가 현재 국고보조금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공모를 통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한 사업 시행으로 해서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전국방방곡곡 찾아가는 구석구석 콘서트 이것도 역시 상임위 증액안 5억 원 반영이 필요하지만 수행 예정 기관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서 공모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전에 정부 측, 김승수·진종오 위원님 감액 의견 내신 이유가 공공성이나 정책 타당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공히 지적하고 계신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하시라니까 설명이 없으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최성희** 콘텐츠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카카오라는 민간 업체가 하는 시설에 투자해 가지고 인테리어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조성 후보지로 생각하고 있는 서울아레나 부대시설은 카카오가 운영하는 아레나 시설이랑은 별개로 서울시 소유 시설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케이팝에 대한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한 체험·전시공간 이런 굉장히 공공적인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유사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 명예의전당 구축 사업과 유사한 것 아니냐고 말씀 주셨는데 대중문화예술 명예의전당은 K-컬처 전 장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는 공간이고요. 예술인들에 대한 그리고 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업적을 기리기 위한 전시 중심의 공간이고요. 대중음악 체험시설인 이 공간은 저희가 케이팝 자체를 효과적으로 보여 주고, 사실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오실 때 가장 관심 있는 이유가 케이팝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이유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케이팝을 제대로 보고 우리 대중음악의 트렌드나 체험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공간으로써 조성을 하고자 해서 굉장히 차별화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이에 대한 김승수 위원님과 진종오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진종오 위원** 먼저 말씀하시지요.

○**소위원장 박수현** 공공성과 정책 타당성 부족을 지적하셨는데요.

○**김승수 위원** 우려는 앞서 사실 종교시설 이야기할 때 사찰 같은 경우에는 근거법이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다른 종교시설은 지원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민간

시설에, 사택 시설에 지원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도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지요. 지금 특히 수도권은 공연장이 많다 하더라도 지방으로 갈수록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 어디냐? 이 돈들의 지원 대상.

그래서 앞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면 저는 반대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게 특정 민간 시설에 지원이 되면 굉장히 형평성 문제라든지, 기존의 정부 예산집행에 있어서 논리상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최성희** 서울시 소유 시설로 진행될 거라 그런 우려는 조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종오 위원** 서울시 시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궁금한 게 또 있는데 그러면 이것 나중에 수익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에 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최성희** 해당 사업의 수익금은 체험시설의 운영이나 콘텐츠 사용 확충에 사용될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투자 대비해서 수익이 날 거라 예상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최성희** 예, 지금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최성희**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잡아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러니까 투자하는 것은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 투자 대비해서 수익이 떨어질까 봐, 그것 우려해서 말씀드렸던 것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최성희** 예.

○**김승수 위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예회관이라든지 공연장 같은 경우에도 다 지방 이양이 돼 버려 가지고 지자체에서 굉장히 노후된 시설도 예산 부족으로 개보수를 못 하는 데가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에 대해서 이런 대중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에 지원이 될 수 있으면 굉장히 환영하는 거지요, 국비가 일부 지원될 수 있으면.

그런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노후시설이 아무런 국비 지원이 안 되면서 민간 시설에 지원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상당히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자금을 지원해서 대중음악 공연장 하려고 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고 뒤에 나올 겁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지금 음악산업 육성 중 대중음악 체험시설 조성 이것은 김승수·진종오 위원님께서 80억 원 감액 의견을 내셨으나 두 분 다 그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말씀하시고 다만 그 지원 대상이나 노후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도 형평성에 맞게 하라는 그런 조언의 말씀이 계셨으므로 이 문제는 김승수·진종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요청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충분하게 설명하시는 것으로 하고 정부의 원안 유지하는 의견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기현 위원 예, 동의합니다.

○김승수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에다 이렇게 이렇게 대상을 하겠다 그렇게 넣어 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예,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 밑의 내역사업 음악산업 육성 중 대중음악 공연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이유로 40억 원 감액을 말씀하셨고 설명은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답변도 비슷하실 것 같고. 다만 이기현·조계원·조은희 위원님의 지원 대상을 2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기 위한 2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수용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왜 2개소에서 15개소로 대폭 확대해야 되는지 설명을 우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저희 대중음악 공연장이 지금 케이팝 분위기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숫자 자체가. 그런데 지금 아레나를 짓는 것은 30년 이후에 새로 지을 수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상암동이나 잠실경기장 같은 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다목적시설이나 공공체육시설에다가 조명하고 음향을 지원해 줘서 그것을 공연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단기적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20억씩 해서 국비·지방비 20억·20억, 40억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전국에 15개 정도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15개로 했습니다.

○이기현 위원 한 가지 질문 있는데 15개소 특정이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특정은 안 됐고요. 지금 죽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았는데요. 여기다 특정 안 했습니다.

○이기현 위원 제가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계속 현안질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금액을 260억으로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올라와 있는 안 260억도 사실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체육시설들이 대부분 다 1년 내 가용 가동일 30일에서 50일 내외인 곳이 많고요 대부분 비어 있는데 공연장은 부족하고, 이런 모순된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대중 공연장들은 입체적 공간을 요구하는데 체육시설은 대부분 평면적 공간입니다. 일부 약간 비슷한 공간은 있는데, 한계는 극복할 수 없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음향 문제라든지 조명 문제라든지 아니면 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번 물류를 통해서 그 장비들을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공연이 계속된다면 장비 보관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점까지 감안하셔서 이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여기다 한 말씀 더 붙이겠습니다.

아레나 같은 경우는 체육기금으로 다 조성이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임오경 위원 그런데 반대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사업에 대해서 설명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콘서트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 주는데 수익사업으로만

너무 또 가게 되면 반대로 체육기금으로 만들어진 아레나가 차별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운영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체육인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소외받지 않도록 설명도 충분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그러한 수익금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은 체육인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대책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말씀에 완전히 동의하고요. 체육시설에 사실상 대중음악 공연장이라는 개념 자체를 도입을 안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음악만을 위한 그런 공연장은 아예 없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수요가 하도 폭발을 하다 보니까 체육시설 중에서 시설을 좀 보강을 해 갖고 공연장으로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예산 증액 같은데 지금 당장은 이렇게 쓰겠지만 대중음악 공연장은 소규모·중규모·대규모까지 다 신설을 사실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체육관을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잔디 밟는 그런 것을 할 거예요?

○이기현 위원 동의합니다.

○김재원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 예산 이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내년 예산은 그렇게 해서 다시 편성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기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장관도 말씀하셨는데 영국의 워블던 경기장 예를 들면서 매트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최근에 공연이 많았던 그 행사장에 행사 때문에 한번 가 본 적이 있는데 잔디가 형편없이 막 훼손돼 가지고 축구 경기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밟으면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 매트를 그때 장관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영국에서 쓰는 매트를 몇십억을 들여 수입해서 상암이든 고양, 어디든 빌려 주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것 빌려 주지 마시고 한 경기장에 일정하게, 공연이 많이 집중되는 경기장들 있지 않습니까? 비치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조계원 위원 비싼가 봅니다.

○이기현 위원 그게 그렇게 비싼가요?

○김재원 위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경기장마다 시스템이 다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음향이나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괄 그냥 20억씩 지원해 줄게, 이게 말이 되느냐. 15개소로 그렇게 금액적인 부분만으로 환산을 한다는 것은 조금……

○소위원장 박수현 감사합니다.

이 문제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가 공연장의 필요 또 아레나 수준까지 확대를 장기적으로 다 소망하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성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부족해 보인다는 진종오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제안들 이런 것들을 잘 감

안하시고 그래서 진종오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원안대로 그렇게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재원 위원 없습니다.

○진종오 위원 이해하는 바는 있는데 아까 차관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 살짝 하겠습니다.

차관님, 보통 의원실에서 감액을 요청하게 되면 관련해서 왜 감액이 되는지 해서 해당 사안을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료를 보냈다’, ‘갔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죄송합니다.

○진종오 위원 내일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 있는 감액이나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차관님께서 좀 더 철저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소위원장 박수현 감사합니다.

이기현 위원님.

○이기현 위원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말씀 정말 동의하는데요. 각 체육관, 체육시설의 컨디션이 다 다릅니다. 규모도 다른데 일괄 20억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실사를 통해서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거기가 음향이 필요한지, 조명이 필요한지, 아니면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 여분의 공간이 필요한지를 잘 판단해 주셔서 금액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단가가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업 시행 과정에서 좀 더 유연성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종오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직접 가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못 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아마 다 갔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쟁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소위원장 박수현 임오경 위원님, 마지막으로……

○임오경 위원 마지막으로, 지역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저희 광명에 스피돔이라고 경륜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기서 콘서트도 하고 했었다고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데 지금 10년이 넘도록 여기서는 경륜 경기만 한다고 하는데 경륜 경기를 꼭 주말에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장을 다른 용도로는 전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 문체위에서 온라인법도 다 통과시켜 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꼭 경기를 주말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야간도 할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정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는 만석이랍니다. 더 수용을 해서 1만 3000석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사 한번 해 보셔서 문화예술과 스포츠가 한자리에서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이 문제는 아까 제가 ‘원안으로 결정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다시 정확하게 수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이기현·조계원·조은희 위원님께서 260억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정부 측이 수용 의견을 말씀하셨고 이 안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김교홍·김승수·임오경 위원님께서 국민한마음 대축제 예산 신규 반영을 위해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부 수용 의견을 말씀하신 거지요?

○**김승수 위원** 아까 공모 통해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넘어가시지요.

○**소위원장 박수현** 알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번에 있는 전국방방곡곡 찾아가는 구석구석 콘서트 이것 역시도 아까 정부 측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는 의견을 주신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이 역시 그대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 보고하실 차례인가요?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예, 102쪽입니다.

61번, 게임산업 육성입니다.

내역사업 게임활성화 생태계 조성 중 K-게임 라키비움 조성은 유사사업 중복, 운영 주체의 한계, 법적 불완전성 등으로 정책적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관련 예산 전액인 14억 9900만 원 감액과 가치 있는 게임문화유산의 아카이빙이 필요하므로 원안 유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K-게임 라키비움 조성은 정부안 금액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데요. 지금 지적해 주신 것과 달리 역량이 있는 곳에서 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최성희** 기존 기관과의 중복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게임 종주국, e스포츠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의 역사나 문화를 담은 공간이 없어서 사실 이 사업은 게임업계에서 한 20년 동안 염원으로 했던 사업이라 반영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운영 주체의 역량 확인이 안 됐다는 지적을 주셔서 저희가 이것을 일단 콘텐츠 진흥원으로 변경해서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이 관리될 수 있게 조정을 하려고 하고요.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 미비한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게임산업법 12조에 근거한 문화시설로 설립해서 향후에는 박미법의 등록요건을 충족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게임업계에서 너무나 원하는 사업이라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최성희 국장님, 말씀을 좀 천천히 하셔야 위원님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최성희**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진종오 위원님께서 지금 정부 측의 설명에 대해서 한말씀 주시겠습니까?

○**진종오 위원** 게임업계 분들도 필요하다라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는데 지금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향후에 인건비라든지 유지비용 등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최성희** 저희가 이것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추진을 해 왔던 사업이라 20년에 이미 기본구상이나 계획 수립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것에 기반해서 일단은 민관이 협력해서 라키비움 구성하는 그런 안들을 지금 대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하고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런 것들을 체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에서 유사사업 중복이나 운영 주체의 한계, 법적 불완전성에 대한 설명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진종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면서, 다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유지비 등의 불안정성에 대한 새로운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고려해 주실 것으로 믿고 진종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원안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정부 측 의견을……

○**진종오 위원** 원안대로 유지할 수는 있는데 하나 더 넣고 싶은 내용은 이게 지금 중복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부분을 철저하게 중복이 안 되는 식으로 방향성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최성희**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국장님, 이게 사업비가 200억이 넘어가서 총사업비 관리대상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재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최성희** 예.

○**김승수 위원** 이 사업은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사업비 관리대상으로 지정됐을 경우에 대비한 그런 대응책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최성희** 예, 지금 이 사업들은 기재부랑 계속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총사업비가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기재부랑 협의하면서 총사업비 관리에 관련된 절차들을 잘 밟아 나가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기재부에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던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최성희**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임오경 위원님 추가하실 말씀 있습니까?

○**임오경 위원** 이것은 논의가 있었던 거예요. K-게임 라키비움 운영과 관련해서 국립 게임박물관으로 바꾸는 부대의견을 제안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것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최성희** 지금 체계가 민관이 어쨌거나 같이 협력하는

체계여서 국립이라는 용어보다는 대한민국게임박물관으로 조정하면 어떨까 합니다.

○**임오경 위원** 제안했을 때 부대의견 채택을 전제로 문화예술로서…… 이것을 스포츠라고 보니까,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게 이게 스포츠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문화예술로서 게임을 진흥하기 위해서 ‘K-게임 박물관이 필요함’ 이렇게 해서 부대의견을 달자고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부대의견까지 달아 가면서 잘 협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CJ그룹의 OGN 매각 이후 K-게임의 상징적 장소가 감소하고 있어서…… 감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전에 우리가 계속 논의했던 중요한 사항들을 배제시키고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인사이동이 돼서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한 번 정도는 체크해서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이것은 원안 유지대로 다 통과시켰고 부대의견까지도 달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최성희** 예, 알겠습니다. 더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정부 측이 원안 유지를 수용하기로 한 그 의견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설명……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심사자료 105쪽입니다.

수용이기는 하나 21억 3400만 원과 11억 3400만 원 의견, 충남 글로벌 인공지능 콘텐츠 창제작센터 같은 경우에 13억 원과 2억 원의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110쪽입니다.

저작권국.

69번,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저작권 교육 및 홍보 중 저작권교육조건부 기 소유예제 운영과 관련해서 12억 7500만 원과 1억 25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콘텐츠국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예.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최성희**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게임활성화 생태계 조성의 e스포츠선수권 부분에 대한 증액 규모를 말씀 주신 건가요?

○**임오경 위원** 몇 페이지인가요?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105쪽입니다. 62번.

○**민형배 위원** 수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달라서?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금액이 두 개 있으니까 정하시라고……

○**임오경 위원** 정부 차원에서 어느 쪽 증액을 요청하는 건지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최성희** 저희는 21억 3400만 원 증액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두 번째는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최성희** 두 번째도 13억 원 증액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62번은 21억 34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신 김승수 위원님 안과 또 13억 원을 증액 요청한 김재원·박수현 위원안으로 정부가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0쪽 넘어가겠습니다.

110쪽,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에 대해서도 역시 두 가지의 증액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정부 의견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12억 7500만 원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저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지금 콘텐츠정책국 끝냈잖아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예, 말씀하십시오.

○민형배 위원 산업구조의 변화도 그렇고 또 문화·체육·관광 인프라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 콘텐츠정책국 쪽 예산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대폭 증액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증액도 부족하고 당초에 문체부가 전체 정부 예산의 1.07%밖에 되지 않은 수준에서 한 게 매우 유감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확정할 때 보류되어 있는 것들은 특히 증액에 대한 근거와 논리를 충분히 가지고 와서……

저는 이것은 대폭 증액을 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준비하시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민형배 위원님의 말씀에 완전히 동의하고요.

지금 콘텐츠정책국에서도 콘텐츠정책을 다루고 예산을 논하는 자리에서 증액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그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게임을 체험이라도 해 보시고 아니면 음악 제작이라든지 영화 제작에 대한 체험이라도 해 보시면 지금 상황에서 AI 제작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왜 그 부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되는지, 왜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로 이해가 가실 텐데 그런 부분이 없이 정책적인 논의로만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시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에게도 설명이 안 되고 본인들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적인 그런 이해를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정부도 새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심기일전, 새로운 마음으로 업무를 시작하고 있는 만큼 국회와 함께 더 풍부해지고 더 성장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소통을 해 주시면서 위원님들 말씀을 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지금 시간이 10시 20분인데 1차관 소관을 빨리 마무리하고 유산청

소관까지 일독을 하려면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안 쉬고 갑니까? 조금 쉬고 가시지요.

○소위원장 박수현 그냥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님 잠깐 가서 쉬고 오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114쪽입니다.

미디어정책국.

76번,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동 사업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사가 세계적인 정보경쟁 환경에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 정보격차 해소 등과 같은 공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공적 기능 이행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쟁액의 객관적 산출 근거 미흡으로 89억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공적 기능 이행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쟁액의 객관적 산출 근거 미흡으로 44억 57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115쪽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116쪽입니다.

77번,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입니다.

두 번째, 한국 드라마 70주년 기념 행사 및 미래비전 마련을 위한 한국 드라마 70주년 기념 및 AI 융합 드라마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지원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 9억 9000만 원 쟁액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114쪽 76번, 국가기간통신사 이 부분은 지원 사업의 감액을 일부 수용하는데 감액 규모는 89억이 아닌 44억 5700만 원이 쟁액됐으니까 44억 5700만 원 감액을 수용합니다.

다음 116쪽, 한국 드라마 70주년 기념 및 AI 융합 드라마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한 사업 지원이 바람직하므로 공모를 통한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쟁액을 일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의견 모았듯이 연합뉴스 쪽에서 그 당시에 말씀하시기로는 단서를 달자고들 하셨지 않습니까? 그 단서를 빨리 제출하라고 하십시오, 내일까지. 이를테면 혁신안,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혁신안,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지. 저는 44억 7500만 원 감액에 그래야 동의할 수가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러셨잖아요.

○임오경 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올라온 예산은 감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반대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번에 연합뉴스 현장에 가서 국감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고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았기 때문에.....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라는 이유로 저희가 지금까지

비공개 업무보고만을 받아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정감사를 정식으로 국회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는 제도개선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감사를 국회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한다라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좀 유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승수 위원** 하여튼 연합뉴스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요, 최근 몇 년 동안. 그래서 저번에도 연합뉴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질타를 받았는데 저도 결론적으로는 일단 임오경 위원님 안에 동의해서 정부안을 유지하되 그 이전에 내일 최종 심의할 때 앞서 민형배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제되었으면 한다 이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의견들 말씀하시지요.

○**정연욱 위원** 저도 원안 자체가 유지돼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언론사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약간의 특수한 부분도 있어서 그동안 비공개 진행을 하고 했지만 기본적인 운영 자체에 대한 문제까지 우리가 흔드는 부분까지는 조금…… 이게 감액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균형을 잡고 있는지는 약간 짚어야 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나가야 될 부분들은 앞으로 국감이 더욱더 제대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는 국감이 아니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론사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차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할 수 있되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이기현 위원** 말씀 동의합니다. 저는 사실 정부가 일정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언론사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얼마만큼 큰 경영상의 어려움을 가져오는지도 잘 이해는 합니다만 연합뉴스가 그동안 굉장히 방만하게 경영된 측면도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감 때, 지 지난 국감이지요. 지적된 바들이 충분히 수용되지 않았던 측면들이 이번 국감에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산이 윤석열 정부에서 350억이었던 게 50억으로 삭감됐습니다. 300억 삭감됐던 것을 국회에서 지난번에 추경으로 250억을 반영했고 이번에 그 차액인 50억까지 마저 반영한 것이 정부안인 것 같은데 저는 연합뉴스가 경영 개선이나 아니면 편집권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주지 않는다면 상징적 조치는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계원 위원님과 제가 낸 안 정도가 작년안입니다. 그러니까 동결입니다. 딱 그 정도 수준이 적당한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자, 정리를 해 보면 민형배 위원님은 44억 5700만 원 삭감 그다음에 조계원 위원님, 이기현 위원님은……

○**민형배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저는 89억 삭감이고……

○**조계원 위원** 원래 89억에서 지금 양보를 하되 조건을 붙이고……

○**민형배 위원** 두 분이 44억 5700만 원 삭감이고, 지금 안이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알겠습니다. 정리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 안 해도 다 알아들으셨을 테니까요.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는……

○이기현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국감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소위원장님도 다 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국감 진행하고 그리고 다음 국감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하자라고 얘기까지 한 마당에 아무런 예산상의 조치가 없다고 하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연합뉴스에 대해서 국감 이후에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은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예, 알겠습니다.

다만 지난 국정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예산을 일부 삭감하는 이런 조치가 있을 수 있고 또 민형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혁신안을 확실하게 제출하는 자체 노력과 의지표명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요구됐고 그런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존경하는 정연욱 위원님께서는 그것과는 반대되는 다른 의견, 유지돼야 된다는 의견도 내셨어요. 하여튼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하루 더 보류했다가 내일 보류 심사 때,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때 결정을 하도록 보류로 넘기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예, 보류했다가 내일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수현 예, 내일 할 거예요.

○조계원 위원 본래를 보여야지. 가만히 놔두면 안 돼.

○임오경 위원 작년에 80% 삭감했잖아요.

○정연욱 위원 작년에?

○임오경 위원 예, 위원님들이 50억밖에 반영 안 시켜 줬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비 말씀하시면 내가 진짜 할 말이 없어.

○정연욱 위원 다른 건데, 이것은 다른 건데.

○조계원 위원 정연욱 위원님은 삭감할 생각이 없었나 보네.

○민형배 위원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50억 남겨 놓고 다 잘랐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디지요?

위원님 여러분, 지금 116쪽의 한국 드라마 70주년 기념행사 이 부분에 관해서 정부 측은 공모 방식 변경으로 수용을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117쪽 79번, 출판산업 활성화에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은 수용이긴 하나 118쪽에 보시면 50억 원과 15억 원 증액으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이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입니다.

지역서점 문화활동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증액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동네책방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증액을 아울러 수용합니다.

○김재원 위원 그래서 얼마요?

○조계원 위원 금액.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지금 밑의 15억 부분에 대해서는 임오경 위원님이 특별히 제안해 주셔서 양해를 해 주시면 50억으로 받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50억 증액안으로 결정하도록……

○임오경 위원 정부 의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125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4번, 지역 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에서 이순신 영상관 2억 원 증액 관련하여 일부 수용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125쪽 84번, 지역 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은 기본계획 수립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설 관련 예산이 지특회계 자율계정으로 이관되어서 이 사업 내용을 콘텐츠 제작 지원으로 한정해서 할 경우에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으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일부 수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이게 시설 개보수 관련 사업으로 하면 지특회계 자율계정으로 이관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국고로 편성할 수 없고요. 이것을 콘텐츠 제작 지원으로 한정해서 하면, 그러면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니까 일부 수용은 금액의 일부가 아니라 내용의 변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내용을 바꾸면……

○소위원장 박수현 맞습니다. 자율계정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국고 지원이 안 되는 점이 인정되고요. 그러면 그렇게 변경을 해서 수용하는 쪽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127쪽입니다.

내역사업 문화환경 취약지역 성장패키지 지원과 관련해서 수용 의견이나 82억 원과 62억 원, 21억 원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62억 원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129쪽입니다.

86번, 문화중심도시 육성.

문화중심도시 육성 사업의 총사업비 관리대상 건립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추진 단계 및 이월액 규모를 고려하여 25년 수준의 예산편성을 위해 36억 9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문화중심도시 육성 사업은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상임위 삭감안 수용이 곤란한데요. 걱정하시는 지역 사유가 대부분 해소되었고 이월액도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지역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지역문화정책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총사업비 대상 사업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비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도 7월 달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공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침단 실감 문화콘텐츠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재정투자 심사가 지연됐는데 올해 4월 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설계비 5억 반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억 반영을 했고 내년도에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캐릭터 테마파크 사업도 올해 7월 달에 재정투자 심사를 통해서 설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고요. 내년도 공사비 45억을 반영했는데 이것 내년도 공사에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아트앤사이언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축설계 진행 중입니다. 내년도 2억 반영한 것은 전시설계를 같이 하기 위해서 2억 반영을 했는데 내년에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5년도 사업 중에 저희가 최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조계원 위원 사업 설명하는 건가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예.

지연된 사업이나 불용된, 이월된 사업들을 김승수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미 올해 불용 예상되는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증액된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공사비,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조금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김승수 위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네 가지에 대해서 전부 다 진행 중이다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지역 사유가 해소됐다는 설명에 대해서는요?

○김승수 위원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지금 설계 공모 당선작대로, 그대로 가나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설계 중간 단계에서 총사업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 공모 당선작 그대로 가느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예, 총사업비 조정해서 설계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승수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당선작에 대해서 지역에서 문제 제기들이, 비난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난에도 불구하고 당선작대로 그대로 설계를 가느냐 그것을 묻는 것 아니에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렇게 알고 있다는 그런 흐리멍덩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떠한 상태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지금 자연되는 부분들은 총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김승수 위원** 내가 묻는 얘기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해 가지고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설계 공모를 했는데 당선작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지역 내에서 이견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됐는지 묻는 것 아니에요? 자꾸 왜 딴소리를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과장 김경화** 지역문화정책과장 김경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했던 대로 미술계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당선작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정도, 당선작을 기준으로 설계를 약간 변형을 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지금 반영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과장 김경화** 설계는 이것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총사업비…… 그러니까 중간설계 단계에서 총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총사업비 증액을 좀 조정하는 부분 그리고 미술계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의견수렴한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기본적으로 당선작에 대해서 설계를 어느 정도 변형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26년 7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당초 일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당초 일정대로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예산이 집행 안 되고 불용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만큼을 삭감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삭감 의견 제기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과장 김경화** 예.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것 다른 시설들은 그렇게 해소됐다 그러니까 중투가 그렇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제일 큰 사업인 이게 좀 흐리멍덩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과장 김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에서 가장 큰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간설계 단계가 올해 5월 달에 중지가 되었는데 12월부터 재개

할 예정이고요.

○김승수 위원 아직 재개가 안 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과장 김경화 예.

○김승수 위원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투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고 중요한 상징성 있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 또 기간 빨리하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많은, 광주시민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설계랑 그런 시설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공사가 진행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 올해 반영됐든 내년에 투입되든 여러 가지 집행 상황이 불용될 가능성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더 잘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과장 김경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번에 이 사업에 저희가 중액한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이월한 것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들이 이월이라든지 불용이 있으면서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의 내년도 집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광주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가능하다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12월 달에 설계를 재개하면 내년 7월 달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설계가 완료됐을 때는 설계비 한 20억 정도를 집행할 예정이고요. 9월 달에 공사를 시작했을 때 3개월 정도의 공사비에서 저희가 50억을 소진할 수 있기 때문에 잔여 예산은 올해, 그러니까 이월한 금액하고 내년의 예산까지 포함을 해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수 위원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이 4개 사업 이외에도 아특회계 사업들 중에서 매년 신규 사업이 들어오는데 그리고 또 일회성으로 없어지는 사업들도 계속 나오고, 똑같은 일이 연례 반복적으로 이렇게 집행률이 제로인 사업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오히려 되풀이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올해 신규로 들어온 사업들하고 정부안에 포함된 사업하고 해서 내년에도 집행률이 0%인 사업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책임지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과장 김경화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번뿐만이 아니라 사실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0%인 사업들이 4건, 5건 계속 있는 부분이어서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광주시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협의를 했었고요. 특히 대부분의 집행률이 제로인 사업들의 원인이 지방재정투자 심사라든지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사전 절차가 많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더 광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고 중간중간에 관리를 좀 더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앞서 종무실 사업 때 그래서 딱 기준을 정했잖아요,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들은 수용 불가로. 이 부분도 그렇게 원칙을 정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은 키우고 제대로 준비가 안 되거나 어설프게 들어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차단할 수 있는 그것을 마련해야지 말 그대로 아시아 중심도시로 뿌리를 내리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소모적인 사업들이 반복이 되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게 확실하게 아시아 중심도시다 이런 느낌을 갖는 사업들이 크게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박수현 김승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답변 됐고요.

민형배 위원님 한말씀하시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과장님, 똑부러지게 말씀을 하세요. ‘이러이러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올해 불용 예산까지 또 내년에 책정된 예산까지 내년에 다 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이 지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지극한 애정을 가지고 살피고 계시는데 안심을 하실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과장 김경화 예, 내년에는 90% 이상의 집행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말로만 하면 되나 모르겠네.

○소위원장 박수현 자, 그러면 애초에 말씀하셨던 총사업비 관리대상 건립 사업 자연을 이유로 감액 의견을 내 주신 김승수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네 가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자연 사유가 해소되고 있고, 또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당선작에 대한 여러 가지 구설수 이런 부분들이 사실 5월 달에 설계를 중지하고 12월에 설계를 재개하면서 내년 7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겠다는 것을 보면 김승수 위원님의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설계변경을 통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내년에 확실히 90% 정도의 집행률을 약속한다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김승수 위원님의 36억 900만 원 감액은 문화중심도시 육성 사업에 대한 김승수 위원님의 뜨거운 열정으로 메워서 이것은 원안대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김승수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139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92번, 2016년 관광기금이 문예기금으로 편성됨에 따라 이관된 사업임. 21년 이후 관광기금 전입 중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계적으로 편성되어 유지되어 옴. 문예기금 법적 용도에 맞지 않거나 사업 이관 당시 사유가 해소돼 일반회계로 재이관이 필요하므로 예산 전액 8억 22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140쪽입니다.

93번, 예술산업금융 지원(융자) 사업입니다.

예술의 산업화 추진 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 이중으로 지원이 나갈 우려가 있으며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 지원 융자 사업 계획안을 편성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사업비 전액 20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이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139쪽 92번, 문화예술 해외교류, 이것은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이 한일문화교류회의 운영이나 한중일 문화교류, 동아시아문화도시 내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 문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예기금 목적에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없어질 경우에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 온 이 사업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커다란 차질이 생깁니다.

다음 140쪽 93번, 예술산업 금융 지원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잠시만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예.

○**소위원장 박수현** 우선 92번부터 하고 넘어갑시다.

김재원 위원님, 지금 정부 측의 설명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김재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결위에서도 질의를 했었던 부분들인데요. 이런 식으로 기금에서 집행되는 것들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용도와 맞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항목 정리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것들이 일반회계로 편입이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리는 항목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금에서는 감액이 되는 것이지만 일반회계 항목에 이것을 편입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지 사실 감액 의견은 아닙니다.

그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목적으로 듣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예결위에서 기재부도 마찬가지고 문체부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이게 문화예술진흥법상 문예기금의 용도에 국제 문화예술 교류라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님. 근거는 있고요.

이것을 일반회계로 돌리는 작업을 하려면 여기서 감액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올린다는 것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감액이 되고 일반회계에서 올리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없어질 경우에는 그동안 오래 해 왔던 한중일 문화교류나 한일문화교류회 같은 그런 사업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차질이 빚어져서 내년 예산은 이렇게 하고 내년에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하면, 아마 이것 정도는 저희가 의지를 갖고 하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김재원 위원** 이게 사례가 없었던 게 아니라 93년에서 2007년까지는 일반회계였어요. 그러다가 관광기금으로 23년까지 운영을 하다가 24년 이후에 문예기금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일반회계 항목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지 사실 기금으로 운영이 되면 용도도 불일치하고 그런 상황이라 잣은 재원 이관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소위원장 박수현** 김재원 위원님 말씀이 매우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기재부장관과 문화부장관께서도 동의하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지금 차관의 설명대로 예산편성과 심사 통과의 순계상 지금 여기서 감액하고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다시 편성해서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불확실한 문제 같아 보이며 김재원 위원님의 지금 이 말씀을 내년도에 확실하게 시정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전제로 이것을 정부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재원 위원** 예, 일반회계로 이관해야 되는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제가 지적들을 했었는데 예결위에서 질의한 것과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정리를 하셔서 내년에는 그 항목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약속을 해 주시면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 당국하고 열심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거기다 하나 플러스 더 하면, 체육기금에서도 1000억 나가고요. 관광기금에서도 나가고요. 문예……

위원장님, 예산 좀 아껴 쓰라고 해 주십시오.

○**김재원 위원**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차제에 김재원 위원님께서도 이것 말고도 다른 몇 건이 일반회계로 가야 된다는 말씀하셨으니 그것도 함께 자료를 정부 측에 주셔서 그 문제도 정부 측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김재원 위원님,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말고도 다른 건에 일반회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것도 정부 측에 제공을 하셔서 함께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김재원 위원** 예.

○**소위원장 박수현** 임오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전제로 이 문제는 정부 측의 원안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3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술산업 금융 지원(융자) 사업 전액 감액은 수용이 어렵습니다. 법제처 기준에 따르면 융자 사업은 반드시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술산업 지속성을 위해서 내년에 문예진흥법 개정을 통해서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관련 법적 근거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김승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유사한 부분 이중 지원 문제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술정책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술의 산업화 지원 사업은 예술기업의 창업 지원이라든가 인력양성 그다음에 아트코리아랩 같은 지원 사업만 있고 융자 사업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술기업과 단체의 외부 자금조달 수요를 고려해서 예술산업에 융자 사업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실 관광 분야 같은 경우는 6400억 원의 융자 사업을 하고 있고 체육·스포츠도 한 2400억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술의 산업화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융 융자 지원 사업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김승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승수 위원** 이 사업의 수요조사해 봤나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 예술단체하고 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했고……

○**김승수 위원** 아니, 수요조사, 의견수렴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수요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승수 위원** 어떻게 파악을 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술단체하고 기업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김승수 위원** 간담회 하면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하면 좋지요’ 하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예술산업 종사자들이 융자받을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러저러해서 1금융권에서는 융자를 못 받고 2금융권에서는 어렵고 이자율이 어렵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평균 융자를 받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로 이자율을 저리로 하면 우리 쪽의 융자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융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뭉칫돈을 잡을 때는 제대로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 구체성을 띠고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화예술 쪽에 불용 또 이월이 많은 것 아닙니까.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소위원장 박수현** 예.

○**민형배 위원** 차관님, 제가 중대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진짜 명심해서 들어 주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거든요. 지당하신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발 책상에 앉아 가지고 간담회만 해 가지고 돈 얼마 필요하고…… 제가 보기에는요 200억 가지고 턱도 없어요. 저희 동네에서만, 광주시에서만 해도 200억 갖고 부족합니다. 진짜예요. 예술산업 금융 지원 이거요 저희 동네에서만 해도 200억 갖고 부족하다니까요. 금리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몇억씩 가져다가 예술사업 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지금. 특히 요즘 한류 그다음에 AI 콘텐츠 이런 것들이 막 활성화하면서 곳곳에서 돈이 없어서 아우성이에요. 2000억이라도 부족할 건데 200억 원 해 가지고 이것마저 깎이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수요를 먼저 좀 파악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자꾸 위에서 아래로 내려 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수요를 파악해서, 공모 방식으로 돼 있는 것 제안 방식으로 다 바꿔야 돼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 한번 제안해 보세요’, 그래서 예산도 편성하고 그렇게 제안이 들어온 것을 놓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꾸리고 예산을 책정해 가야 돼요. 지금은 전부 다 문체부 관료들이 앉아 가지고 여기저기 전화해 보고 지난해 했던 거랑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거랑 봐 가지고 예산 세우고 있거든요, 정책 하고 사업 하고. 이것 전면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런 게 지금 김승수 위원님 지적대로 그대로 보여 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내용

이 빙약해지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민들의 역량, 민간의 역량이 발현이 제대로 안 돼요.

전체적으로 사업 기획하고 예산 책정할 때 반드시 지금하고는 접근 방법을 바꿔 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그래야 이상한 이런 상황이 안 나와요.

○조계원 위원 저도 한마디……

○소위원장 박수현 예,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형편이 어려운 예술인들이 대출을 이용하려고 할 때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의 20%에 가까운 막대한 금리를 받으면서도 대출을 못 구해 가지고 빌을 동동거리고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단순히 200억 전체만 가지고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렛대로 삼아 가지고 만약에 15% 대출받을 거라면 여기서 레버리지 10%를 섀ム(sum) 해서 5% 정도의 금리로 융자하는 이런 방식으로 운용을 하나요, 아니면 이것을 바로 다 대출로 소진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일단 기본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금융기관을 선정 할 때 그런 레버리지……

○조계원 위원 레버리지를 만들어서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 이율이라든가 그런 부분 고려해서 선정합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10%로만 해도 이게 2000억 효과가 가능하지요? 융자에 쓰이는 효과는 그렇게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조계원 위원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레버리지로 주는 거지요.

○민형배 위원 그러면 기금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매해 소진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아닙니다. 거치가 10년 거치, 5년 거치……

○민형배 위원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맞지. 지금 말씀하신 거랑 달라요, 전혀.

이를테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금을 대 주고 나중에 그 보증금 갚는 건데…… 실제로 대출은 그것보다 몇 배 나오게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아닙니다.

○민형배 위원 이것은 기금 금융 지원 사업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장 김홍필 예술정책과장 김홍필입니다.

이것은 융자 사업입니다.

○민형배 위원 직접 융자해 주는 사업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보증금과 같은 그것 아닙니다.

○민형배 위원 왜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장 김홍필 그다음에 이자율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자율 같은 경우는 융자기 때문에 기준 금리는 CD 현재 기준 2.53%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금리에 대해서 중소기업이나 그런 부분 혜택이 있어서, 예를 들어 지금 스포츠산업

융자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2.5%지만 실제로는 1.25%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기금 같은 경우에도 중소기업 같은 데는 0.75% 감해서 실제로는 1.5%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술산업 금융 지원하게 되면 그 융자의 이자율 같은 경우는 2.5%에서 아마 기재부 협의에 의해서 정리되겠지만 1.5% 이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아직 이자율도 협의 안 됐어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장 김홍필 이 부분은 기준금리가 있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통상 연초에 기재부랑 협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김승수 위원 그 자격요건은 어떻게 돼요, 융자 자격요건?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장 김홍필 융자 자격요건은 지금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그 다음에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른.....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융자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신용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융자를 해 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장 김홍필 담보대출입니다, 이 부분은.

○김승수 위원 그거예요. 옛날에 코로나 시대 때 관광이나 여행업도 마찬가지고 실제가 보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라는 것은 간담회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자율을 1%, 2%, 3% 했을 때 또 융자 자격요건을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에 수요가 어떻게 될지를 최소한 설문조사, 샘플링이라도 해야지 이자율을 이렇게 해서 자격요건 이만큼 넓혔을 때 이 정도의 융자 수요가 있겠구나 개략적이라도 감이 오지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자율은 낮고 자격요건은 굉장히 완화시키면 민형배 위원님 이야기처럼 200억이 아니고 300억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게 까다로우면 200억이 아니라 100억도 융자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보고 사업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답할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많은 준비 부족이 보이고요. 이 문제 지금 이대로 결정할 수는 없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보류하겠으니까요 오늘 위원님들 질문 또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정리하셔서 내일 보류 심사 때 다시 한번 명쾌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140쪽 94번, 예술창작 지원.

내역사업인 지역예술 도약 지원 관련해서 지방비 매칭 한계와 예산 축소로 지역예술재단의 사업 연속성과 참여 예술가 지원이 어려우므로 지역예술 생태계 유지를 위해 38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140쪽 94번,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지역예술 도약 지원을 38.1억 감액하는 대신에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을 35억 증액하는 것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 만큼 이것은 존중해서 정부안 유지를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예술창작 지원, 94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94번 이게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지역예술 도약 지원 사업이 낫게 나와서 이 사업 총 30억 중에서…… 시각예술을 제외한 문화하고 공연예술 분야는 창작공연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옮겨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35억을 창작 지원 사업에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편성을 할 때 지역예술 도약 지원 사업을 줄이고 창작공간 지원 사업을 35억 증액했기 때문에, 자체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역도약 사업에 추가 반영은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문제가 있어서 조정을 해서 낫추고 다른 쪽으로 돌렸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말씀을 하실 때 창작공연이라고 하셨다가 창작공간이라고 하셨다가 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죄송합니다.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김재원 위원 창작공간이라면 지역예술 도약 지원은 본래 작품에 대한 것이었는데 공간 지원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사실 이것도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형태는 비슷합니다.

○김재원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간에 대한 것과 창작 작품에 대한 것이 어떻게 연계돼 있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창작공간 활성화 사업은 문화 창작공간을 지원한다든지 시각예술 창작공간을 지원한다든지 공연예술 창작공간을 지원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 공간 안에서 안정적으로 지역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창작자들에게 직접 지원해서 작품을 만들도록 하는 지원의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공간 자체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창작자들이하게 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대상 자체가 지금 달라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처음에 지역예술 도약 지원 사업이 사업의 실효성이 좀 떨어지니 그 떨어지는 것만큼은 줄이고 나머지를 지역의 예술인들한테 공간에서 예술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돌리자라는 취지로 지출 구조조정을 했던 겁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면 그 공간에 속해 있지 않은 예술가들은 매칭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공간에 한정해서 거기 참여한 예술가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예술인들이 있는 거지요, 위원님.

○김재원 위원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예술인들이 있다는 게 아니고, 이게 원래는 예술인 자체에 대한 지원이었는데 공간을 지원해 버리면 그 공간에 속하는 사람들이 또 선별이 될 것 아닙니까?

공간 자체가 예산을 지원받게 되면서 공간 자체가 권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예술인들

을 배제할 수도 있는 거고.

○소위원장 박수현 알겠습니다.

지금 자꾸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이런 어떤 변경안을 내시는 위원님들에 대해서 사전에 제대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와서 토론을 하시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어서 시간이 걸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조계원 위원 지금 정부 의견이 이 자료에는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창작공간 지원 사업으로 35억을 썼기 때문에' 이 말이 갑자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부 측이 준비를 하면서 위원님에게 설명을 하거나 자료에 기재하는 데 위원님들이 혼란을 느끼시는 이런 상황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계원 위원 보류하고 내일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수현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저희가 다 이해는 되지 않으나 정부 측이 어떤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에 대한 신뢰를 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재원 위원님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으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시고 의견을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설명을 좀 제대로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측이 의견을 낸 대로 결정하고 넘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142쪽입니다.

95번, 예술인력 육성.

내역사업인 현장 예술인력 육성은 민간 예술 분야 창작기반 강화 및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를 위한 예비 현장인력·전문인력 등 종사자 인건비 지원, 역량강화 공간 제공, 교육 통합 플랫폼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아르코예술개발원의 노후화된 시설 리모델링과 시민개방형 예술공간 조성을 위해 4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96번, 예술의 관광자원화.

2016년 관광기금이 문예기금으로 편성됨에 따라 이관된 사업입니다. 21년 이후 관광기금 전입 중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계적으로 편성되어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문예기금 법적 용도에 맞지 않거나 사업 이관 당시 사유가 해소돼 예산 전액 45억 2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142쪽 95번, 아르코예술개발원의 리모델링과 시민개방형 예술공간 조성을 위해서 증액을 수용하는데 일부 수용해서 기본계획 수립 예산 2억

원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96번, 예술의 관광자원화는 전통문화예술 보존 및 국제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고 또 이게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아르코예술개발원, 저희가 45억 증액 요청했는데 지금 2억 수용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거기 가 보셨어요? 어떤 시설인지는 혹시 아시나요, 차관님?

혹시 담당 국장님 여기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

○**이기현 위원** 어떤 시설인지……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92년도에 설립됐고 제가 한 3년 전에, 예술국장 되기 전에 한번 가 봤는데 되게 노후화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이 있는데, 지금 여기 45억 제가 됐지만 정확한 공사비라든가 리모델링 범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먼저 기본 연구용역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리모델링을 전제로 내년에는 기본 용역을 통해서 범위라든가 예산 부분을 정확히 산출해서 내내년에 바로 개보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기현 위원** 저도 유세 때 다니다가 저희 지역이 굉장히, 일산이 신도시인데 농촌지역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괴기스러운 창고가 있어서 이게 뭔가 했더니 이렇게 간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문체부 것이라고 하는데 이 시설을 보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라 조폭영화 찍으면 딱 알맞게 생긴 시설입니다. 가서 보면 여기서 누구 납치해다가 막 고문하고 묻고 이런 정도의 괴기스러운 시설이 거기 하나 있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아이들이 밤에 그 앞을 지나다니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문체부가 그런 시설을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방치해 왔더라고요.

보통 얘기해서 무대를 제작한다든지 이렇게 시설을 공부하는 문화창작자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는 곳이라 그러는데 제가 직접 문 따고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문 따고 들어가면 힘들 것 같을 정도로 괴기스럽게 방치돼 있는데 저는 국가시설을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렵고요.

제가 45억 증액을 요청한 것은 2억 들여서 어떻게 그 시설을 리모델링할지를 볼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시설의 용도가 있어요. 그 시설의 교육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지역에서 문화시설로 지역주민들과 상생했던 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지역주민들의 삶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시설처럼 돼 버렸어요. 저는 시급하게 리모델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있어요. 시설의 용도가 있어요. 그 시설을 수영장 만들 것도 아니고 체육관 만들 것도 아니에요. 교육시설이에요. 그 용도대로 리모델링하시면 됩니다.

92년도에 지어서 이미 30년 이상 방치…… 운영하셨겠지요. 그런데 그 뒤로 추가 조성이 안 들어갔는지 뭐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형편없는 시설로 낙후화돼서 밤이 되면 저도 그 앞에 지나가기 좀 무서울 것 같더라고니까요. 이런 시설이 지역 내에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무슨 임대 창고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설이 아래 가지고 제가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2억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용도가 뭔지, 뭘로 쓸 건지 이렇게 볼 시

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가 분명하고 교육성이 있어요. 그런 뺀한 시설 아닙니까? 그것을 왜 이제 와서 1년 동안 2억 주고 용역합니까? 문체부가 그동안 해 왔던 방식의 형식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맨땅이 아니잖아요. 뭐 지을까 고민하는 땅이 아니잖아요. 있는 시설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책임지고 용역이 아니라 시설 리모델링, 개보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2년 동안 용역사가 와 가지고 길이 채고 높이 채고 뭘 넣을까 이렇게 고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예, 이기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부 측에, 여기에 그냥 기본계획 수립 예산 2억 원만 반영하겠다는 얘기는 언뜻 보면 이기현 위원님께서 지금 용도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도 없이 리모델링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잘 모르시고 그냥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계획 수립 예산 2억 원 이것보다는 당장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반영하는 쪽으로 의견을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내일 다시 한번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보류하고 내일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재원 위원님의 45억 2300만 원 감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곤란 유지 의견을 주셨는데, 김재원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김재원 위원** 아까하고 같은 겁니다. 이걸 제가 왜 그렇게 강조를 하느냐하면 원래 당시에 2000억이 넘던 문예기금을 자꾸 잡아먹고 이제는 거의 고갈 상황에 오기 때문이에요. 왜냐? 2016년 관광기금이 문예기금으로 편성됨에 따라서 이관된 사업인데 2021년 이후에는 관광기금 전입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돈에서 계속 까먹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니까 문예기금 자체는 고갈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의 다 고갈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환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 제가 아까 몇 항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과 지금 전문위원께서 설명은 안 하셨지만 97번까지도 결국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문예기금은 그냥 제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빨리하시라는 거거든요. 지금 하는데 골치 아프다, 복잡하다 하지 마시고 일반회계로 돌려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문예기금도 우리가 다시 만들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일반회계하고 기금 간의 구조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있고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기재부를 꺾어야 되는 일이라 굉장히 쉽지 않지만 위원님 문제의식에 저희도 정말 공감합니다.

**○김재원 위원** 아니, 기재부가 동의하셨다니까요. 그렇게 조정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소위원장 박수현**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6번과 97번을 묶어서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께서 주신 제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정부안대로 유지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143쪽 98번, 문화예술 향유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연 3000억 규모의 복지성 사업으로 그간 예산 증가에 따른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부정사용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았으며 효율성 개선 없이 증액이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있는바 299억 11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144쪽입니다.

내역사업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대상 기준을 19세에서 19세와 20세로 확대 예산편성한 것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정의와 부합하지 않고 수도권·비수도권 차등 지급의 현법적·법적 근거가 부재하며 국가재정법상 예타 대상임에도 문화진흥 사업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면제를 받아 부실한 사업계획과 지역 간 차별을 조장하므로 191억 46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 의견이 있으며, 145쪽에 보시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5억 7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의견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143쪽 98번,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정말 대표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향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부안이 꼭 유지되기를 바라고, 299억 원이 감액되면 이것은 너무 커다란 아픔이라서 정부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144쪽,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은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라는데, 이게 19세에서 20세의 청년들에게 문화예술 경험을 줘 가지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문화예술의 주요 고객으로 활동적으로 나가게 하려는 거니까 취지를 위해서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통합문화이용권 필요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님께서 그 필요성을 모르셔서 이런 것이 아니니까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문화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관련해서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통합문화이용권은 작년도 집행률이 90.8%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다만 이게 연간 예산이 30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한 10% 정도 부족해도 한 300억 미만 정도의 불용액이 생기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아 보이지만 집행률은 사실 90.8%로 굉장히 높은 사업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부정사용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문화나 체육·관광·의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취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간혹 생필품을 사신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부정사용신고센터 이런 것도 운영을 해서 부정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카드 발급할 경우 초기에 부정사용하면 안 된다고 안내도 하고 있고, 그래서 부정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최소 문화비용이 연간 37만 원 정도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4만 원이고 내년도에 15만 원 지원해 주는데 37만 원에 비하면 15만 원은 아주 적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꼭 유지되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299억 1100만 원 감액을 말씀하신 것

은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아마 2024년도 90.8%의 집행률에 따른 한 300억 정도의 불용액 규모를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불용의 문제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대책 그리고 부정사용을 줄이겠다는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통합문화이용권이 대표적인 취약계층의 문화향유권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하셔서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정부 원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노인층이나 장애인 같이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전화 결제 가맹점도 확충해서 전화를 통해서 공예품이라든지 하여튼 통합문화이용권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장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요자 맞춤형 지원도 하고 있어서 집행률을 최대한 높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 조금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고,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문화복지의 대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원안이 꼭 유지되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 ○소위원장 박수현 알겠습니다.

다음에 청년 문화예술패스에 대해서 진종오 위원님께서 한 말씀 주실 수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간단한 것 같아요. 청년기본법의 나이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수도권·비수도권 차등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19세부터 34세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고 저희는 말씀 주신 대로 19세부터 20세까지 내년도 지원을 하는데요. 청년의 모든 연령층에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청년의 초기 연령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19세, 20세는 사회에 진출하는 그런 초기 진출 연령이기 때문에 문화 향유를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비에 대한 차등적인 지원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내년도는 수도권에 대해서는 국비 10만 원 그다음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국비 15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을 차등적인 지원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비수도권은 기본적인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문화 향유가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해서 좀 더 추가적인 많은 국가 지원을 해 준다는 취지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취지가 와닿지가 않아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타 대상인데도 예타를 안 받은 거잖아요. 왜 이렇게 피해 가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식 예타는 면제가 되었고요. 저희가 간이 예타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연구원의 간이 예타를 지금 현재 기재부와 협의해서 받고 있고요, 연말 내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통합문화이용권이나 청년 문화예술패스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진종오 위원님이 지적을 자세하게 하시는 것은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지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용할 것은 수용하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셔서 이것이 더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충실하게 연구하시고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전제로 김승수 위원님 한말씀 더 해 주시고,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그런 당부를 더해서 정부 원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김승수 위원님 추가로 한 말씀 더 하시고 진종오 위원님……

○**김승수 위원** 그 부분은 이의가 있습니다.

일단 국장님, 그러니까 내년도 집행 잔액이 100억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지금 제가 확신한다는 말씀은 좀 드리기가 어렵고요. 집행률이……

○**김승수 위원** 어렵지요. 직을 걸고 확신 못 할 거예요. 100억 이하로 떨어뜨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불용될 것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더 요긴한 데 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삭감하면 충분히 집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갖고 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 문화예술패스, 좋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20세 되는 청년들은 작년에도 받고 올해도 또 받고 두 번 받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올해는 19세만 적용을 했습니다.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9세 받았잖아요, 19세 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예.

○**김승수 위원** 20세에서 또 받아요? 왜 이 연령대만 두 번을 받느냐 그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이게 지금 문화예술……

○**김승수 위원** 올해 19세 받은 청년들 전체 19세의 몇 %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한 30% 정도로, 저희가 지원 비율이 30%……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 청년의 30%는 올해도 받고 내년에도 받고. 그런데 전체 19세 중에 내년에 20세 되는 청년들 70%는 올해도 못 받고 내년에도 못 받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주 뭐 돈이 많은 사람들까지도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이런 것들 싹 다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왜 특정 연령대가 두 번을 받아야 되느냐. 논리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렇게 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내년에 19세 되는 친구들 중에서 조금 더 혜택을 넓히든지 이런 쪽의 제도적인 설계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집행률이 굉장히 낮지요, 지금까지 해 보니까. 왜 낮습니까, 집행률이?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집행률이 작년도에는 34% 정도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으로 한 46% 정도로 집행률은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편이고요.

○**김승수 위원** 집행률이 상승했지만 높은 집행률이 아니잖아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거의.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올해 한 60% 이상까지는 집행률 달성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김승수 위원 60% 집행률이면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말씀드리면 작년과 올해는 시범사업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김승수 위원 시범사업이거나 어쨌거나 집행률이 60%밖에 안 됐다는 것은 심각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기본적인 청년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문턱이 아직은 좀 높기 때문에 집행률이 그렇게 확 올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콘서트를 추가했고 내년도에는 영화도 추가를 한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내년도 20세 같은 경우는 2년, 내년도의……

○김승수 위원 전국 지자체 중에서 영화관이 없는 지자체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김승수 위원 영화관이 없는 데가 더 많지요, 시군구에서는. 공연 같은 거를 당연히 보기 가 어려운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면 오히려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 있는 청년들이 더 대상이 많이 될 수 있는데 막상 그 친구들이 티켓링크에 들어가도 그것 가지고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넓혀도.

이번에 예매처는 좀 늘린다고 그랬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예, 내년도에 7개 예정입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데 예매할 수 있는 데가, 그 시설이 있는 데가 살고 있는 데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나는 특정 연령대를 두 번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또 다른,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나……

두 번째는 이런 공연장에 직접 가는 것 이외에도 요즘 사실은, 그러니까 웹툰이라든지 이런 것도 네이버나 카카오나 거기에 들어가서 쿠키 가지고 만화를 보거나 웹소설을 보거나 그것도…… 물론 취지가 또 달리 있지요, 간접적으로 문화예술 작가들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외국인들 또 인기 작가들 말고 신진 작가들로 제한을 해서 주면 훨씬 더 양쪽 이용률도 높이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선방안을 갖고 내일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한말씀……

○소위원장 박수현 정리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저희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소위원장 박수현 내일 보류 심사 때 하시지요.

○임오경 위원 보류 심사 때요? 의견을 제시해야지 정리를…… 두 분 위원님들 얘기 들었으니까.

○소위원장 박수현 임오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오경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들어 봤더니 그리고 또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 봤더

니 청년기본법이 정의하는 청년의 나이는 19세에서 34세 이하이므로 19세에서 20세를 대상으로 하는 동 사업이 청년기본법에 위배는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수도권·비수도권 차등 지급이 문제가 된다라면 금액을 증액하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재부하고 지금 문체부가 합의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예, 합의가 됐습니다.

○임오경 위원 합의가 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예, 합의됐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다면 이것 조사…… 예전에 24년도에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문화예술 관람률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예,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것 저희한테도 공개가 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 15~19세가 6.3%인데 20~24세까지가 가장 높은 향유율로 나왔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예.

○임오경 위원 그래서 성인 초기,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이 성인 초기 단계인 19세, 20세가 문화 향유 욕구는 크지만 학업·미취업 등으로 문화 향유 여력이 부족해서 중점으로 지금 하신 것 맞나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예,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다면 이게 최적의 시기이므로 이 사업의 대상연령으로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또 기재부하고 문체부가 합의를 마쳤다고 하니까 원안 유지를 저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일 보류 심사 때 다시 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민형배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내일 발언시간 드릴게요.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145쪽, 문화예술위원회 경영.

내역사업인 문화예술위원회 경영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것임.

전국 지역문화재단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 확대를 위해 3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의견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145쪽 99번, 예술지원시스템 종합 개선방안 연구용역은 문예위하고 일부에 한정된 것을 복지재단·예경 등등 다른 데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우선 이번에는 3억 원으로 해서 종합적인 문화예술 분야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것을 연구용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김재원 위원님.

지금 연구용역비만 한 3억 정도 반영하자는 의견 같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어떻습니까?

○김재원 위원 이게 지금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 확대를 위한 35억 원 증액을 얘기한 건데 문화예술위원회 경영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술지원시스템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경영지원시스템 등등 해서 각 기관별로 3개씩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면 연구용역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올리자는 그 뜻입니다.

○김재원 위원 제가 이것도 예결위에서 질의를 한 건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서 발급하는 절차도 무지하게 복잡하고 그렇긴 한데 그게 2006년에 구축된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게 없이 계속 운영돼 왔어요, 시스템이. 너무 노후화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 가지고 지금 한 거였는데, 조사 비용 2억만 반영을 하신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게 낙후된 시스템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술정책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증액을 요청하신 사항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금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광역단체가 가입돼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 플러스 기초문화재단 117개까지 통합해서 하겠다는 예산안인데, 사실 차관께서 말한 대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 외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이라든가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 등 3개를 운영하고 있고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도 3개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기관에서 각각 하고 있는 것,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플러스 한국복지재단하고 예경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까지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ISP 수립을 위해 일단 내년에 3억을 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3개 기관을 통합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3억을 요청드렸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을 다 통합하겠다는 데 그게 2억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3억 원입니다.

○김재원 위원 예. 3억밖에 안 듣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사실 시스템이 다 각각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연계에 대한 부분, 시스템을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김재원 위원 하여간 그것은 시스템 연계에 대한 것만 지금 3억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

○김재원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는 것만 시스템이 3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스템만 3개 또 지역문화재단에서 하는 것 이렇게 하면 사실상 3억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하느냐만 조사하는 데 3억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지금

각각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통합구조를 만드느냐에 대한 것들이나 아니면 각각이 어떤 시스템들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연구……

○김재원 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3억이면 되느냐고 여쭈어보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게 일종의……

○김재원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시스템이 지금 말씀하신 것만 8개가 넘는데, 다 다른 시스템들인데……

○민형배 위원 정책관님, 김재원 위원님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 주시네요.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하는 데 3억을 쓰겠다는 겁니까, 연결하는 데 쓰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연결하는 연구용역을……

○민형배 위원 거 봐요. 그런데 지금 김재원 위원님은 연결한다고 그러시잖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드리세요.

그러니까 지금 실행을 못 하니까 연구용역을 우선 해 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세요. 그래야지.

○소위원장 박수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측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고요. 그러나 김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급성과 함께 그게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지금 연결 정책까지도 말씀을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설명을 잘 드리고.

지금 제안한 대로 3억 원의 연구용역비를 반영하는 정부안에 대해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김재원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정부 측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정부안대로 ‘이것 연결이 되는지 연구용역만 할게요’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렇게만 하자라고 수용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과 지금 정부에서 제시하시는 것과는 내용 자체가 아예 처음에 시작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수용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연결을 하겠다 하면 하는 것이고요. 각각의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사하겠다는 데 대한 돈을 쓸 필요는 없어요, 사실 시스템이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연결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각각의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냐 마느냐를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 이런 정보시스템 운영들, 시스템 사용 확대를 위한 것, 이런 것을 제가 증액을 요청드린 건데 지금 연결이 가능하냐를……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것을 3억만 반영하겠다 이것은 좀……

○소위원장 박수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잘 설명하시고 내일 결정할게요.

김재원 위원님하고 더 대화 좀 하세요. 여기서는 시간이 없어서 더 토론은 못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것은 보류하고 내일 보류 심사를 다시 할 테니 그때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내일 결정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예, 147쪽, 영화발전기금입니다.

영화 창·제작 지원.

심사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및 심사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내역 사업 영화제작 지원 중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 심사 및 관리운영비 3억 4200만 원 감액 의견.

148쪽입니다.

내역사업 영화제작 지원 중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 13억 증액과 12억 6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 영화제작 지원 중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영화배우협회) 확대를 위해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의견 말씀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147쪽 100번, 영화 창·제작 지원,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 사업의 심사와 관리운영을 위해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규정을 개정하는 등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투명성이나 편향성 극복 같은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48쪽,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 이것은 증액을 수용합니다. 다만 공모를 통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3억 원 증액을 수용하겠습니다.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 13억 원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김승수 위원 의견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것은 국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관님 말씀처럼 그렇게…… 일반론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양성을 확보할 것인지 또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인지 그것을 마련해서 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 결정하고 김승수 위원님께 충실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소위원장 박수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149쪽입니다.

101번, 영화유통 지원.

국내외 영화제 육성 중 국내 및 국제 영화제 지원과 관련하여 50억 원 증액 의견과 1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내역사업 영화유통 지원 중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종합지원은 인디그라운드 운영 용역비 및 공공 온라인 플랫폼 AI 고도화를 반영하기 위해 1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의견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국내 개최 영화제의 증액을 수용하는데 저희는 50억 원 증액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50억 원 증액 수용이고. 그러면 그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부산국제영화제 운영 증액도 포함된다 이거지요, 50억 안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특정 영화제 지원은 아니고요. 공모로 해서 하는데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48억의 영화제 공모가 있는데 여기에 50억이 추가되면 이 50억은 좀 세계적인 영화제로 키우는 공모 형태로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특정 영화제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용이 아니고 일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일부 수용이고요.

○민형배 위원 부산국제영화제가 여기 공모에 응해서 이것을 받아 갈 수는 있지만 지금 여기서 부산국제영화제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특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모하고 있는 영화제는 국내 전 영화제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은 부산, 전주, 부천 등 큰 것 위주로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예, 알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잠깐만요.

그 큰 거라는 게 어떤 취지입니까? 국제급……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세계 3·4대……

○정연욱 위원 말하자면 경쟁력을 나름대로 갖춘 어느 정도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겁니다.

○정연욱 위원 공모로 진행하겠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부산국제영화제가 이 공모에 응하면 선정될 가능성은 몇 %나 됩니까?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추정, 정책관님 추정. 100%?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최성희 부산영화제에서도 아마 국제적인 영화제로 도약하기 위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런 계획들을 잘 만들어 오는 것들을 같이 상의하고 일단은 큰 영화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같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과 정연욱 위원님이 질문하신, 말씀하신 뜻을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정 국제영화제를 특별하게 지원할 수 없다는 정부 측 입장도 이해가 가므로 지금 정부가 제안한 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뜻을 담아서 부산국제영화제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영화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육성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사실은 문제부가 별도로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이런 영화제들을 잘 키우는, 수용하는 그런 예산이 될 겁니다’라고 하면 될 텐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런 예산이 될 겁니다.

○임오경 위원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게 부산국제영화제를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인 영화제 하나는 저희가 만들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OTT 산업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K-콘텐츠가 세계 정상에 올라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공모가 아니라 부산국제영화제는 칸영화제나 이런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서 더 지원을 해 준다고 오히려 저희한테 요청을 더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현실적으로 어떤 특정 영화제 하나를 집어서 거기마다 50억 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들에 있는 영화제들도 있고 해서……

○임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50억을 선택하셨고 15억 증액은 아닌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50억을 선택했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했는데 제가 차관님이라면 저는 이 15억도 증액을 요청해서, 두 가지 다 요청해서 더 큰 국제영화제, 세계적인 영화제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OTT 영화, 무비가 세계적으로 톱선에 가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부산국제영화제가 칸에 밀릴 게 뭐가 있나요? 저는 그런 영화제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수현 임오경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형배 위원님, 정연숙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똑같은 취지의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당부한 대로 특정 국제영화제를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겠으나 세 분의 뜻대로 부산국제영화제가 그런 아주 명품, 세계적 국제영화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증액을 다 받아 가시라니까. 이 두 개 증액을 다 가져가서 하시라는 거지요. 어차피 깎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최성희 그런데 위엣것을 받으면 사실 앞에 공모에는 못 들어오게 될 겁니다. 하나로 통일하는 게 지금 체계상으로는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박수현 그리고 바로 밑에 내역사업 영화유통 지원 중에서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종합지원에 관해 일부 수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아닙니다. 오류입니다. 수용입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수현 이것 수용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결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151쪽입니다.

102번, 영화정책 지원.

내역사업 영화향유권 강화에서 24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영상 생태계 기반 마련 사업 예산 복원.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지원 10억 원,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 지원 5억 원, EBS국제다큐영화제 지원 5억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 20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52쪽입니다.

내역사업 한국영화아카데미 운영 중 영화인 역량강화 교육 지원 확대 필요. AI 영화 아카데미 운영 8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사업운영비 4억 원을 증액하기 위해 12억 원 증액과 AI 기술 발전에 따른 영화·영상 분야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0억 원 증액,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151쪽 102번, 영화정책 지원,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기획개발·제작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증액 20억 원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수용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20억 원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20억 원을 수용한다, 그 안을.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최성희** 다만 특정 영화제 지원은 곤란해서 20억 원을 수용하되 특정 영화제 지원은 공모를 하든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차관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진짜 고민해 보세요. 공모하는 방식하고 수요 측에서 제안을 받는 방식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 딱 책정이 되면 여기에 맞는 제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게 맞고 예산 처음에 편성할 때도 제안을 받아서 총액을 대략 고려해서 이 정도 수준에서 가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국민 참여 시스템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제가 요청했던 건데요. 공모사업으로 가자는 말씀 일단 수용을 합니다.

다만 EIDF, EBS국제다큐영화제는 모든 국민들이 알 만큼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실제로 EBS가 혼자서 감당해 왔는데 다큐라고 하는 장르가 영상 속에서 굉장히 큰, 영화와 또 다르게 영상사업의 큰 기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국제적 다큐영화제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체부 내에서도 EBS에서…… EBS가 공공기관 아닙니까. 또 EIDF가 오랜 시간 국민의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이것을 확장하고 더 대중화하려고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지정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공모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인정하고요. 이 문제는 문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기왕에 이 부분에 얘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저도 한말씀드리면, 지난 대통령님의 26년 예산안 시정연설 부분에 보면 포괄보조에 대한 예산을 올해의 3배인 10조 6000억으로 늘렸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마련

한 메뉴판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매칭을 하면서 그 지역에 맞지 않는 메뉴들을 얹지도 고르는 이런 것을 이제 지양하고 지역 스스로 콘텐츠와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기획들을 스스로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이 바로 대통령님의 철학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가치예요. 그런 것들을 빨리 깨우쳐서 그런 국정철학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이어서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고 요구입니다. 그런 측면들을 민형배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문체부가 특히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앞서 가야 되는 부처가되어야 돼요. 그에 대해서 한말씀드렸습니다.

152쪽,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152쪽, AI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증액을 10억, 12억 중에서 12억 원 증액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이의 없으시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다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159쪽입니다.

108번, 뉴스미디어 디지털 혁신 지원.

상단에 내내역사업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은 운영 부실, 관리감독 부재를 고려해 15억 64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감액을 일부 수용하는 데 고도화 예산 5억 1300만 원의 감액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고도화 예산 5억.....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5억 1300만 원 감액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니까 양문석 위원님께서 감액 제안하신 15억 6400만 원을 5억 1300만원 감액으로 수정 수용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의견 있으십니까?

○임오경 위원 양문석 위원님의 요청을 하셔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빅카인즈 사업은 2016년부터 운영돼 온 뉴스 분석 시스템으로 최근 인공지능 기능을 추가하며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챗GPT 등 상용 AI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보급돼 있어 빅카인즈의 경쟁력은 제한적입니다.

상용 AI는 뉴스뿐만 아니라 웹, 보고서, 논문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 분석해 훨씬 폭넓고 정교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반면 빅카인즈는 뉴스 기사에 한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기 때문에 활용 범위에 제약이 있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 내부에서도 챗GPT프로 등 외부 상용 AI를 직접 구매해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 추진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한편 빅카인즈의 인공지능 서비스가 현직 대통령, 국무총리 등 기본 정보조차 잘못 인식하는 오류를 발생시키고 있고 지난 8월 현직 대통령 부부를 묻는 질문에 윤석열과 김건희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언론진홍재단은 오류 발생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문제를 인지하고 뒤늦게 개선 착수, 사전검증 체계나 상시점검 프로세스가 부재, 빅카인즈 AI는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뉴스 정보의 신뢰성이 핵심 가치임에도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노출해 공공성 훼손 및 신뢰도 저하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고도화와 무관한 교육 출장, 해외 벤치마킹 여비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빅카인즈 사업은 상용 AI 서비스 대체 가능성과 유사기능 중복, 운영부실 등을 고려하여 관련 예산 15억 64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의 의견을 물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5억 1300만 원을 감액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운영 부실의 문제는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양문석 위원님이 제안하신 15억을 전부 삭감하게 되면, 이게 지금 대국민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건데요 연간 이용자가 한 190만 명 정도 되고 회원 수도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5억만 감액을 하시면, 나머지는 시스템 업체 그리고 저작권료로 지불되는 최소한의 비용이기 때문에 5억만 감액을 해 주시면 그래도 현행 수준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연욱 위원 관련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빅카인즈가 지역신문 등 104개 언론사에 다 뉴스DB 제공료를 지급하고 있고 그래서 언론사들에게 DB 제공료로 한 14억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위탁운영비나 시스템 클라우드 비용이나 법적으로 정해진 감리비용 등 필수비용이 아마 12억 정도로 잡힌 것 같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께서 얘기하신 게 한 50% 삭감 규모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빅카인즈가 언론사와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연계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사에 지급하는 뉴스DB 제공료가 당연히 삭감되고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렵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AI 부분과 연계돼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빅카인즈가 뉴스DB 체계하고 연결이 돼 있는 그런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예, 맞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래서 일부 감액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범위로 보느냐 해서 정부 쪽에는 고도화 예산 부분을 감액 대상으로 잡아서 했기 때문에 100% 원안을 다 유지하자는 것보다는 최소한도의 성의 있는 노력은 보이자는 취지에서 감액 규모를 정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 측에서 5억 1300만 원 감액 일부 수용안을 주셨는데 이대로 결정하기로 하고,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께서는 본인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정연욱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저 답변을 양문석 위원님께 잘 설명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 직접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잘 설명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정이 다 되었습니다만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차수를 변경하여 심사를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산회)

---

○**출석 위원(9인)**

김승수 김재원 민형배 박수현 이기현 임오경 정연욱 조계원 진종오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 김용규

입법심의관 김충섭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기획조정실장 김정훈

문화예술정책실장 이정우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김재현

종무실장 김도형

국민소통실장 공형식

정책기획관 이정은

문화정책관 이정미

예술정책관 이용신

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국제문화정책관 김현준

해외홍보정책관 채수희

콘텐츠정책국장 최성희

저작권국장 정향미

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